

3 6 (2009 11 • 12)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6호 (2009년 11·12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ONTENTS

11 November 2009

1주차
11.02-11.08

1. 대내정세 — 2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9
가. 북·미 관계 나. 북·중 관계
다. 북·러 관계 라. 북·일 관계
3. 대남정세 — 17

2주차
09.07-09.13

1. 대내정세 — 20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33
가. 유엔안보리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37

3주차
09.21-09.27

1. 대내정세 — 40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51
가. 6자회담 및 유엔안보리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러 관계 마. 북·일 관계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58

4주차
09.28-10.04

1. 대내정세 — 62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73
가. 북·미 관계 나. 북·중 관계
다. 북·러 관계 라.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79

인쇄 : 2009년 12월 발행 : 2009년 12월

발행처 : 통일연구원 발행인 :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 북한연구실 편집간사 : 권혜진 연구원

등록 : 제2-02361호(97.4.23) 주소 :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화 : (대표) 900-4300 / (직통) 901-2525 /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 <http://www.kinu.or.kr> 디자인·인쇄 : 두일디자인 2285-0936

(비매품)

12 December 2009

1주차
10.05-10.11

1. 대내정세 — 82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94

가. 6자회담 및 유엔안보리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러 관계	마. 북·일 관계
3. 대남정세 — 102

4주차
12.21-12.27

1. 대내정세 — 160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173

가. 북·미 관계	나. 북·중 관계
다. 북·러 관계	
3. 대남정세 — 179

2주차
10.12-10.18

1. 대내정세 — 106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122

가. 6자회담 및 유엔안보리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러 관계	마. 북·일 관계
3. 대남정세 — 132

5주차
12.28-01.03

1. 대내정세 — 184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197

가. 북·미 관계	나. 북·중 관계
다. 북·일 관계	
3. 대남정세 — 200

3주차
12.14-12.20

1. 대내정세 — 136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148

가. 6자회담 및 유엔안보리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러 관계	마. 북·일 관계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155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1.02-11.08

11월
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북·미 관계
- 나. 북·중 관계
- 다. 북·러 관계
- 라. 북·일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함남 발전소 시찰(11/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남도 정평군에 새로 건설한 금진강구창청년발전소와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
- 김정일 위원장은 함경남도 정평군에 새로 건설한 금진강구창청년발전소를 현지지도하면서 금진강청년돌격대의 자료집과 돌격대원이 만든 시집, 소묘집 등 3권의 책을 직접 봄. 조선중앙TV도 이날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 사진 여러 점을 내보내면서 김 위원장이 소묘집을 직접 보는 사진을 공개
- 특히 김 위원장은 본 '소묘작품집'에 수록된 한 작품에는 후계자 김정은 찬양가요인 '발걸음'이 큰 글씨로 쓰여 있고 여성대원이 아코디언으로 연주를 하는 모습과 여성대원들이 발걸음을 맞춰 행진하는 모습이 담겼음. 그림의 배경으로 한 줄의 악보도 담겨 '발걸음' 악보의 일부라는 추정
- 김 위원장이 각급 공연에서 '발걸음'이라는 노래 공연을 직접 관람한 데 이어 '발걸음' 노래를 소재로 한 그림작품까지 감상하고 이를 중앙TV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김정은 후계구도가 공고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현지지도에는 태중수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 김기남 노동당 비서, 당 주장들인 박남기, 장성택이 동행

● 김정일, 흥남비료 현지지도(11/6,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남도에 위치한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가스화공정 건설장과 2.8비날론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
- 김 위원장은 흥남비료 가스화공정 건설장을 둘러보고 공사 추진 실태를 파악한 뒤 "가스화에 의한 암모니아 생산은 적은 전력과 우리의 원료자원에 의거해 비료생산을 늘릴 수 있는 주체적인 비료생산방법"이라며 "비료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스화 대상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건설에서 제기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통신은 보도
- 김 위원장의 기업소 현지지도에는 태중수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 김기남 노

동당 비서, 박남기 장성택 당 부장이 동행

- 김 위원장은 기업소 현지지도에 이어 이들 기업소 종업원 예술소조의 공연도 관람, 김 위원장의 공연 관람에는 태종수 책임비서와 김기남 당 비서, 당 중앙위 부장 및 1부부장, 도와 기업소 책임간부들이 참석

● **김정일, 평북 협동농장 시찰(11/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안북도 태천군 은흥협동농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
- 김 위원장은 농장에서 생산한 갖가지 농작물들을 보면서 올해 영농사업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두벌농사(이모작)를 잘해 “전례 없는 대풍”을 마련했다며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인
- 그는 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농업 생산을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부침땅(경작지)이 제한되어 있는 우리나라(북)에서 알곡 생산을 늘리는 큰 예비는 두벌농사를 잘하는 것”이라며 이모작 확대를 강조
- 현지지도에는 김평해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 김기남 노동당 비서, 장성택, 박남기 당 중앙위 부장이 수행

나. 정치 관련

● **통일신보, 南당국에 공동선언 이행 촉구(11/7,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7일자 ‘동네 북 신세가 된 대북정책’이라는 제목의 단평에서 ‘남조선 당국’을 명시해 거론하면서 “북남공동선언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
- 신문은 “남조선의 각계각층 속에서 당국의 대북정책을 야유·조소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남조선 당국의 대북정책이 사회 각계의 못매를 맞는 동네 북 신세가 된 것”은 “변화된 북남관계와 겨레의 요구를 외면하고 ‘비핵·개방 3000’과 같은 대결정책을 계속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떠나 북남관계의 건전한 발전과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생각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

● 통일신보, 작계 5029, 북침전쟁선언(11/7,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7일자 '극히 무모한 선제공격기도'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과 미국이 최근 완성한 것으로 알려진 '작전계획 5029'에 대해 "북침전쟁을 선언한 것"이라고 반발
- 신문은 '작계 5029'의 완성은 "우리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용납 못할 엄중한 도발이고 대결과 전쟁을 고취하는 반민족적인 범죄 행위"라고 강조하면서 "‘급변사태’라는 것은 영도자와 인민과 군대가 하나의 사상의지, 숭고한 도덕의리로 굳게 단합되어 있는 우리 공화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

● 北, 국토환경보호상 김창룡으로 교체(11/5, 연합)

- 북한은 최근 박송남 국토환경보호상을 해임하고 후임에 김창룡을 임명한 것으로 5일 확인됨.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 중앙양묘장에 운수기재들을 보낸 데 따른 선물 전달 모임이 4일 열렸다고 보도하면서 참석자의 한 사람으로 '김창룡 국토환경보호상'을 들었음.
- 북한은 지난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 때 박송남을 유임시켰음. 신임 김창룡 국토환경보호상의 자세한 인적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음.

● 北, 인권문제, 협조정신으로 다뤄야(11/3, 조선중앙방송)

- 유엔 총회에 참석한 북한 대표가 10월 28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제64차회의 3위원회 회의에서 유엔 차원의 대북 인권결의를 겨냥해 "대결이 아니라 협조를 도모하는 정신에서 인권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3일 보도
- 북한 대표는 "인권의 보호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원칙의 하나로 이같이 주장하고 유엔인권이사회와 3위원회에서 대북 인권결의를 채택하는 것에 대해 "냉전시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세력들이 여전히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행위들"이라거나 "시대착오적인 행위"라고 반발

다. 경제 관련

● 北TV 상품광고, 김정일 지시로 급제동(11/8, 연합)

- 북한 조선중앙TV의 상품광고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중단된 것으로 알려짐. 복수의 대북 소식통은 8일 “김정일 위원장이 얼마 전 TV를 시청하다가 광고를 보고 ‘저 광고는 뭐냐? 저런 광고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한 짓’이라고 화를 내면서 방송을 관장하는 조선중앙방송위원장의 철직(해임)을 지시했다”고 전언
- 조선중앙TV는 지난 7월 2일 대동강 맥주 광고를 방송한 것을 시작으로 개성고려인삼, 머리핀, 옥류관 메추리 요리 광고를 방송 프로그램 사이에 내보냈었음. 그러나 연합뉴스가 수신한 조선중앙TV 방송 내용을 점검한 결과 8월 31일을 끝으로 북한TV에서 상품광고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돼 조선중앙TV의 상품광고 방송 실험은 2개월 만에 막을 내린 것으로 보임.
- 특히 차승수 중앙방송위원장의 철직은, 문제의 TV광고 방송의 시발점이 사실상 김 위원장의 지시에 있었다는 점에서 차 위원장으로서선 억울한 일을 당한 셈이라고 소식통들은 전언, 소식통은 “김정일 위원장이 ‘TV방송 프로그램을 좀 더 재미있고 다양하게 구성해 보라’고 지시하면서 중앙방송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자본주의사회식 상품광고를 방송에 내보냈던 것”이라고 설명

● 오라스콤 회장, 대북투자는 통일시장 선점효과(11/6, 미국의 소리 방송)

- 나기브 사위리스 오라스콤 텔레콤 회장은 대북투자 이유로 한반도 통일 전망을 고려한 북한시장 선점효과를 들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6일 보도, 사위리스 회장은 10월 12일 열린 회사 경영진과 세계 주요 투자은행 분석가들 사이의 ‘전화 회의’에서 “북한시장은 리스크(위험) 요소에 비해 기대효과가 훨씬 크다”며 “현재의 정세를 종합해 보면 언젠가는 남북한이 통일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북한 시장의 선점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고 언급
- 그는 105층짜리 평양 류경호텔의 공사 재개를 위한 오라스콤 텔레콤의 대규모 투자는 “북한에 대한 선의의 표시”라며 “이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으며 류경호텔이 완공되면 오라스콤 텔레콤의 북한내 본부가

될 것”이라고 언급, 비카라 이사는 특히 북한 이동통신 사업 투자를 통해 북한이 깔아놓은 광섬유 통신선으로 이동통신을 운영하는 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밝힘.

● 유니세프, 北아동·여성 영양실태 조사 중(11/4,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아동기금(UNICEF)이 10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5년 만에 대규모 영양실태 조사를 재개함에 따라 연말이나 내년 초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
- 유니세프 측은 북한 당국의 거부로 2004년 이래 5년째 중단됐던 조사를 10월 예정대로 착수해 “큰 문제 없이 잘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2004년 3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보다 훨씬 큰 규모로 진행된다고 설명
- 영양실조 상태가 심각한 함경북도와 량강도를 비롯한 북한 전역의 어린이와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 결과가 나오면 국제 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 유니세프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2년에 한번씩 영양조사를 실시했지만 북한 당국의 비협조로 2004년 이후 조사가 중단됐음.

● 北술공장, 전 종업원 새 품종 개발에 참여(11/3, 조선신보)

- 북한의 대표 소주인 ‘평양소주’를 생산하는 평양소주공장이 최근 종업원들이 직접 착상·개발한 깻잎술, 쑥술, 솔잎술, 황경피나무열매술, 도라지술 등 12종의 새 술을 내놓았다고 조선신보가 3일 소개
- 이들 술은 모두 “평범한 노동자들이 생산활동 과정에 연구 개발한 것”들로, 이 공장은 술 품종 확대사업에 기술자뿐 아니라 전 종업원이 참가하도록 했었음.

● 北, 겨울철 생산 대책 총력 촉구(10/29,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10월 29일자 ‘겨울철 생산준비를 빈틈 없이 갖추자’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겨울철을 앞두고 채취공업과 철도운수, 임업, 건설 부문에서 월동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생산과 건설에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독려

- 신문은 특히 철도운수 부문에 대해선 각 경제 부문의 겨울철 생산준비를 위한 물자를 겨울철 이전에 조속히 실어나를 것을, 건설 부문에 대해선 대규모 수력발전소와 평양시 주택건설을 비롯한 주요 건설장에서 공사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래와 자갈 등 건설자재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할 것을 각각 독려

라. 군사 관련

● 北, 폐연료봉 8000개 재처리 끝내(11/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3일 '조선(북한)에서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라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기사를 통해 "폐연료봉 8000개의 재처리를 지난 8월 말 끝냈으며 여기서 추출된 플루토늄을 핵무기화하는 데서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있다"고 주장, 북한은 "적대 세력들의 가증되는 핵위협과 군사적 도발에 대처해 부득불 자위적 억제력 강화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고 주장
- 폐연료봉 재처리는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추가로 추출했다는 의미로, 8000개를 모두 재처리하면 7~8kg 정도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통상 핵무기 1개를 제조하는 데 플루토늄 6~7kg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은 이 과정을 통해 핵폭탄 1개 이상을 제조할 수 있는 원료를 추가로 확보한 셈임.

마. 사회·문화 관련

● 북한 TV도 손씻기 장려(11/4, 조선중앙TV)

- 겨울철을 맞아 전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선중앙TV가 4일 손씻기를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냄. 이 방송은 "감기예방에 제일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법은 손을 정상적으로 씻는 것"이라며 "사람의 손은 하루에도 1억개 이상의 세균과 비루스(바이러스)와 접촉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손을 비누 또는 세척제로 씻으면 손에 묻은 세균과 비루스를 씻어 버릴 수 있으므로 감기 발병률을 훨씬 낮출 수 있다"고 밝힘.
- 최근 북한도 신종플루의 유입을 막기 위해 공항과 항만, 국경초소에서 검역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가비상방역위원회는 중앙 및 지방의 보건기관

들에 “사소한 징후도 놓치지 말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월 30일 보도

● 北 월드컵팀 정대세 ‘인민체육인’ 칭호 수여(11/3,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교도통신)

- 북한은 1966년 잉글랜드 대회 이후 44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따낸 남자축구 대표팀의 김정훈 감독과 정대세를 비롯한 선수들에게 ‘인민체육인’과 ‘공훈체육인’ 칭호를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일본의 교도통신이 보도.
-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박학선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김정훈 감독과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열린 표창식에서 김정훈 감독과 정대세를 비롯한 16명이 ‘인민체육인’ 칭호를, 미드필더인 지윤남 등 3명이 ‘공훈체육인’ 칭호를 받음.
- 또 체육지도위원회 김정식 부국장이 김일성의 이름을 새긴 시계표창을, 김정수 부국장이 김정일의 표창장을 각각 받았으며 ‘국기훈장’ 제1급 1명, ‘국기훈장’ 제2급 8명 등 “많은 선수와 일꾼들에게 훈장과 메달이 수여됐다”고 통신은 3일 보도
- 조선중앙방송도 표창 소식을 전하면서 남자축구 선수들이 월드컵대회 참가자격을 획득함으로써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고 강성대국 건설대전을 벌이고 있는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고무했다”고 표창 이유를 설명

● 北, 6억2천만년전 동물화석 발견 주장(10/28, 교육신문)

-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지질학부의 교수와 연구사들이 황해북도 평산군에서 “6억 2천만년 전의 것으로 판명”된 관 모양의 동물화석을 발견했다고 교육신문이 보도, 신문은 이들이 고생물학 전문가들로서 평산군 “현지에서 발견한 원시바다풀 화석과 원시해파리 화석을 고찰하고 그 지층을 따라가며 연구를 심화시키는 과정에 길이 5cm되는 관 모양의 관상동물 화석을 발견”했다고 보도

2 대외정세

가. 북·미 관계

● 北, 북미대화 여러 차례 원해(11/8, 니혼게이지신문)

- 북한과 미국의 북미대화 물밑 교섭 과정에서 북한 측이 6자회담 복귀 조건으로 양측 고위급 대화를 여러 차례에 걸쳐 할 것을 요구했다고 니혼게이지(日本經濟)신문이 복수의 북·미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8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물밑 접촉에서 미국 측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 폐기를 명기한 2005년 6자회담의 공동성명을 준수하겠다는 것을 확약하면 협상에 응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북한은 6자회담 이전에 열리는 북미 대화에 대해 '4~5회'를 예로 들었다고 신문은 전언

● 美, 북미양자대화 무한정지속 원치않아(11/7, 연합)

- 미국 정부는 늦어도 연내에는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계기로 북미대화를 시작하더라도 양자대화를 오래 지속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6일 워싱턴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북미대화의 개최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회담이 성과 없이 무한정 가는 것은 아무도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미국도 이 협의가 무한정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 이 당국자는 “미국은 북미대화를 가진 후 북한이 6자회담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북미대화 횟수를 (한 차례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자대화가 지속되는 것은 선호하지 않으며 가급적 빨리 6자회담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
- 그는 “6자회담이 다시 열리게 되기를 바라는 기대들이 있지만, 6자회담이 열릴지는 아직도 미지수”라고 덧붙임.

● 보즈워스, 訪北 계획 조만간 발표(11/7, 연합)

- 5일 저녁 워싱턴 DC의 미 상공회의소에서 한미 재계회의가 개최한 리셉션에 부인과 함께 참석한 그는 “언제 북한에 가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언제라도 북한에 갈 준비가 돼 있고, 조만간 특정 시점에 (방북 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답변

● 베이더, 美, 北과 직접대화할 준비(11/7, 연합)

-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6일 (현지시간) “북한과 직접적인 개입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북·미 대화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해 동맹국과 협의중”이라고 밝힘.
- 베이더 보좌관은 “6자회담 프로세스가 올바른 틀이고, 비핵화가 (회담의) 의제가 돼야 하며, 2005년 (9·19) 선언이 여전히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북한이 이해하고 있다는 진정한 신호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북한과의 양자 회담을 평양에서든 다른 곳에서든 갖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힘. 그러나 “양자회담은 6자회담과 기존의 관련된 합의가 전제된 맥락에서 열려야 한다”고 미 행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여 강조한 뒤 “우리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을 것이며, 영변을 3번째로 사는 일도 없을 것이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밝힘.

● 北 리근, 방미 마치고 귀국(11/5, 연합)

-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이 10박 11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5일 귀국, 리 국장은 북한 고려항공 정기 운항일인 이날 오후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서 취재진에게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을 떠났음.

● 北대표단, 중국에 종속 원치 않는다(11/5, 자유아시아방송)

- 지난달 뉴욕에서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북한 토론회에서 북한 대표단은 “우리는 전적으로 중국에 종속 되길 원치 않는다”며 한국, 미국, 일본 등과 경제교류 확대를 희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보도
- 이 방송은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와 코리아소사이어티가 10월 30일 공동 주최한 북한 토론회에 참석한 북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보도

● 엘바라데이, 북핵, 해법은 포괄타결 뿐(11/5, 자유아시아방송)

-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패키지 딜(포괄타결)’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5일 보도
-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4일 미국 뉴욕의 외교협회(CFR) 연설에서 “북한은 안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미국이 정권 교체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가장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유일한 카드인 “핵계획을 통해 인도적, 경제적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려고 노력 중”이라며 안전보장과 인도적·경제적 지원을 북한의 핵폐기와 맞바꾸는 패키지 딜을 주장

● 北대표단, 6자틀 내 북미대화 언급(11/5, 연합뉴스)

- 지난달 말 미국을 방문했던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이 6자회담에 열린 입장을 보였으며, 특히 ‘6자회담 틀 내의 북미 양자대화’를 언급하는 신축적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4일 전해짐. 리근 국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은 지난달 30일 뉴욕에서 열린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와 코리아소사이터티 공동 주최 비공개 북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보였다고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소식통이 전언
-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대표단은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분명히 더 선호하지만, 6자회담에도 열려 있다고 말했으며, 특히 한 북한 참석자는 “6자회담 틀 내의 북미대화가 필요하다”면서 “미국과 안보문제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며, 이는 6자회담의 진전을 이끌 것”이라고 밝힘.
- 북한 대표단은 또 미국과의 양자관계가 재개되는 최근의 좋은 신호들에 만족한다고 말하면서 북한은 언제든지 미국과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말했다고 전언, 북한 대표단은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가진다면 역내 미군의 주둔을 북한이 환영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짐. 소식통은 “한 북한 참석자는 북한과 미국 간의 고위급 대화의 필요성을 말하기도 했다”고 전언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와 관련, 북한 대표단은 제재 철폐를 원하고 있지만 제재 철폐가 대화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다고 소식통은 소개, 북한 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북한에 몇몇 기회가 있었다”면서 “북한은 확산을 할 의도가 없지만, 미국이 북한을 코너로 몰아넣을 수 있

다”는 경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짐. 또 북한은 스스로를 핵보유국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받기를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입장도 보임.

- 북한은 지난 4월 이뤄진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합법적인 인공위성 발사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미국과 유엔의 대응을 비난했고, 현재의 휴전협정을 대체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짐. 이밖에 북한 대표단은 관계정상화, 경제지원,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의 비핵화시 가능한 반대급부를 한 미국 참석자가 언급하자 “좋은 패키지”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짐.
- 이와 함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미국과의 경제·문화적 교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고, 한국과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8월 방북 이후 나온 관계로 변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

● 美, 北 9.19공동성명·유엔결의 위반(11/4, 연합)

- 미국은 3일 북한이 ‘폐연료봉 8천개의 재처리를 완료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9.19 공동성명에 상반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면서 비핵화 조치 착수를 촉구
-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정레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플루토늄 재처리는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스스로 약속한 것과 상반된 것이며,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도 하다”고 밝힘. 켈리 대변인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조치를 북한이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
- 하지만 그는 ‘북한의 발표를 비난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비난한다고 말하지는 않았다”면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여지를 남김. 그는 ‘북한의 이번 발표가 긴장을 높이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즉답을 피함.
- 켈리 대변인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은 궁극적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에 이를 수 있도록 할 6자회담 재개”라면서 “진전을 위한 길이 있으며, 그 길은 6자회담 재개 및 모든 당사국들이 2005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 그는 “동북아 긴장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평화적 해법이라는 목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 모두가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고 언급하면서 “모두가 신중하고, 수사(rhetoric)를

완화하며, 긴장을 일으킬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

- 그는 또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성 김 특사와 북한 외무성 리근 미국국장 간의 뉴욕접촉에서 “역내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다자적 해법과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다시 단언할 기회를 가졌다”고 전언
- 켈리 대변인은 미국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성 김 특사가 이제 막 돌아왔고, 힐러리 클린턴 장관은 해외 순방 중”이라면서 “결정을 내릴 것이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시점이 아니다”라고 답변

● 北, 美 의원단 방북도 요청(11/4, 산케이신문)

- 북한이 미국에 대해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과 함께 미국 상·하원 의원단의 북한 방문도 타진했다고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이 미·일 외교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4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미국 측은 이에 대해 북한의 핵 관련 시설 공개를 방북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 RFA, 北김책공대 총장 11월 말 방미(11/4,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홍서헌 총장이 학술교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11월 29일 미국에 도착해 시라큐스대학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 RFA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 이같이 전하고 홍 총장을 포함한 4명의 김책공대 대표단은 뉴욕도 방문할 계획이라고 보도
- 김책공대 대표단은 최근 북한 당국으로부터 방미 승인을 받고 미 국무부에 신청한 입국 비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언, 시라큐스대는 지난 2001년부터 정보기술(IT) 부문을 중심으로 김책공대와 교류하고 있으며 두 대학의 과학자들은 서로 수차례 상호 방문하면서 공동 연구사업을 하고 있음.

● 美, 북미 매우 유용한 논의(11/3, 연합)

- 미국은 2일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의 방미 기간 이뤄진 북미 간 접촉이 매우 유용했다고 밝힘.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정레브리핑에서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성 김 특사와 리근 국장 간에 10월 24일 열린 뉴욕접촉

- 과 관련, “성 김 특사가 매우 유용한 논의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
- 켈리 대변인은 “이번 논의들은 6자회담 재개라는 당장의 목표에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유용한 접촉이었다”고 언급, 그는 “성 김 특사가 리근 대사와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논의했다”고 소개
- 켈리 대변인은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문제에 대해서도 “보즈워스 대표의 북한 방문에 대한 초청이 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보즈워스 대표가 방북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변
- 그는 또 미국에 양자대화를 촉구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이날 언급이 6자회담 등 다자회담 재개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그것(6자회담 재개)이 우리의 목표”라면서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로 이끌 수 있는 6자회담 재개”라고 밝힘. 그는 이어 “우리의 정책은 분명하다”면서 “(6자회담의 나머지) 4개 파트너들과의 완전한 협의가 이뤄지고, 6자회담 재개라는 맥락에서 이뤄진다면 우리는 양자적 맥락에서 북한과 마주 앉을 용의가 있으며, 우리는 이 정책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있다”고 강조

● 北외무성, 美에 양자대화 ‘결단’ 촉구(1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2일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해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당사자들인 조(북)·미가 먼저 마주 앉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미국에 대해 북미 간 양자회담에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우리가 아량을 보여 미국과 회담을 해보고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는 미국이 결단을 내릴 차례”라고 주장, 그는 “조미 사이에 적대관계가 청산되고 신뢰가 조성되면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게 될 것”이라며 북미 양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의 출발점임을 강조
-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아직 우리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도 그만큼 제 갈 길을 가면 될 것”이라고 말해 미국이 북미 양자회담에 호응하지 않는다면 핵억제력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우회

적으로 표현

- 그는 리근 미국국장이 미국을 방문, 제20차 동북아시아협력대회(NEACD)에 참석하고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성 김 북핵특사와 접촉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 접촉은 조미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이 아니었고 따라서 접촉에서는 조미대화와 관련되는 실질적인 문제가 토의된 것이 없다”고 주장
- 그는 북미 양자회담 후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 개최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우리의 입장은 조선반도 비핵화가 실현되면 조미 적대관계가 청산되어 우리의 핵보유를 산생시킨 근원을 완전히 없애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이고도 타당한 요구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언급
- 외무성 대변인은 또 “지난 6년간에 걸치는 6자회담 과정은 조미 사이에 적대관계가 청산되고 신뢰가 조성되지 않는 한 6자가 아무리 회담을 해도 그것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해 줬다”며 “미국이 유독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만을 한사코 걸고 들다 못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끌고가 제재를 발동시킴으로써 9.19 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인 자주권 존중과 주권평등의 원칙은 말살되고 성명은 무효화됐다”고 주장

나. 북·중 관계

● 中, 北·美 접촉 환영(11/5, 연합)

-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 “우리는 북미 접촉과 북미간 관계 개선에 대해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언급
- 마 대변인은 “우리는 북·미간 접촉이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 달성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도움이 되고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그러나 마 대변인은 리 국장이 이틀간 베이징에 머물면서 중국 관리들과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北공군 대표단, 訪中(11/3, 연합)

- 북한 공군 부사령관 김광수 소장이 이끄는 공군 대표단이 중국 공군 창설 6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3일 베이징에 도착, 김광수 소장 일행은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의 서우두(首都)공항에 도착한 후 북한 대사관으로 향했음.

다. 북·러 관계

● 러시아, 북한 핵 보도 과장 말아야(11/7, 연합)

- 러시아 외무부의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추출된 플루토늄을 핵 무기화했다는 보도는 대화 개시를 위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안 된다”고 언급, 네스테렌코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조치가 현 상황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보도를 극적으로 과장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

라. 북·일 관계

● 北, 日민주당 정권에 ‘혹시나’에서 ‘역시나’로(11/4, 조선신보)

- 북한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일본 의회 연설에서 밝힌 대 북 정책에 대해 “평양선언의 정신을 무시 혹은 왜곡하는 것으로서 선언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4일 보도
- 신문은 ‘의지를 보여야’라는 제목의 ‘메아리’ 코너에서 하토야마 총리의 연설은 “일본에 대한 조선(북한)의 불신감을 덧쌓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언급
- 조선신보는 하토야마 정권이 “서로 성격이 다른 문제들을 억지로 결합시켜 그 ‘포괄적인 해결’을 국교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점, ‘납치문제’를 더 강조하는 점, “조일(북일) 사이의 대화와 협상이라는 말조차 쓰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본에는 여전히 양국간 관계개선의 의지도 없고 준비도 돼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주장

● 日, 北재처리 안보리 결의위반(11/4, 연합)

- 일본 정부 대변인인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은 4일 북한의 전날 폐연료봉 재처리 발표와 관련 “사실이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힘.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북한은 한시라도 빨리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
-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국토교통상은 “(북한의 발표는)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는 자신의 카드를 높이기 위한 행위”라고 지적

3 대남정세

● **샘의료복지재단 北에 의료장비 전달(11/5, 연합)**

- 기독교 국제지원단체인 샘의료복지재단(대표 박세록)이 북한에 구급의료장비인 '사랑의 왕진가방' 3천개를 전달, 5일 재단 시애틀 지부(지부장 박상원)에 따르면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전문 의료진과 재단 관계자 등 40명은 10월 31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해 지난 8월 중국 단둥병원에서 3주에 걸쳐 만든 왕진가방을 기증, 이들은 또 황해남도 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수행함.

● **남북공동 안중근의거 100주년 모임 개성서 개최(10/3, 조선중앙통신)**

-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을 기념하는 남북 공동모임이 3일 개성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모임에는 남측에서 함세웅 이사장 등 안중근의 사기념사업회 관계자들과 조광 안중근연구소장 등이, 북측에서 장재언 조선종교인협의회장, 정덕기 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 등이 참석
- 모임에선 안중근 의사를 추모하는 묵념과 연설에 이어 '안중근 열사의 애국적 장거와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지난달 26일부터 안 의사의 순국 100년이 되는 2010년 3월 26일까지를 '안중근 열사 기념 반일 공동투쟁 기간'으로 정해 "대중적 운동을 과감히 벌려" 나가는 방안에 관한 토론이 열렸다고 통신은 전언
- 통일부 관계자는 "남측에서 9명이 개성을 방문해 북측과 행사를 가졌다"며 "안 의사가 천주교 신자여서 함세웅 신부가 이사장으로 있는 기념사업회측에서 북측과 행사를 가진 것"이라고 설명

● **북한産 모래반입 부분 재개 (11/3, 연합)**

- 정부는 올해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때 중단시킨 민간업자들의 북한산 모래 반입을 10월 27일부터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3일 밝힘.
- 이 당국자는 "업체들이 북측에 투자(대금지불)를 했다가 정부의 반입 중단 조치로 인해 투자한 만큼의 모래를 들여오지 못한 경우에 한해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며 "기 투자분 회수가 끝나면 건별로 심사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언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1.09-11.15

11월
2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유엔안보리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北김정일, 어슬렁어슬렁 걷는 골프, 싫어(11/10, 우리민족끼리)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86년 9월 평양시 교외 골프장에 나갔다가 “골프는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신사풍’의 사람들에게 하나의 대인기고 유행”이라는 한 간부의 말에 “골프는 내 성미에 맞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고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10일 김 위원장을 우상화한 ‘골프와 위인의 정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언
- 김 위원장은 자신은 “1만보를 걷는 속도운동을 한다”며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는 것은 성이 차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것, 그는 또 “운동을 하여도 활력 있는 것을 좋아하고 맥빠지고 박력이 없는 운동을 싫어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매체는 소개
- 매체는 그가 “안온하고 조용하며 목가적인 생활이 아니라 언제나 들끓고 혁명적 열정이 넘쳐나는 생활을 좋아한다”며 이 때문에 “비관과 애수, 고독, 침울과 같은 정서들은 더 말할 것 없고 기백이 없고 때 없이 고요를 부르는 안온하고 조용한 정서”는 김 위원장의 정서와는 인연이 없다고 주장, 그는 또 “사업에서 오물쭈물하며 열정이 없는 기풍”과 “생활에서 희열이 없이 무미건조한 현상을 몹시 타매”한다고 매체는 소개

● 김정일 매우 건강, 정은 후계는 소문(11/9, 연합)

- 중국 공군 6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북한의 리중진(李中進) 조선인민군 공군 외사국장은 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과 관련, “매우 건강하다. 항상 적확(的確)하게 지도해 주고, 시찰도 매우 많이 나온다”고 설명
- 리 국장은 이날 산둥(山東)성 지닝(濟寧)시에서 일부 일본 언론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해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 리 국장은 3남 김정은 씨로의 후계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

다. 소문일 뿐이다”라고 답변

● 김정일 특급열차 전용역 19곳 있다(11/9, 조선일보)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내 현지도나 외국 방문 때 주로 이용하고 있는 전용열차가 6개 세트 90여 대(량)에 달하며, 약 20개소에 전용역을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짐. 또 테러에 대비해 김정일의 전용열차가 달리는 앞뒤에는 사전 정찰 및 경호를 위한 2개의 열차 편이 별도로 운행되는 것으로 알려짐.
- 한·미 정보당국은 미 정찰위성과 U-2 정찰기 등 각종 정찰장비와, 탈북자 증언 등 인간정보를 종합해 김정일 전용열차 추적 및 분석 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짐. 그 결과 김정일 전용열차의 전용역(일명 1호역)은 평양 용성1호역과 강대동 1호역을 비롯, 원산, 신의주, 혜산 등이며, 전용역은 보통 김정일의 전용별장 격인 특각에서 수km~30km 이내 지역에 설치돼 있음.
- 김정일이 전용열차로 이동할 때는 보통 3개의 열차가 함께 운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먼저 김정일이 탄 열차 앞에 경호 및 행사요원이 탄 선행(先行)열차가 이동하면서 선로가 안전한지 등을 점검, 또 김정일 열차를 가운데 두고 경호병력과 지원요원이 탑승한 열차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뒤따르다는 것 전용열차는 보통 시속 60km 이내의 빠르지 않은 속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전해짐.
- 김정일이 도착할 역에는 폭발물 등 각종 테러에 대비해 경호 및 비밀요원 100여 명이 미리 도착해 철저히 점검한다. 또 전용열차가 역에 진입하기 전에 다른 차선의 전기를 아예 끊어 열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다가 열차가 통과한 뒤에야 다시 전기를 넣어 재연결하는 것으로 알려짐.
- 소식통은 “2004년 4월 평안북도 용천군 용천역 대형폭발사고 이후 전용열차 운행 때 경호가 더욱 강화됐다”고 전언, 김정일이 탄 열차는 방탄(防彈) 설비가 돼 있고 회의실, 접견실, 침실 등이 구비돼 있다. 위성전화 등 첨단 통신장비와 벽걸이 TV 등이 비치돼 주요 사안에 대해 즉각 보고 받고 지시할 수 있도록 돼 있음.
- 김정일이 열차에서 내려 별장으로 이동할 때는 전용열차에 싣고 간 벤츠 등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한다고 소식통은 전언, 김정일이 전용열차 편으로 국내 현지도를 할 때는 북한 공군의 IL-76 수송기, MI-17헬기 등이 경호 지원 인력 및 장비를 인근 비행장까지 실어 나르기도 함.

나. 정치 관련

● 통일신보, 선의엔 선의로, 도발엔 무자비한 보복(11/14,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11월 10일의 서해교전이 “북남사이에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어가고 있는 때”에 남한 ‘군부 호전세력’에 의해 일어났다고 “선의에는 선의로, 도발에는 무자비한 보복으로 대답하는 것”이 북한군의 ‘일관된 자세’라고 주장
- 신문은 14일 ‘평화를 위협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행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교전과 관련해 북한군 최고사령부가 ‘보도’를 발표하고 남측 당국에 ‘사죄’와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정당당한 것”이라고 보도
- 신문은 특히 “두차례의 엄중한 무장충돌사건”을 불러온 “서해해상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첨예한 곳”이어서 “이곳에서 상대방에 대한 자극적인 군사행동은 금물이며 더욱이 선불질은 무장충돌과 지어 전쟁까지 불러올 수 있다”면서 그런데도 남측이 귀대하는 북한 해군 경비정을 향해 함포를 쏘았다고 비난

● 北, 서해교전 南발포 경위 스스로도 엇갈린 주장(11/14,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4일 최근 남북 해군 간 서해교전과 관련,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을 불러일으키는 호전세력들의 도발행위’라는 제목의 ‘대담’ 형식을 빌려 이번 교전의 배경과 경위 등에 대해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당국의 입장을 선전
-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조선방송위원회 기자들’은 “최근 남조선 호전세력들이 우리를 반대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통해 “고의적인 긴장격화 책동”을 벌였다고 북한 군부와 언론매체들의 대남 비난을 되풀이, 이들은 북한 해군 경비정이 북한 “영해에 침입한 불명목표를 확인하고 돌아오고” 있었는데 “남조선군 함선집단이 경고사격이라는 것을 다섯번이나 하는 이런 용납못할 도발행위를 감행”했고 “더는 참을 수 없게 된” 북한 경비정이 “즉시 자위적인 대응타격을 가하자” 남한 해군함들이 “자기측 수역으로 달아나면서 불질을 했다”고 주장
- 그러나 대담자들이 “달아나면서 불질을 했다”고 말한 대목은 지난 10일 교

전 직후 북한군 최고사령부가 내놓은 ‘보도’에서 남한 해군함들이 귀대하고 있던 북한 경비정을 “뒤따르며 발포”했다고 주장한 것과 다른것임. 또한 북한측 주장들은 다만 북한 경비정의 피해 상황에 대해선 모두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음.

● 노동신문, 개방·세계화 두려움과 거부감 재확인(11/14, 노동신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0월 ‘150일 전투’ 성과를 돌아보던 자리에서 “조선(북한)은 세계어로! 세계는 조선을 쳐다보라!”고 말했다고 노동신문이 14일 ‘조선은 세계어로 나간다’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전언
- 신문은 그러나 여기서 세계란 나라들이 모인 “공간적인 세계가 아니다”며 “‘세계화’의 바람속에 뜻대없이 휘말려 들어가는 ‘세계어로’나 제정신없이 남의 장단에 춤을 추다가 ‘큰집’이 기울어지면 자기의 삶과 앞날을 잃어버리는 그런 ‘세계속으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설계하고 마중해 나가는 우리식의 내일”이라고 주장해 김 위원장의 말이 세계화와 개방을 가리키는 뜻이 아님을 강조
- 신문은 ‘세계가 쳐다보는 조선’이란 “영토가 크고 인구가 많고 현란하게 번쩍거리는 것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존엄을 굳건히 지키고 자기 목표와 이상을 자기 힘, 자기 식으로 실현하며 참다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민족자강의 나라”라고 해설

● 北매체, 서해교전, 南의 계획도발, 대가 치를 것(11/12, 노동신문; 민주조선)

- 노동신문은 12일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최근 서해교전에 대해 “단순한 우발적 사건인 것이 아니라 조선반도(한반도)의 긴장격화를 노리는 남조선 군부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도발 행위”라며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 신문은 북한 해군 경비정이 “정상적인 경계근무를 수행”중이었는데 남측이 “먼저 불질을 했다”고 북한군 최고사령부의 ‘보도’ 내용을 되풀이 보도
- 민주조선도 이날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계획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때에 남조선 군당국은 서해해상에서 무장도발 사건을 일으키고 그 책임을 우리측에 넘겨씌우는 방법으로”

미국에 “우리에 대한 적대감을 불어넣어 대조선 적대시 정책도 바꾸지 말고 조(북)·미대화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간청하려고 했다”고 주장, 민주조선은 또 지난달 동부전선 철책선을 뚫은 월북 사건으로 여론의 비판에 “수세에 빠진 남조선 군당국”이 “안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여론을 내 돌려 땅바닥에 떨어진 체면을 지켜세워 보려고 했다”고도 주장

● 北원동연, 통전부 부부장 승진(11/12, 연합)

- 북한의 대남 기관인 노동당 통일전선부(통전부) 과장(국장격) 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실장이었던 원동연(62)이 최근 통전부 부부장과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으로 승진했다고 복수의 대북 소식통이 12일 전언,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이달 방북했을 때 원 실장의 10월 승진 사실을 통전부 주변 관계자들로부터 들었다”고 언급
- 다른 소식통은 “원 실장이 이미 지난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 ‘특사 조의방문단’의 일원으로 서울에 오기 직전 통전부 부부장으로 승진했었다는 것을 10월 초 북한 관리들로부터 들었다”며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승진도 같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설명
- 그는 “통전부 부부장은 대남 대화와 교류를 총괄하는 자리로 원동연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실무적으로 추진했던 최승철 전 부부장의 자리를 이은 것”이라고 언급
- 통일부 당국자는 “특사 조의방문단 일원으로 왔을 때 원동연의 직함은 아태위원회 실장이었고, 그 이후 남북협의 과정에서건 북한 매체에서건 공식 직함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승진 여부는 앞으로 남북회담 등에서 확인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
- 원동연은 지난 20여 년간 남북 간 주요 고위급 회담과 접촉에 빠짐 없이 관여해온, 대남 분야 베테랑임. 조국통일연구원 부원장을 겸한 그는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과 총리회담 때 막후에서 합의문안을 조율할 정도로 이론가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짐.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했으며 1990년 남북고위급회담 때 수행원으로 1차부터 7차 회담까지 참가했고 1992년 고위급회담 때는 군사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나섰으며, 1995년 7월 베이징 2차 쌀회담 때는 북측 대표를, 같은 해 9월 3차 쌀회담에서는 대변인을 맡았음. 그는 또 2002년 10월 북한 경제시찰단의 일원으로 남한을 방

문했을 때 시찰단의 실무 현안을 책임지는 현장 조정자 역할을 했으며 조 평통 서기국 부장 등 여러 직책을 갖고 있음.

● 노동신문, 남북 화해·화합, 관계개선 전제(11/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화해와 협력은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북과 남의 화해와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필수적 전제"라고 주장
- 신문은 "화합이란 서로의 사이가 화목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화해란 좋지 않던 관계를 서로 이해하여 푸는 것을 말한다"며 "북과 남이 화해하고 단합하면 민족의 힘이 그만큼 더 커지게 되고 조국통일의 기초가 튼튼하게 마련되게 된다"면서 이같이 설명
- 노동신문은 "민족내부에 존재하는 반목과 불화는 북과 남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낳는 사상적 근원이고 서로의 화합을 가로막고 민족의 단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되고 있다"면서 "동족 사이에 서로 불신하고 적대시하는 대결의 감정을 없애지 않고서는 북과 남 사이의 신뢰와 화해를 도모할 수 없으며 긴장격화와 군사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

● 北매체, 옥수수 1만 톤 지원, 속통좁은 처사(11/10,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10일 우리 정부가 대북 옥수수 1만 톤 지원 의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 남한 내에서 이를 "비난 조소하는 여론이 끓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속통좁은 처사"라고 비난
- 우리 정부의 대북 옥수수 1만 톤 지원통보에 북한 당국은 2주 넘게 응답을 하지 않고 있음. 이 매체는 '응당한 못매'라는 '단평'을 통해 "빈 달구지 굴러가는 소리가 더 요란하다고...무엇을 크게 할 것처럼 소란을 피우지만 고작해서 농부의 지계에 올려놔도 시원찮을 강냉이 얼마 타령"이라면서 "치사하고 속통좁은 처사"라고 비난

● 민주조선, 美 국방예산 채택 비난(11/10,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10일 미국이 최근 6천800억 달러 규모의 2010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채택한 데 대해 "세계적인 군비경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비난, 신문은 이날 '군비경쟁을 몰아오는 부당한 처사'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심한 재정적 난관에 직면”한 미국이 “국방예산에 이렇듯 막대한 자금을 또다시 퍼부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은 힘으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본심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

- 신문은 국방예산의 일부는 국가안보계획에, 일부는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지원에 각각 이용되며 상당액은 “전지구적인 미사일 방위체계 창설”에 투입될 것이라면서 특히 미사일 방위체계 구축에 대해 “세계적 규모에서 미국의 전략적 우세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 北간부, ‘개판된 남조선국회’ 시청(11/10, 조선일보)

- 북한 당국이 10월 초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개판된 남조선국회’라는 제목의 남한 비방 영상물을 최고위 간부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9일 알려짐.
- 북한 내 한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이 영상물은 한국 국회의원들이 해머와 전기톱으로 국회 시설을 부수고 발차기를 하는 장면 등 ‘폭력국회’ 현장을 보여주는 여러 동영상 한 시간 분량으로 편집한 것이었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역도가 못살게 굴어 자살했다”, “남조선은 혼란 그 자체”, “남조선 인민들은 이명박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고 전언
- 중앙기관 국장급 이상만 참가할 수 있는 인민문화궁전 강연회는 특별 영상물을 통해 국제사회나 남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라고 함. 이날 영상물은 북한 최고위 간부 약 300명이 2개 조로 나뉘어 본 것으로 알려짐. 1조는 노동당 중앙위와 국가보위부, 군부 소속이었고, 2조는 내각 등의 간부들이었음.
- 최근 중국을 방문한 한 북한주민은 이 영상물을 본 간부들이 “남조선 국회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지나치게 자유가 넘치는 것도 문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전언

다. 경제 관련

● 노동신문, 개도국 ‘독자’ 금융체계에 관심 표명(11/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독자적인 금융체계를 창설”해 “서방이 주도하는 불공평

한 국제금융체계의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발전도상국들의 움직임에 주목, 노동신문은 이날 ‘독자적인 금융체계 창설을 위한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국제금융체계를 개도국에 대한 “위협과 압력, 경제적 예측과 수탈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

- 신문은 10월 열린 중남미 좌파 모임인 ‘미주(美洲)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 정상회담이 내년부터 회원국 간 무역거래에 공동통화인 ‘수크레(Sucre)’를 사용키로 합의한 사실을 이에 대한 대응사례로 소개

● 北피복·기계회사들, 和기업 주문 생산 중(11/13, 조선신보)

- 지난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북한을 방문한 네덜란드 기업가 대표단과 북한의 조선상업회의소 사이에 교류협력 계획들이 합의돼 실행 단계라고 조선신보가 13일 보도
- 신문은 “조선(북)과 네덜란드의 기업들이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선상업회의소가 여기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 신문에 따르면 네덜란드 기업가 대표단은 당시 “희망하는 무역 분야에 대한 안”을 갖고 방북했으며, 특히 정보기술(IT) 분야와 주물단조품 제작, 피복 주문생산 등에 관심을 보임.
- 이 대표단은 방북 기간 평양에서 열린 제5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를 돌아보고 북한의 ‘조선컴퓨터센터’, 은하피복회사 등 조선상업회의소 회원사들과 실무면담을 가졌으며, 현재 북한의 피복 회사들과 기계무역 회사들은 네덜란드 기업들과 합의에 따른 주문생산을 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언
- 네덜란드 대표단은 귀국 후 북한의 대외경제 환경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 보고서는 네덜란드 뿐 아니라 유럽연합(EU) 기업들에 배포될 예정이다.

● 프랑스 NGO, 北에 토끼 200마리 전달(11/10, 자유아시아방송)

- 프랑스의 비정부기구(NGO)인 ‘프리미에 위장스’가 오는 주말께 중국산 토끼 200마리를 북한의 7개 협동농장에 보낼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전언, 토끼가 전해지는 농장은 평양의 룡성, 황해북도의 연탄, 삼훈, 미곡, 평안북도의 청중, 광산, 소주 등 7곳임.
- 단체 측은 “당초 지난 9월까지 북한에 중국산 토끼를 들여보낼 예정이었지

만 중국과 북한 간 ‘외교적인 문제’로 일정이 지연됐다”고 말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음.

- 단체 측은 “내년 말까지 북한에 토끼의 번식능력을 높일 수 있는 선진 사육 기술을 전수하고 관련 장비를 제공해 북한의 토끼 생산능력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사업이 본격화하면 북한의 토끼 사육사를 연수차 중국에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 이 단체는 이미 네덜란드인 1명, 프랑스인 1명 등 3명의 직원을 평양에 파견했으며 북한 현지 주민 7명을 기술직, 사무직 등에 채용한 상태라고 밝힘.
- 프리미에 위장스는 토끼 지원 사업 외에도 북한 평안남도 평성, 남포와 황해북도 토산군 등 3개 지역에서 병원 재건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RFA는 전언

라. 군사 관련

● 北, 서해 NLL 안통해... 무자비한 군사조치 취할 것(11/14, 조선일보)

-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김영철 중장)은 13일 우리측 단장(류제승 소장)에게 통지문을 보내 “조선 서해에는 오직 우리(북)가 설정한 해상 군사분계선만 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지금 이 시각부터 그것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
- 북측은 또 “남측의 북방한계선(NLL) 고수 입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분별을 가려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해상 군사분계선은 현재의 NLL보다 훨씬 남쪽으로 내려와 있음. 북측 단장은 이날 “위임에 따라 우리(북한) 군대의 원칙적 입장을 통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측은 이번 교전에 대해 “(남측이) ‘경고 사격’이 아닌 조준 사격과 ‘파괴 사격’으로 선(先)불질을 한 것은 노골적인 군사 도발행위”라고 주장

● 北, 北해상분계선 고수 군사조치 취할 것(11/13,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민주조선)

-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은 13일 남측 단장에게 통지문을 보내 최근 서해교전과 관련, 서해에는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

- 만이 있다”며 “지금 이 시각부터 그것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
- 북측 단장은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통지문에서 ‘위임에’ 따라 “사태의 엄중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우리 군대의 원칙적 입장을 통지한다”며 이러한 제3항을 포함해 4개 항의 입장을 밝혔음.
 - 북측은 제2항에서 “남측의 북방한계선 고수 입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시대의 요구와 민족의 지향에 맞게 분별을 가려 처신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
 - 제1항에선 “남측은 이번 사건을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긴 데 대하여 민족 앞에 사죄하고 그 주모자들을 동족대결의 광신자, 평화의 파괴자로 즉시 매장해버리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고 제4항에서 “남측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파괴하고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 북측 단장은 남측에 이러한 입장을 통지문을 보낸 배경에 대해 “서해무장도발 사건을 두고 남측이 흑백을 전도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번 통지문이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말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나 승인에 따른 것임을 시사
 - 통지문은 “시대가 달라진 지금도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고수하려고 부질없는 군사적 모험에 매달리는 것은 파렴치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우리 함선의 자위권 행사를 ‘월선’으로 매도하고 불명목표 확인에 나선 우리 함선과 군인들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경고사격’이 아닌 직접 조준사격과 ‘파괴사격’으로 선불질을 한 것은…변명할 수 없는 의도적이며 노골적인 군사적 도발행위”라고 비난
 - 이어 통지문은 “여러척의 함정을 일시에 동원하여 수천발의 총포탄을 쏘아대며 부린 난동은 완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조선반도 정세의 흐름을 제3의 서해교전으로 가로 막아보려는 남측 우익 보수세력들과 군부 호전집단의 계획적인 모략행위”라고 거듭 기존 주장을 되풀이함.

● 北경비정 올해 23회 NLL 침범, 작년比 3배 ↑ (11/11, 연합)

- 올해 들어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횟수가 23회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음. 군 관계자는 11일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한 것은 모두 23회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며 “같은 기간 북한 선박(어선)은 25회 NLL을 넘었다”고 밝힘.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경비정이 7회, 선박이 11회 NLL을 침범한 것과 비교하면 이미 각각 3배와 2.6배가 많아진 것임.

● 北, NLL만 차지하면 인민생활이 12% 높아진다(11/11, 데일리NK)

- 10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던 북한이 최근 북방한계선(NLL) 주변 군부대들에 “북방한계선 문제가 강성대국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데일리엔케이는 11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황해남도 해안포부대에서 “북방한계선(NLL) 문제는 ‘강성대국 건설의 열쇠’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면서 “북방한계선만 차지하면 인민생활이 12% 높아진다”는 사상 강연이 이뤄졌다고 보도
- 이 매체는 또 “군관(장교)들이 병사들을 상대로 ‘북방한계선에 거대한 원유 줄기가 있기 때문에 북방한계선을 무조건 차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NLL을 차지하면 (유전을 개발해) 인민생활을 지금보다 12% 이상 높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회주의 강성대국은 저절로 건설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소개
- 이러한 북한 군부의 선전은 북한 내부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이 매체와 인터뷰한 소식통은 “이러한 소문이 군인들을 통해 사민(주민)들 속까지 전해지면서 북방한계선을 무조건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군인들도 북방한계선을 무조건 찾아야 한다는 각오가 어느 때보다 높다”고 전언

● 北, 서해교전에 사죄·책임조치 요구(11/10, 연합)

-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10일 발생한 서해교전과 관련, “남조선 군당국은 이번 무장도발 사건에 대해 우리측에 사죄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도발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에서 “남한 해군이 우리측 수역에서 엄중한 무장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이같이 주장
- 보도는 북한 해군 경비정이 자신들의 영해에 침입한 불명목표를 확인하기 위해 긴급기동했다가 오전 11시 20분께 목표를 확인하고 귀대하고 있을 때

남한 해군함들이 북한 해군 경비정을 뒤따르며 발포하는 등 엄중한 도발행위를 했다고 주장

- 이어 보도는 북한 해군 경비정이 즉시 ‘불의의 대응타격’을 가했으며 “급해맞은 남조선군 함선집단은 황급히 자기측 수역으로 달아났다”고 말해 교전 시작부터 끝까지 주요 대목마다 남한 합참의 설명과 정반대의 주장을 폈음.

마. 사회·문화 관련

● 평양시민들, 영어·중국어 ‘열공’(11월호, 조국)

- 월간 조국 11월호는 ‘의식변화에 따라서는 외국어 강습’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에서 최근 북한 평양에서 외국어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높아지면서 외국어 강습생이 부쩍 늘었으며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는 영어와 중국어라고 보도
- 지난 1982년 외국어 강습을 시작한 인민대학습당은 초기엔 “수요가 높은 몇 개 어종에 한하여 과학자,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주간반과 야간반으로 나눠 교육했고 강습생 수도 “불과 30~40명 정도”였음. 그러나 최근 “외국어 배우려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중전에 한 개 학급 정도에 불과하던 강습생 수가 몇 배로 늘어나고 중어나 영어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고 잡지는 전언
- 현재 인민대학습당은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독일어, 일본어 등을 강습하고 있는데 가장 인기가 높은 외국어는 영어와 중국어이고 그 다음 러시아어, 독일어, 일본어 순이라고 잡지는 설명

● 北잡지, 해커 범죄 예방 필요성 강조(2009년 3호, 정치법률연구)

- ‘정치법률연구’ 2009년 3호는 해커(hacker) 문제를 자세히 다루면서 “해커에 의한 위법행위들과 범죄를 미리 막아야 한다”고 강조해 북한 사회에서도 컴퓨터가 급속 보급되는 것을 방증. 이 학술지는 ‘해커의 개념에 대한 법률적 견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해커의 본래 뜻은 ‘대단히 멋진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수법이 교묘하고 기술이 높으며 그에 의거하여 못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소개

- 학술지는 해커에 대한 개념 규정에서 다른 컴퓨터에 침입해 정보를 열람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해커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인 크래커를 구분

● 北, 바이러스성 질병 진단·예방약 개발 주장(11/11, 조선중앙방송)

- 북한 의학과학원 의학생물학연구소가 최근 “비루스(바이러스)성 질병 예방에 쓰이는 새로운 진단 시약”을 개발해 “전국적인 수요를 보장할 수 있는 진단시약을 생산하게 됐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1일 보도
- “연구소는 또 이미 개발한 어느 한 예방약의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방송은 전하고, 세계적으로 미완성 문제로 남아있는 같은 질병의 예방에 쓰는 또 다른 새로운 예방약의 개발과 나노기술을 이용한 같은 질병의 종합진단시약 개발을 목표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임. 방송은 그러나 이 진단시약과 예방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음.

● 北, '80년만의 대흉년' 흉흉(11/11, 연합뉴스; 오늘의 북한소식)

- 북한에서 올해가 '80년만의 대흉년'이라는 말이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사장 법륜 스님)이 '오늘의 북한소식'에서 주장
- 소식지는 “함경북도 주민들이 한숨을 쉬며 하는 '80년만의 대흉년'이라는 말을 이제는 평안남도 양덕에서도 들을 수 있다”며 “이 지역도 올해 가뭄 피해가 심해 알곡 수확량이 저조하다”고 전언, 소식지는 “식량이 없어 주민들은 '150일 전투' 기간 내내 죽을 먹으며 버텼다”며 “곧이어 '100일 전투'가 시작되자, 다들 산에 올라 도토리를 줍거나 약초를 캐며 연명하다 보니 전투 열의가 사라져 일에 의욕을 보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설명
- 양덕 술로 유명한 양덕은 이전에 산림조성이 잘 된 고장으로도 유명했으나 군부대의 남벌로 지난 2006년, 2007년 수해가 극심했으며 올해는 집중폭우에 가뭄 피해가 겹쳤다는 것, 소식지는 또 “함경남도 정평군 정평읍에는 초가을부터 죽을 먹는 세대가 많이 보인다”며 “약 3분의 1정도가 지난 8월부터 죽을 먹었고, 가을이 되자 (추곡이 나온 때인데도 죽을 먹는 세대) 줄어들든 게 아니라 더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라고 전언

- 이는 흉작이 예상되는 데다, 장사 통제가 심해 돈 벌 방법이 없다보니, 보유한 식량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좀 잘 먹는다는 집”에서도 두끼 중 한끼는 죽으로 때우고 있다고 소식지는 덧붙임.

● 北, 문화유적 보존관리 강조(11/5,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11월 ‘문화유적 애호월간’을 맞아 역사 유적과 유물의 철저한 보존, 관리를 강조, 신문은 5일 “여름철과 가을철에 여러 가지의 자연적 요인에 의해 피해를 받았거나 손상이 간 역사 유적과 유물들에 대한 보수 사업”을 벌일 것을 주문하면서 “겨울철에 문화유적 유물들이 계절적 영향을 받아 피해를 입지 않게 필요한 보존관리 대책도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고 주문
- 신문은 각 도, 시, 군 인민위원회에 대해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역사 유적과 유물들의 보존관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조사장악하고 모든 역사 유적들을 원상대로 보존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

2 대외정세

가. 유엔안보리 관련

● 北 유엔 제재 후에도 핵물자 위장 수출(11/14, 요미우리신문)

- 북한이 지난 6월의 유엔안보리 제재결의 이후에도 핵과 미사일 관련 물자를 위장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유엔의 전문가그룹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고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뉴욕발로 14일 보도
- 요미우리신문이 입수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그룹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지난 6월 이후에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 관련 물자의 위장 수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문가그룹의 중간보고서는 유엔의 제재대상인 북한 내 8개 단체와 개인 5명을 대신한 다른 단체와 인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수출입 화물에 대한 위장 공작으로 유엔의 제재를 피하고 있다고 밝힘.

- 구체적으로는 탄도미사일 관련 물자의 수출에 관여하고 있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자회사를 통해 관련 업무를 계속하고 있으며, 제재대상인 단천상업은행과 조선혁신무역회사를 대신한 북한 관련 은행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또 북한의 수출입 무기 관련 물자의 위장공작 수법으로 화물 목록의 위조, 허위 라벨의 사용, 유명 해운회사의 이용, 여러 차례에 걸친 화물의 교체선적 등도 지적
- 중간보고서는 유엔의 제재 효과와 관련, 유엔안보리가 지난 6월 12일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북한의 무역 적자는 10억 달러를 대폭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 지난 2006년 10월의 북한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718호)이 채택됐을 때도 북한의 무역적자는 연간 10억 달러로 증가했던 것으로 중간보고서는 추정

나. 북·미 관계

● 오바마, 한국·일본 핵 우산 보장(11/14, 연합)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의 안보를 보장하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핵 억지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힘. 또 북한에 대해서는 핵 개발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핵을 포기할 경우 새로운 미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
-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수십 년간 대립과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결코 북한의 핵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그는 “북한이 국제적 의무(핵개발 포기)를 다하지 않을 경우 안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질 것”이라고 경고
- 그는 이어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할 경우) 미국은 북한에 지금과는 다른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확실한 길은 6자회담에 복귀해 핵 확산방지조약(NPT) 가입 등의 약속을 지켜 한반도에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힘.
-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안보를 보장하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핵 억지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핵 우산 보장을 역설

● 보즈워스 방북 12월 중순 유력(11/13, 연합뉴스)

- 미국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시기를 잠정적으로 12월 중순께로 정하고 북미 간에 구체적 시기와 관련한 물밑 교섭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미 정부 소식통은 12일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이 12월 중순께 이뤄지는 쪽으로 갈 것 같다”고 전언, 이 소식통은 “추수감사절 이전 방북은 어렵다”면서 “이번달 말까지는 이뤄질 것 같지 않다. 아마도 12월은 돼야 할 것 같다”고 언급
- 그는 구체적으로 “추수감사절 이후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사이가 될 것”이라면서 “연내에는 이뤄질 것”이라고 전언, 12월 중순에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14일부터 시작되는 셋째 주나, 이에 앞서 1월 7일부터의 둘째 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됨.
-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0일 밝힌 바와 같이 보즈워스 대표와 소규모 범정부팀이 평양에 갈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북측에 전했다”면서 “발표할 것은 없다”고 언급

● ‘北, 긴장고조 추가행동 말라’ 백악관 대변인 성명(11/12, 조선일보)

- 미 백악관의 로버트 기브스(Gibbs) 대변인은 10일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 측 함정에 선제사격을 가한 것과 관련, “북한이 서해에서 긴장 고조로 간주될 수 있는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 말기 바란다”고 언급, 기브스 대변인은 이날 총기 난사 희생자들의 추도식이 열린 텍사스주 포트 후드로 향하는 버락 오바마(Obama) 대통령의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서 언급
- 기브스 대변인은 북한이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을 통해 알아보라는 입장을 밝힘. 미 국무부의 필립 크롤리(Crowley) 공보담당 차관보는 10일 이번 전투에 대한 입장을 질문 받고,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며, 한국 정부에 맡길 문제”라는 말 외에 특별한 논평을 하지 않음.
- 이와 관련, 클린턴 장관은 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차 방문한 싱가포르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사태는 어떤 식으로든 보즈워스 특사 파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우리는 그것(방북)이 그 자체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순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 그는

“우리는 상황이 고조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나온 침착한 대응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언급

다. 북·중 관계

● 中, 北영사 사망 확인, 사인 분석 중(11/13, 연합)

- 중국 당국이 10월 실종된 북한 선양 영사관 영사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인을 규명 중인 것으로 알려짐. 13일 중국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 영사관의 김모 영사가 10월 30일께 선양의 훈허(渾河) 변에서 숨진 채 발견됨. 발견 당시 특별한 외상은 없었으며 중국 당국은 음독에 의한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임.
- 10월 초 은행에 다녀오겠다며 영사관을 나간 김 영사는 이후 연락이 끊긴 채 행방불명됐음. 40대 중반으로 경제 분야를 담당해온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자살설과 타살설이 엇갈리고 있음. 뚜렷한 외상이 없는 점으로 미뤄 자살 가능성이 제기 있지만 평소 성실하게 근무했고 착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만큼 자살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독살됐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음.

● 中, 대북 무역통계 공개 않기로(11/10, 연합)

- 중국이 북한과의 무역 통계를 더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변경한 것으로 10일 알려짐. 중국의 세관인 해관총서는 ‘해관통계’란 잡지를 통해 발표해 오던 북한과의 항목별 무역 통계를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 연속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음. 해관통계는 그동안 북한과의 교역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공개해 왔지만 8월부터는 총액을 제외한 구체적인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음.

라. 기타 외교 관계

● 佛대북특사, 北, 인권교류 제안 수용(11/14, 연합)

-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대북특사인 자크 랑 하원의원이 13일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해 교류하자는 프랑스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언급

- 랑 의원은 13일 오후 평양발 중국 국제항공(CA122)편을 타고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에 도착한 뒤 프랑스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고위 지도자들이 특별한 제스처를 취했다”면서 “프랑스와 인권 문제를 교류하지는 우리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설명, 랑 의원은 5일간의 방북 기간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의춘 외무상 등 북한 관리들과 총 10여 시간 가량 다양한 이슈에 대해 “자유로우면서도 솔직하고 꾸밈 없는 대화를 나눴다”고 답변
- 그는 “이번 대화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등 몇 가지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진전을 이끌어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그는 협력 방안 외에도 상당히 민감한 이슈를 포함해 모든 주제가 논의됐다고 설명
-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느냐는 질문에는 “김 위원장이 평양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실망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면서 “만날 수 있다면 언제라도 북한에 다시 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

3 대남정세

● 대북 ‘쌀 40만 톤·비료 30만 톤’ 내년예산 반영(11/13, 연합뉴스)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 쌀·비료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2011년도 예산안에도 올해와 같이 쌀 40만 톤과 비료 30만 톤 지원금액을 반영, 통일부가 1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당국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남북협력기금 약 6천 160억 원이 배정됐음.
- 이 액수는 쌀 40만 톤과 비료 30만 톤 지원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국제 식량 가격 하락 때문에 올해의 같은 분야 예산 7천 181억여 원에 비해 액수 자체는 14.2% 감소, 정부는 또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과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에 각각 올해와 같은 180억 원과 250억 원을 쓰기로 했으며 북한 영유아 지원·보건의료협력·산림녹화·농수산물 수송 등 ‘기타 인도적 지원’ 항목에 올해 401억 원보다 약 22.9% 늘어난 493억 원을 배정했음.
- 또한 남북경협 지원(무상)에 올해의 1천 237억 원보다 17.1% 늘어난 1천

447억여 원을 사용하기로 했음. 아울러 정부는 남북 간 사회문화교류 사업에 올해보다 1억 원 증액된 88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산가족 교류 지원에 역시 올해와 동일한 71억 원을 쓰기로 했음. 이에 따라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 중 순수 사업비는 올해보다 약 2억 원 증액된 1조 1천 184억여 원으로 책정됐음.

● 국제옥수수재단, 北에 온실만들기 지원(11/11, 연합뉴스)

- 국제옥수수재단(이사장 김순권)은 북한에 온실 건설을 지원하고 국내 및 북한, 네팔 등의 아동에게 방한용품을 지원하는 '희망 프로젝트, 2009 지구촌 빈곤아동돕기 캠페인'을 벌임. 11일 재단에 따르면, 15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캠페인에서는 모금액으로 북한의 농촌 지역에 3.3㎡(1평)의 온실을 지어줘 겨울에도 옥수수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계획, 또 국내 및 북한, 네팔 아동들이 추위에 견딜 수 있도록 내복, 전기담요, 장갑 등 방한용품도 지원할 예정임.

11.16-11.22

11월
3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및 유엔안보리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러 관계
- 마. 북·일 관계
-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인민보안성 본부 시찰(11/22,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보안성(우리의 경찰청) 본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22일 보도
 - 김 위원장은 기술연구실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근무상황을 살펴본 후 “인민보안성의 모든 지휘성원(간부급)과 인민보안원들이 계급투쟁의 제1선부대, 당의 내무군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맡겨진 전투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북한방송들은 보도
 - 시찰에는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장성택 국방위원회 위원 겸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을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이 동행했으며, 현지에서 주상성 국방위원회 위원 겸 인민보안상, 리병삼 인민보안성 정치국장 등이 그를 맞이함.
- 김정일, 군부대 산하 목장 현지지도(11/2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제580부대 산하 ‘7월18일소목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을 북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것은 11월 8일 제1224부대 시찰 이후 12일 만임.
 - 김 위원장은 목장 축사와 풀절임장 등을 둘러보고 “고기생산을 급격히 늘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담보는 목장의 모든 생산공정들을 공업화, 과학화하는 것이며 여기에 선차적인(우선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
 - 통신은 이 목장이 2만여㎡의 광활한 부지에 건설됐고 “다량의 쇠고기를 생산하는 대규모 축산기지”라고 소개
 - 현지지도에는 현철해. 리명수 군 대장,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박남기 당 부장 등이 동행

● '김정일의 여인' 김옥, 노동당 간부와 결혼?(11/19, 중앙일보)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네 번째 여자로서 알려져 왔던 김옥(45)이 최근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첩보를 우리 정보 당국이 입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중앙일보가 19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서울의 한 정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기술 서기(비서)로 일해 오던 김옥이 최근 노동당 간부와 결혼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분석 중”이라며 “현재 그가 서기실(비서실) 업무에서 손을 떼고 물러난 것으로 안다”고 전언, 북한은 중앙당에서 일하는 여성이 결혼할 경우 직장을 옮기도록 하고 있는데 업무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임.
- 평양 음악무용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김옥은 1980년대 후반부터 김 위원장을 곁에서 보좌해온 것으로 파악돼 왔음. 이에 따라 김옥은 성혜림(사망)·김영숙·고영희(사망)에 이은 김정일의 네 번째 여자로서 인식돼 왔음. 그는 사실상의 퍼스트 레이디였던 고영희가 2004년 사망한 이후에는 부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추정돼 왔음.
- 그러나 올 4월의 최고인민회의 직후 김옥의 활동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우리 당국은 파악, 정부 당국자는 “그의 활동이 줄어드는 대신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 노동당 부장의 활동이 대폭 늘어난 배경을 주목하고 있다”며 “김옥의 결혼 첩보와 김경희의 재등장이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언
- 그동안 공개 활동이 거의 없었던 김경희는 6월 초 김 위원장과 함께 협동농장을 방문해 15년 만에 공개 촬영을 한 것을 시작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으며 이후 그는 김 위원장을 열두 차례 수행

나. 정치 관련

● 노동신문, 현인택 장관 실명 거론 비난(11/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 대결소동' 제목의 글에서 남한의 보수 세력이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직접 겨냥해 비난
- 신문은 “최근 북남관계의 비정상적인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악화된 북남관계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며 “남조선의 반통일 보수 세력들은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 신문은 현인택 장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남조선 통일부의 반공화국 대결책동은 온 민족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핵문제를 구실로 북남대화와 협력을 악랄하게 반대해 나서고, 그 무슨 3대조건이니 뭐니 하면서 금강산 관광의 재개에 계속 차단봉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

● 北외무성, 유엔 대북인권결의 전면 배격(11/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대북 인권결의안에 대해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고 강조
- 외무성 대변인은 20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을 통해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적대세력들이 해마다 벌이고 있는 판에 박힌 정치적 모략책동”이라며 “인권옹호의 미명하에 내정간섭을 일삼으면서 우리 인민 자신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감히 어찌보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조작해낸 ‘결의’를 우리는 언제나와 같이 단호히 전면배격한다”고 밝힘.

● 역도산 패밀리 북한서 ‘중용’(11/20, 마이니치신문)

- 일본에서 프로 레슬링의 대부로 인정받는 역도산(본명 김신락)의 사위와 사위의 여동생들이 북한의 유력 포스트에 진출했다고 일본 마이니치(毎日)신문이 20일 보도
- 이들은 모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조선노동당 행정부장과 가까운 인물로, 장 부장이 복권하면서 재차 부상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언, 신문은 이어 북한이 지난 9월 역도산의 제자인 안토니오 이노키(66)에게 평양 사무소 개설을 허가한 것도 이런 점들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신문에 따르면 북한에서 중용된 인물은 역도산의 사위 박명철(68)과 그의 여동생 2명임. 박명철은 올 초를 전후해 국방위원회 참사에 발탁됐으며, 박씨의 여동생인 박명선(67세로 추정)은 지난 9월 부총리에 등용됨. 또 그 아래 여동생(이름 불상)은 장씨의 부인이자 김정일 위원장의 동생인 김경희가 부장으로 있는 노동당 경공업부 부부장을 맡고 있음.

- 박명철과 명선은 장성택 부장과 가까운 사이로, 그가 2004년 실각한 뒤 공직을 박탈당했던 것으로 알려짐. 박명철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당시 선수단을 이끌었던 거물로, 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체육부 장관 격인 조선체육지도위원장을 맡았었음. 박명선은 1990년대부터 내각대외봉사국장 등을 맡아 왔으나 이들 모두 자리를 빼앗겼던 것으로 알려졌음.
- 한편, 역도산의 사돈이자 이들 3형제의 부친인 박정호는 고(故) 김일성 주석과 가까운 사이로 대남 공작 부분에 많은 공을 세웠던 인물로 알려짐.

● 노동신문, 범민련은 통일애국운동 조직 선전(11/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0일 '민족 대단결 위업을 힘있게 추동해온 범민련'이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설에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결성 19주년을 맞아 "범민련은 결성 후 지난 19년 동안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고 조국통일운동을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길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했다"고 주장
- 신문은 범민련이 "해내·외의 각계 통일운동 단체들과 광범한 동포들을 하나로 묶어 세워 자주통일 위업 실현으로 고무 추동하는 범민족적인 통일애국운동 조직"이라고 설명

● 평양방송, 南통일부 관계개선 결단 내려야(11/18,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18일 '겨레의 지향을 따라야 한다'는 제목의 보도에서 남한의 통일부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대결 정책을 당장 걷어치우고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결단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주장
- 방송은 "지금 북남 사이 협력과 교류를 반대해 나서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남조선(남한) 통일부"라고 언급, 방송은 또 "통일이라는 간판을 내건 이 기구가 지금 하는 짓이란 반통일 돌격대가 되어 남조선 사회에 동족을 반대하는 극도의 적대감과 대결의식을 조장하고 북남 교류와 협력 사업에 제동을 거는 것 뿐"이라고 비난

● 노동신문, 남북관계 개선 위해 노력할 것(11/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북남관계 개선은 민족문제 해결의 급선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앞으로도 우리는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대화 상대방을 불신하면서 대결을 고취하고 지어(심지어) 군사적 도발행위까지 감행하는 상태에서는 북남관계가 정상화될 수 없다”고 ‘대청해전’을 간접적으로 거론한 뒤 “서로 적대시하고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는 속에서는 북남 사이에 전쟁 밖에 일어날 것이 없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북남관계가 개선되는가 아니면 계속 악화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며 “좁은 안목과 구시대적인 관념에 사로잡혀 대결을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다”고 주장
- 신문은 이어 “북남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이고 민족문제 해결의 급선무”라며 “그것은 6.15통일시대의 요구와 민족공동의 이익으로 보나, 조성된 정세의 요구로 보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

● 서해교전, 북미관계 제동 南도발(11/16, 조선신보; 평양방송)

-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일어난 ‘대청해전’과 관련, “남조선(남한) 당국이 조미(북미) 대화가 일정에 오른 때 이번 사건을 일으킨 데 대해 엄중시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16일 주장
- 신문은 ‘남조선군의 서해 무장도발사건, 정상근무 수행 중의 경비정에 파괴사격’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측은 남조선 군당국이 과거에 두 차례 교전 사건이 일어난 서해 해상에서 다시 무장도발 사건을 일으킨 목적이 북남 관계와 조미 관계의 개선에 제동을 걸어보자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
- 한편 평양방송도 이날 ‘고의적인 도발, 위험한 전쟁책동’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이번 서해상에서의 무장도발 사건에는 북남 사이의 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를 바라지 않는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의 불순한 기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

● 평양방송, 대화·협상 전도는 남측에 달려(11/16,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16일 ‘대화와 협상을 위한 시종일관한 입장’이란 제목의 논설에서 “(남북 간의) 대화와 협상의 전도는 남측에 달려 있다”고 주장
- 방송은 “평화적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하자면 북과 남이 대화하고 협상해야

한다”며 “대화와 협상을 떠나서는 북남 사이에 오해와 불신을 해소할 수 없고 관계를 개선할 수도 없다”고 주장

- 평양방송은 1970년대 적십자회담 및 고위급 회담과 '7.4 공동성명'을 거론하면서 “이 역사적 사변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국을 통일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원칙적 입장과 노력이 낳은 열매”라고 강조, 방송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등) 북남 공동선언들을 충실히 이행하면 북남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갈 수 있다”며 “북남 공동선언들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옳은 입장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

다. 경제 관련

● 伊IT업체, 北과 프로그램 공동개발(11/21, 자유아시아방송)

- 이탈리아의 정보기술(IT)업체들이 북한과 프로그램 공동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보도
- 이탈리아의 정보기술 업체인 '엘레롬'사의 리오네티 대변인은 RFA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신지(Sinji)'사와 공동으로 개발해 출시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이탈리아와 아르헨티나 등 전 세계 곳곳에 유통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를 상품화할 계획”이라고 설명, 그는 “북한이 원격 강의, 온라인 교육의 확대를 위한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북한은 높은 수준의 관련 기술을 갖고 있고 우리 회사와 꾸준히 접촉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
- 북한은 이미 지난 10월 '엘레롬'과 함께 컴퓨터에서 강의 내용과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출시했으며,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컴퓨터에 접속, 교수의 강의를 직접 시청하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했음.
- RFA는 “이탈리아의 또 다른 정보기술업체인 '쿠오타제로'도 북한의 조선 컴퓨터센터(KCC)와 기술 개발에 협력하고 있다”며 “2010년부터 북한 기술을 포함한 100여 명의 전문가로 팀을 구성해 북한과 함께 개발한 프로그램을 해외시장에 수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소개

● 김책제철, 생산공정 현대화 한창(11/20, 조선신보)

- 북한 최대 제철소인 함경북도 청진시의 김책제철연합기업소가 “생산공정의 개진(개선) 현대화와 선철 증산으로 들끓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0일 소개, 우선 이 기업소는 “100일 전투 기간 국내(북) 연료를 이용한 선철 생산에 성공했다”고 신문은 전언
- 신문에 따르면 기업소는 종전에 수입 코크스(탄소 고체연료)를 연료로 선철을 생산해 왔음. 그러나 세계적으로 코크스 매장량이 크게 줄면서 가격이 폭등하자 수년간의 연구 끝에 무연탄과 갈탄을 연료로 선철을 생산하는 데 최근 성공한 것임.
- 정영춘(47) 1부기사는 “시험운전에서 나타났던 일부 기술적 부족점을 퇴치해 11월 말경부터 연간 수만 톤급 용광로를 돌려 생산을 정상화하게 된다”고 소개, 그는 “연간 수십만 톤의 대규모 용광로를 2012년까지 설치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전언

● 北, 핵 자금조달 위해 무기밀매(11/19, 연합)

- 북한이 핵 프로그램 유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무기밀매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주장이 유엔안보리장이사회 전문가그룹의 대북 제재 관련 보고서에서 나옴. 또 북한이 자국의 핵 및 미사일 관련 활동과 무기밀매, 금수 품목인 사치품의 수입 등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온 것으로 나타났음.
- 19일 유엔안보리에서 논의될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무기 및 군사장비의 확보와 거래, 판매를 위해 매우 조직적인 국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보고서는 유엔이 금지한 무기밀매가 “북한의 외화 획득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
- 유엔은 지난 2006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확장시키는데 필요한 자금줄을 끊기 위해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 보고서는 또 “북한이 유엔이 금지하고 있는 무역, 거래 및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몇 가지 징후들이 포착됐다”며 북한이 “안보리의 제재를 피해 가기 위해 이러한 거래들을 가리려하고 있다”고 지적
-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6명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를 위해 송장을 허위 기재하거나 화물을 허위 표시하고 여러 명의 중개인을 거치도록 하며 발송인

과 수취인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유명회사를 이용하는 등의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그룹은 제재대상 목록에 추가할 북한 기업과 인물 및 금수품목 선정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라면서 최종 보고서는 2010년 5월께 제출하겠다고 밝힘.

● **오라스콤 회장, 北 이동통신가입자 증가 추세(11/18, 연합뉴스)**

- 북한의 이동통신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한 이집트의 나기브 사위리스 오라스콤 텔레콤 회장이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투자 전망이 밝다고 밝힘.
- 사위리스 회장은 17일(현지시각) 카이로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를 8만여 명으로 추산하며 가입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설명, 오라스콤은 북한의 지난 9월 말 기준 휴대전화 가입자가 7만여 명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그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가끔 기적을 바란다"며 "25년 전에 언젠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통일된다고 말했다면 사람들은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남북한이 언젠가 통일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 사위리스 회장은 지난해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50대 부자 리스트에 오른 이집트의 거부로, 오라스콤 텔레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 선진국에서 이동통신 사업을 벌이고 있음.

● **美봉사단체, 北에 집짓기 지원(11/18,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봉사단체인 풀러센터가 평양 순안 구역 오산리 지역 농민들을 위해 집짓기 공사를 시작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
- 이 센터의 데이비드 스넬 대표는 RFA와 인터뷰에서 "지난 11일 첫 번째 공사 지역인 순안 구역 오산리에서 북한 정부 대표와 함께 농촌 살림집 50가구 착공식을 가졌다"며 "내년 3월에는 본격적으로 집을 지을 자원봉사자를 북한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힘.
- 가난한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활동을 해 온 풀러센터는 착공에 앞서 1년 반 동안 북측과 협상을 벌였으며, 오산리는 2006년 7월 태풍 에위니아로 가옥 3만 채가 무너진 곳으로 알려짐.

- 스벨 대표는 “오산리 주택의 기본 설계는 백두산건축연구원이 맡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연료 효율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식으로 건설된다”며 “앞으로 북한의 200여 지역으로 집짓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시범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 또 새로 건설되는 주택은 최소한의 연료로도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태양열이나 풍력발전기 등 대체에너지를 사용할 것으로 전해짐.

● **北선원, 28명 승선한 선박 해적에 피랍(11/17, 연합)**

- 북한 선원 28명이 승선한 버진 아일랜드 선적의 화학물질 운반선이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에 납치됐다고 소말리아에 파견된 유럽연합(EU) 함대가 17일 밝힘. EU 함대에 따르면 버진 아일랜드 선적의 화학물질 운반선 ‘테레사 8호’가 16일 소말리아 근해 인도양 상의 세이셸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320km 떨어진 해상에서 해적에 납치되었음.
- 이 선박에는 약 2만 2천300톤의 화학물질이 선적돼 있으며 북한인 선원 28명이 승선한 상태라고 EU 함대는 설명

라. 군사 관련

● **美 핵과학자회보, 북한 등 9개국 핵무기 보유(11/20, 자유아시아방송)**

- 현재 전 세계에서 북한을 포함한 9개국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미국의 핵과학 전문지 ‘핵과학자회보’ 11·12월호가 밝힌 것으로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
- RFA 보도에 따르면 핵과학자회보 11·12월호는 ‘2009 세계 핵무기 배치 현황’ 보고서에서 “올해 말 현재 핵보유국은 북한을 포함해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9개국이며 전체 핵무기 규모는 2만 3천360기에 이른다”고 설명
- 이들 9개국 가운데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다섯 나라는 핵무기 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한 공식 핵보유국이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3개국은 NPT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알려져 있음.
- 이 보고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분류하면서도 ‘신뢰할 만한 정보가 없다’면서 구체적인 핵보유 규모와 저장 장소는 밝히지 않음. 보고서는 그러

나 미 공군의 최신 정보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은 아직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

- 지난 4월에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국제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음.
- 핵과학자회보 보고서는 또 이들 9개 핵보유국 외에도 미국이 핵무기를 배치해 놓은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터키 등 14개국, 111곳에 핵무기가 있으며 “이 가운데 약 절반 정도가 실전 배치 중이거나 실제 운용 중”이라고 주장

● 北, DMZ에 비축용 병커 800개 구축(11/16,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4~2007년 비무장지대(DMZ)에 작전 물자를 저장하는 병커 800여 개를 구축했다는 주장이 나왔음.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6일 북한군에서 상좌(대령급) 계급으로 있다가 2000년대 탈북해 한국군 정보기관에서 활동했던 김주성(가명)씨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 김씨는 “2007년까지 남침용 병커와 위장용 병커가 최소 800개 건설됐다”면서, “병커에는 1500명에서 2000명의 병력이 완전무장할 수 있는 작전 물자가 비축됐다”고 주장, 북측이 DMZ에 남침용 병커를 짓기 시작한 시기는 한국이 대북 유화정책을 펼치던 노무현 정부 집권 2년째인 2004년이라고 RFA는 보도
- 김씨는 또 “유사시 북한의 게릴라 부대원들이 32kg의 전투 배낭을 메고 완전 무장해 DMZ까지 올 경우 체력과 시간이 많이 소모돼, 병커를 짓고 남침용 작전 물자를 보관한 것”이라며, “발사관탄, 60mm 박격포탄, 압축폭약, 각종 탄알 외에도 한국군의 군복과 명찰을 준비해 한국군으로 위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 또한 그는 “병커 중 70%는 남측을 교란하기 위한 가짜”라면서, “병커는 반(半)지하 상태지만 남침용 땅굴과는 연결되지 않았다”고 소개

● 北 미사일·해안포 레이더 어제 오후 한때 가동징후 포착(11/15, 연합뉴스)

- 군 당국은 15일 북한 황해도 웅진반도 일대에 배치된 실크림 등 지대함(地對艦)미사일 및 해안포 부대에서 한때 사격통제 레이더를 가동한 징후를 포

착하고 함정을 대피시키는 등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군 소식통은 “오후 1시쯤 장산곶과 그 이남 해안 일대에 배치된 북한 지대함 미사일 및 해안포 부대의 사격통제 레이더가 가동되는 징후가 포착됐다”며 “대청도와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 미사일 및 해안포의 사정권에 있던 해군 초계함(1200t급)과 고속정들을 사정권 밖으로 이동시켰다”고 밝힘.

마. 사회·문화 관련

● 北, IMO 총회 참가(11/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영국에서 열리는 국제해사기구(IMO) 총회에 참가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보도, 통신은 “영국에서 진행되는 국제해사기구 총회 제26차 회의에 참가할 고능두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가해사감독국 대표단이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
- 북한은 1986년 IMO에 가입했으며 본부가 있는 영국 주재 대사관이 대표부 역할을 맡고 있음.

● 김정일, 여성 치마저고리 자랑할 만해(2009년 10월호, 조선여성)

- 조선여성 10월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여성들의 옷차림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게재, 이 잡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우선 여성의 치마저고리 착용을 권장
- 김 위원장은 “사람들의 옷차림과 몸단장은 그들의 사상정신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라며 “여성들이 치마저고리를 입으면 단정해 보인다. 우리 여성들이 입는 치마저고리는 세상에 자랑할 만하다”고 강조, 김 위원장은 또 “민족옷을 입는 문제를 가지고 근로단체 조직들에서 교양사업을 잘하고 가정들에서도 부모들이 자식들을 교양하여 사람들이 옷을 입어도 조선옷을 입고 자랑하며 떳떳하게 살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이 잡지는 소개
- 또 김위원장은 “여성들은 조선옷과 양복, 달린옷(원피스)과 나뉘옷(투피스), 바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옷을 계절과 몸매에 맞게 다양하게 입어야 한다”며 “여성들이 뜨개옷(편직물)과 코트, 화려한 색깔의 달린옷을 입으면 거리가 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잡지는 소개

● 노동신문, 머리는 단정하고 소박하게(11/15, 노동신문)

- 노동신문 15일 ‘머리단장을 우리 식으로’라는 기사에서 헤어스타일과 관련, 남성은 장발을 삼가고 여성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다니지 말 것을 주문
- 신문은 “사람들이 머리단장을 사회주의 생활양식과 시대적 미감에 맞게 단정하면서도 소박하게 하는 것은 북한 사회에 건전한 생활기풍을 확립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머리를 길게 기르고 다니거나 여성들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다니는 것은 혁명하는 시대 사람들의 정서적 풍모와 시대적 미감, 민족적 감정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
- 신문은 이어 “짧은 머리는 남자들의 머리단장에서 기본”이라며 “남자들이 머리를 짧게 깎고 다니면 고상하고 단정하고 패기와 정열이 넘쳐 보이며 혁명하고 투쟁하는 시대에 사는 인민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다”고 ‘짧은 머리’를 적극 권장, 여성의 경우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들에게는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머리 형태”인 단발머리나 땡은 머리를, 신혼 초의 주부나 중년여성에게는 파마나 묶음 머리를, 노인에게는 쪽진 머리를 권고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및 유엔안보리 관련

● 유엔, 북한 인권 결의 채택(11/20, 연합)

-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19일(현지시간)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채택, 이 결의안은 표결에 참여한 회원국 가운데 찬성 96, 반대 19, 기권 65표로 가결됐음.
-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주도한 이번 대북 인권결의안에는 5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나섰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이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음.
- 이번 북한 인권 결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적인 중단 촉구, 탈북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가혹한 처벌에 대한 우려 표명, 탈북자 강제 송환을 금지하는 원칙 존중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특히 이번 결의에는 아동에 대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침해에 대해 지속적인 보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고, 최근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환영하면서 탈북 난민과 관련해 난민협약과 선택의정서 당사국들에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갔음.

- 이날 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 결의는 다음 달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임. 유엔은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대북 인권결의를 채택해왔으며, 이날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결의가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면 5년 연속 인권결의를 채택하는 셈이 됨.
-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박덕훈 차석대사는 이날 표결 전 발언을 통해 “이번 결의안은 북한 체제와 사상을 강제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로, 단호히 거부한다(categorically reject)”며 “일본과 EU가 인권문제를 정치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거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 박 차석대사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에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는 인권탄압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정치화된 것이며, 압력과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이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

나. 북·미 관계

● 美 대북인권특사 인준안 상원 통과(11/22, 연합)

- 로버트 킹 미국 대북인권특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20일 밤(현지시간) 미 상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음. 이에 따라 킹 특사는 국무부 선서식을 거쳐 조만간 공식 업무에 착수하게 됨. 킹 특사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팀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관여할 예정임.
- 특히 킹 특사는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전임 제이 레프코워츠 특사와는 달리 상근직 대사급으로 국무부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게 돼 향후 활동 방향이 주목됨.
- 이와 관련,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인권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북한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 北김책공대 총장 방미 연기(11/21, 미국의 소리 방송)

- 11월 말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던 홍서헌 총장 등 김책공업종합대학 대표단의 방문일정이 연기됐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21일 보도, 김책공대 대표단의 미국 방문을 추진해온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에번스 리비어 회장은 VOA와 인터뷰에서 “이번 주에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로부터 (대표단의) 연기 통보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이유는 제시하지 않은 채 연기를 통보했고 새해에 최대한 빨리 방문 일정을 다시 잡겠다고 말했다”고 설명
- 리비어 회장은 “아직 미 국무부도 이들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

● 美, 北, 6자회담 복귀 암시 있었다(11/21, 연합)

- 미국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는 20일 “우리가 (북·미간) 만남을 갖기로 합의한 것은 ‘6자회담으로 돌아오겠다’는 북한의 암시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그런 암시를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다”고 밝힘.
- 이 당국자의 언급은 그동안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회담 결과를 토대로 6자회담 혹은 다른 형태의 다자회담으로 돌아오겠다”고 한 입장과는 달리 이미 미국에 궁극적인 6자회담 복귀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했다는 뜻임.
- 그러나 이 국무부 당국자는 “북한은 과거에도 많은 것을 말하고도 실제로는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6자회담 복귀 문제와 관련해 확실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문제는 북한이 ‘매우 변덕스럽다’는 것”이라고 언급, 한편 내달 8일로 예정된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에는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북핵특사가 동행할 것이라고 국무부 당국자는 밝힘.
- 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보즈워스 대표가 북한에 들어가게 될지 등에 관한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언론의 동행취재 여부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

● 클린턴, 北과 관계정상화, 평화협정 검토(11/21, 연합)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메시지와 관련, 북한이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비핵화를 추진하면 북미 관계 정상화와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체결, 경제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힘.

- 아프가니스탄을 방문 중인 클린턴 장관은 지난 19일 아프간 주재 미대사관에서 가진 미 언론과의 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약속을 이행한다면 북한에 큰 혜택이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갈 것”이라고 답변, 그는 “미국의 입장에서 그들이 수년 동안 계속 제기해온 몇 가지 문제들, 즉 관계정상화,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경제 지원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이 모든 것에 대한 논의가 열려 있다”고 설명, 하지만, 클린턴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다짐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면서 “우리는 이를 6자회담 틀 내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

● 보즈워스, 12월 8일 방북, 북미대화 착수(11/19,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북핵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공동 추진기로 합의하고, 12월 8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에 파견, 북미대화에 나서기로 했음.

● 美 골드버그 교체되도 대북제재 불변(11/19,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을 총괄해 온 필립 골드버그 미 국무부 대북 제재 조정관이 예정대로 교체되도 미국의 대북 제재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미 국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
- RFA보도에 따르면 이 국무부의 관리는 “골드버그 조정관이 국무부의 정보 조사 차관보에 지명됐지만 상원 인준을 받을 때까지 대북 제재 조정관의 역할을 계속한다”며 “그의 후임자도 미국의 대북 제재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

● 오바마, 대북 식량지원은 안할 것(11/18, 워싱턴포스트)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이끌어낼 목적으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 보도
- 신문은 19일 인터넷판 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수행 중인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 “비록 북한의 식량위기가 다시 불거지고 있지만, 김정일 정권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북한에) 식량을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언, 이 당국자는 “(대북) 식량 지원은 (인센티브) 패키지에 들어있지 않으며, (북한의 핵포기는) 6자회담의 의무사항과 관련된 문제”라고 밝혀 그간 이뤄진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보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음.

● **조선신보, 북·미 양자관계 우선 논의해야(11/17,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7일 ‘조·미 양자회담, 시원은 8월의 평양상봉’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국무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과 관련, “(북·미간) 관계 개선 방도에 관한 문제가 선차적(우선적)으로 풀려야 한다”고 주장
- 신문은 “어떤 형태로든 당사자들 사이에 견해의 일치, 양자 합의가 이뤄져야 국면전환의 돌파구가 열린다”며 “조·미 사이에 해결 방도를 찾아야 다자대화를 해도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해진다”고 말해,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 기간 양자 관계에 대한 합의점이 나와야 6자회담 복귀가 가능할 것임을 강조

다. 북·중 관계

● **北통신, 중국방부장 ‘곧 방북’ 보도(11/20, 조선중앙통신)**

- 량광렬(梁光烈)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이 곧 북한을 방문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 통신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인 상장 량광렬이 곧 조선(북)을 방문하게 된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방북 일정과 목적 등은 밝히지 않음.
- 중국 국방부장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2006년 4월 차오강완(曹剛川) 당시 국방부장 이후 3년 7개월 만임.

● **북한군 ‘정치일꾼 대표단’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 면담(11/18,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언론매체는 18일 중국의 시진핑(習

近平) 국가부주석이 1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김정각 북한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군 ‘정치일꾼 대표단’을 만났다고 보도, 시 부주석은 대표단의 이번 방중이 “두 나라 군대들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 등은 소개

라. 북·러 관계

● 러시아 상원 의장, 23일 북한 방문(11/21, 러시아의소리방송)

- 러시아 연방의회의 세르게이 미로노프 상원 의장이 23일부터 2박 3일간 북한을 방문한다고 ‘러시아의 소리방송’이 21일 보도
- 미로노프 의장은 방북에 앞서 “북한 지도부가 나를 초청한 것은 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이를 만족스럽게 생각해 접수(수용)했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밝힘. 그는 “(북·러) 양국 사이의 접촉을 강화하고 쌍방관계의 포괄적인 문제와 세계안전문제에 대한 회담 진행이 필요하다”며 “북러 관계 발전에서 의회 간 외교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

● 인민보안성 대표단, 러시아 방문(11/17, 평양방송)

- 허영호 부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인민보안성 대표단이 러시아에서 진행되는 제1차 ‘세계도로안전에 관한 상(장관)급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17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평양방송이 보도

● 러시아, 대북 식량지원 완료(11/17, 조선중앙통신)

- 유엔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완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
- 통신은 “이번에 러시아 연방 정부가 조선(북)에 식량을 기증한 것은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친선관계의 표시로 된다”고 보도, 그러나 러시아가 지원한 식량의 종류와 규모는 밝히지 않았음.

마. 북·일 관계

● 민주조선, 일본, 과거 청산해야 국제영향력 발휘(11/18,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18일 '선후차도 모르는 일본의 도덕적 저열성'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의 과거범죄 청산을 촉구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그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
- 신문은 일본 정부가 2차 대전 당시 해외에 억류됐던 일본군 병사 출신 자국민들에게 '특별급부금'을 지급키로 한 것을 거론하면서 "남이야 고통 속에 몸부림치든 말든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식으로 나오는 일본의 냉랭한 태도야말로 저주받을 처사"라고 주장, "일본은 자기 병사들에 대한 보상에 앞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 끼친 과거범죄부터 청산해야 한다"며 "세계가 미래를 내다보며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해나가고 있는 오늘의 시대적 흐름을 일본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

● 日 재침략책동에 자위적 군사력 강화(11/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조선 재침을 노린 무모한 불량난'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 자위대의 합동군사연습을 거론하면서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무모한 재침략 책동에 대처해 자위적 군사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일본에서 대규모의 상륙작전연습인 제2차 자위대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졌다"며 "이번 연습이 일본 반동들의 재침 시나리오에 따라 감행됐다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며 "일본 반동들이 이번 연습에 전혀 없는 대규모의 무력을 동원하여 상륙작전 연습을 벌이면서 전쟁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그들의 재침 책동이 보다 엄중한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다그쳐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

바. 기타 외교 관계

● 영국 여왕, 북핵 문제 언급(11/19, 연합)

-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18일 의회 연설에서 북한의 도전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언급,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이날 의회 연설(Queen's Speech, 칙어)을 통해 "정부는 이란과 북한의 도전에 대처해 나가는 것을 포함해 핵

- 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
- 영국 여왕은 매년 11월 의회 회기가 시작될 때 개원 연설을 통해 입법계획을 밝히고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음. 정부의 입법계획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에서 여왕이 북한 핵 문제를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임. 여왕은 연설 뒷부분 국제문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히는 대목에서 북한과 이란을 예로 들었음.

3 대남정세

● 北, 현대 통해 금강산관광재개회담 제의(11/20, 연합)

- 북한이 최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통해 우리 정부에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 간 회담 개최를 제의한 것으로 20일 파악됨. 대북 소식통은 “현정은 회장이 금강산 관광 11주년 기념행사 참석 차 18일 금강산에 갔을 때 북측 리종혁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와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 간 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며 이를 남한 당국에 전해 달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설명
- 리 부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을 공식적인 회담 제의로 받아들여도 좋으면서 회담에서 금강산·개성 관광객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짐.

● ‘6.15 기념행사’에 보조금지원 추진(11/20, 연합)

- 제1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6.15 공동선언 채택 10주년(2010년 6월15일) 기념행사에 통일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 정부 당국자는 2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2010년도 통일부 예산안에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내년에 추진할 6.15 10주년 기념행사에 정부 보조금 조로 3억 원을 지원하는 안이 새로 포함됐다”고 설명
- 그는 “통일부 예산안 원안에는 6.15 10주년 행사 관련 지원액이 반영돼 있지 않았는데,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신규로 반영됐다”며 “정부가 6.15 선언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기념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문

제제기에 따른 것으로 안다”고 전언

- 이에 따라 당초 3억 1천500만 원으로 책정됐던 내년도 민화협 지원 예산은 6억 1천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 다만 이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2010년도 통일부 예산안은 예결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됨.
- 다른 통일부 당국자는 “3억 원이 통일부 예산에 최종 반영되면 오직 6.15 10주년 행사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외 다른 남북 간 합의를 기념하는 각종 사업에도 쓰일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정부와 민화협이 협의해서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

● 남북 단체, ‘을사늑약 104주년’ 공동 호소문 작성(11/17, 조선중앙통신)

- 남한의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와 북한의 단군민족통일협의회는 17일 일제의 ‘을사5조약(을사늑약)’ 체결 104주년을 맞아 공동 호소문을 발표, “일본의 과거 범죄를 철저히 청산하여 민족의 자주와 존엄을 떨쳐나가자”고 주장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양측은 호소문에서 “2010년은 일제에 의해 ‘한일 합병조약’이 날조된 지 100년이 되는 해”라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2010년을 ‘전민족적 반일 공동투쟁의 해’로 정하고 일본의 치떨리는 과거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대중적 운동을 과감히 벌여나가자”고 강조, 양측은 또 “민족의 대단결로 6.15통일시대를 힘차게 떠밀어 나가자”며 “동족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추구하는 반통일 행위를 짓부셔버리고 서로의 신뢰와 화해를 도모하는 원칙에서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자”고 강조

● 정부, 금강산관광재개 3대 조건 불변(11/17, 연합뉴스)

- 정부는 오는 18일로 11주년을 맞는 금강산 관광의 재개 문제와 관련, 관광객 총격 피살사건의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등 기존에 내건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밝힘.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현지 기업과 협력업체 등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관광 재개와 관련, 정부가 거듭 밝힌 기존 입장에서 현재로서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

- 이 부대변인은 이어 “관광재개를 위해서는 당국 간 협의를 통해서 (관광객 피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등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 그는 이어 “금강산 관광 협력 업체들의 어려움을 경감키 위해 남북협력기금 대출 등 조치를 취했다”며 “현재로서는 그외 다른 추가 조치가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부연

● 남북교역 회복, 반입 1억 달러 첫 돌파(11/17, 연합뉴스)

- 10월 남북교역 규모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증가하고 북한 물품의 반입 규모는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음.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남북 간의 교역 규모는 1억 7천26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1억 6천301만 달러)보다 5.9% 늘어났음.
- 반출 건수는 3천 543건, 금액은 7천 194만 달러이고 반입 건수는 3천 616건, 금액은 1억 66만 달러임. 반출액은 9월보다 3.4% 줄었지만 올해 두 번째 규모였고, 반입액이 1억 달러가 넘는 것은 사상 처음임. 이 때문에 지난 달 남북교역 규모는 지난해 10월보다 커서 전년 동월 대비 교역액은 9월에 이어 2개월째 증가했음.

11.23-11.29

11월
4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북·미 관계
- 나. 북·중 관계
- 다. 북·러 관계
- 라.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군부대 산하 농장·목장 현지지도(11/29,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근위서울 류경수 제105탱크사단이 운영하는 염소목장과 제1596군부대 산하 목화농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9일 보도
 - 염소목장을 방문한 김 위원장은 “최근 여러 군부대에서 염소목장, 소목장, 토끼목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목장들을 세워 많은 젖과 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인민군대처럼 당 정책관철에 대한 절대성의 정신을 발휘한다”면서 “우리나라 그 어디에서나 염소 떼가 육질거리게 할 수 있다”며 “염소사육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벌여야 한다”고 강조
 -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제1596군부대 산하 목화농장을 방문해 ‘목화농사의 기계화’를 강조하면서 “우리 식의 경작체계를 완성하는 것과 함께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보도
 - 현지지도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리영호 총참모장 등이 동행
- 김정일, 해군 연합부대 지휘부 시찰(11/2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해군 제587연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 북한의 해군 제587연합부대는 남포시에 위치한 서해함대사령부로 알려짐.
 - 통신은 보도에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해군 제587연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했다”며 “전투기술기재들과 해병들의 훈련을 보시면서 올해 훈련강령 집행과 새 년도 훈련준비 정형을 구체적으로 요해(파악)했다”고 보도
 - 시찰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리영호 총참모장, 현철해·리명수 대장 등 북한군 수뇌부가 총출동
- 北매체, 김정일 중국방부장 면담 보도(11/26,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북 중인 중국의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을 면담했

다고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언론매체들이 26일 보도, 이들 매체는 “김정일 동지께서 25일 조선을 방문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인 상장 량광례와 그의 일행을 접견했다”고 보도

- 북한 매체들은 또 “중국 국방부장은 김정일 동지께 보내온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후진타오 동지의 인사를 정중히 전해드렸다”며 “김정일 동지는 이에 사의를 표하시고 후진타오 동지에게 인사를 전하신 다음 량광례와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했다”고 소개, 이 자리에는 북측에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등이, 중국 측에서는 류샤오밍(劉曉明) 주북 중국대사가 배석

● 김정일, 평북 공장·기업소 현지지도(11/25,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안북도의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5일 보도, 김 위원장은 양책 베어링공장을 둘러보고 “기계제작공업을 비롯한 나라의 공업 발전에서 베어링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며 과업을 제시했다고 방송은 보도
- 김 위원장은 또 신의주 신발공장에서 생산공정들을 돌아보고 기술장비와 생산 상황을 파악, 이어 김 위원장은 신의주 초물생산협동조합을 방문해 조합 관리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초물 제품(폴대, 풀잎, 나무껍질, 노끈 등을 걸어서 만든 제품)을 살펴봄.
- 김 위원장은 개건 확장된 신의주 닭공장에도 가 “방역시설들을 충분히 갖추고 엄격한 방역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더 많은 고기와 알을 생산하자면 현대적 기술에 기초한 과학적인 경영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
- 현지지도에는 김평해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 비서, 박남기 당 중앙위 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등이 수행

● 김정일, 평북 공구공장 현지지도(11/24,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안북도 운산공구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4일 보도
- 김 위원장은 드릴 생산라인 등 공장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기계제작공업의 기초인 공구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은 기계공업발전을 위한 선결조건

의 하나"라며 "공구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공구공장의 기술개선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진행하여 그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언

- 그는 "운산공구공장의 기술개선공사를 단기간에 끝내기 위해서는 평안북도에서 여기에 총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내각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과 과학연구기관들의 지도방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운산공구공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조
- 현지지도에는 김평해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박남기 당 중앙위 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등이 동행

● 김정일, 4월 지방 방문 때 김정은 동행(11/29, 마이니치신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4월 원산 지역을 방문했을 때 후계자로 거명된 3남 김정은이 수행한 사실이 문서로 밝혀졌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9일 베이징발로 보도
- 마이니치신문은 김정일의 지방지도에 김정은이 수행한 것이 문서로 드러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김정은의 후계 작업을 위해 활동기록의 보존이 시작된 것이라고 분석, 신문이 입수한 북한 내부 문서에는 '김정은 대장 동지에 관해 발표된 최초 공개문서'라고 명기돼 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4월 26일 원산농업대학을 방문했을 때 작성됐다고 신문은 전언
- 이 문서에 명기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에는 "오늘 김 대장(김정은)과 함께 이곳에 왔다. 원산농업대학은 수령님(김일성)과 김정숙 어머니, 나와 김 대장에게 영광의 대학이다"라고 돼 있어 김정은의 존재를 명백히 했음.
- 당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와 장성택 당 행정부장, 박남기 당 중앙위 부장 등과 함께 원산농업대학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으나 김정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음.
- 마이니치신문은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원산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문서는 당시 노동당 선전선동부의 실무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나. 정치 관련

● 노동신문, 北 할 바 다했다(11/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변해야 할 대상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남측 당국의 “반통일적인 입장과 자세가 꼬물만큼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태도 변화를 촉구
- 신문은 “남조선 당국이 북남관계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마땅히 우리의 정당한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야 옳다”면서 “우리는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자기 할 바를 다했으며 이제는 남조선 당국이 그에 응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 또 “지금 우리의 성의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남관계가 갈수록 험악하게 번져지고 있는 것은 동족대결 정책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는 통일부의 반통일 망동 때문”이라며 현인택 장관과 통일부의 정책 변화가 없이는 “북남관계가 한치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고 주장

● 北, ‘재일동포 방북 전담’ 재일동포사업국 발족(11/27, 조선신보)

- 북한이 지난 9월 해외동포의 방북사업을 총괄하는 내각 산하 ‘해외동포사업국’에서 재일동포 업무를 분리, 이를 전담하는 ‘재일동포사업국’을 따로 내온 것으로 확인됨. 조선신보는 27일 신설된 재일동포사업국의 황도식(62) 국장과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힘. 새로 발족한 재일동포사업국은 말 그대로 방북한 재일동포들에 관한 업무를 전담
- 32년간 재일동포 업무를 관장해온 황도식 국장은 “우리는 총련과 재일동포들과의 사업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조국으로 오는 재일동포들의 편의를 성의껏 보장해 줄 것”이라고 답변

● 北현철해, 김정일의 ‘그림자’(11/27, 동아일보)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공개 활동에 한결같이 동행한 수행원은 현철해 인민군 총정치국 상무부국장이라고 동아일보가 27일 보도
- 매체에 따르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1월 1일부터 올해 11월 26일까지 10년 동안 현지지도와 같은 공개 활동을 한 것은 모두 1000회인 것으로 집계됨. 1년에 평균 100차례의 공개 활동을 한 셈이며, 올해의 경우 연간 기록으로는 가장 많은 142회나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음.

- 10년 동안 김 위원장을 수행한 수행원은 모두 119명이며 연인원(개인별 누적 횟수 합계)은 4,474명으로 집계, 이 가운데 10년 동안 100회 이상 수행한 사람은 모두 12명임. 현철해 인민군 총정치국 상무부국장은 10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수행 횟수에서 수위를 지킴. 그는 모두 435회 수행한 것으로 집계됨. 이어 이명수 국방위원회 행정국장(359회), 김기남 노동당 비서(306회) 등도 한결같이 김 위원장의 걸을 지킴.
- 김 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은 10년 동안 197회 수행해 6위에 올랐다. 그는 2000년부터 활발하게 수행했지만 권력을 추구한다는 김 위원장의 의심을 받아 철직됐던 2004년과 2005년에는 한 번도 동행하지 못했다. 그는 2006년 다시 수행원으로 등장해 올해는 총 72회로 2위를 차지

● **한성렬, 27일부터 UN 北대표부 근무(11/26, 미국의 소리 방송)**

-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에 새로 부임하는 한성렬 차석대사가 27일(미국시간)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6일 보도, 방송은 '북한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을 인용, "지난 10일 뉴욕에 도착한 한성렬 차석대사가 전임자인 김명길 공사와 업무 인수인계를 모두 마쳤다"고 보도
- VOA는 "앞서 한 차석대사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유엔대표부에 근무했고 앞으로 미국 정부와의 양자대화 등 미·북 간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며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는 신선호 대사를 중심으로 박덕훈 차석대사가 유엔 업무를, 한성렬 차석대사가 대미 업무를 맡는 체제"라고 소개, 방송은 이어 "전임 김명길 공사는 25일 북한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개
- 한 신임 차석대사는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근무 시절 6자회담에 관여하며 북미 간 채널 역할을 수행, 한 차석대사는 바이든 부통령을 비롯해 미국 민주당 안에 상당한 인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특히 바이든 부통령은 미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이 고조되던 2004년 당시 상원의원으로서 한성렬의 워싱턴 방문을 위해 공화당 정부를 앞장 서 설득했던 인연을 갖고 있음.

● **北, 南당국, 금강산 관광 안 하려는 속셈(11/25, 아태평화위 대변인 담화; 연합)**

-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25일 금강산 관광 재개 논란과 관련, "통일부를 비롯한 남측 당국의 속셈은 금강산 관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

- 아태평화위 대변인은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민간업자와의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금강산 관광사업은 처음부터 남조선 당국과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태가 남측의 현대와 시작하고 오늘까지 이어온 사업”이라고 주장, 담화는 지난 8월 현대그룹과 아태평화위의 공동 보도문에 이어 최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전달된 북측의 당국간 회담 제안을, 남한 정부가 ‘민간을 통한 제안이어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시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임.
- 아태평화위 대변인은 또 “민간업자와 한 합의이기 때문에 관광재개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생트집”이라며 “통일부는 민간과 한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지난 8월 아태와 현대 사이의 합의 가운데 이산가족상봉 문제만은 적십자를 내세워 받아 물고 추석을 계기로 전격적으로 진행했다”고 지적
- 대변인은 남측이 요구한 관광 재개의 3대 요건에 대해서도 “우리는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견지에서 즉시 유감 표시를 하고 진상에 대한 해명도 했다”며 “지난 8월 우리 최고 수뇌부의 특별지시에 따라 금강산 관광객들의 신변안전과 재발방지 문제에 대한 담보까지 해줬다”고 주장, 이어 관광 대가의 현물지급 방식에 관해 “세계 그 어디에 관광객들이 관광료를 물건짜스로 지불하면서 관광하는 데가 있는가”라며 “해괴한 발상”이라고 일축
-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 대가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전용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기 이전에 핵동력 공업의 기초를 축성하고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쏘아올려 오늘의 핵강국 지위에까지 오르게 됐다”고 반박
- 또 “남조선 현 당국은 관광 재개 문제를 통해 화해협력 방해자의 정체를 드러냈다”며 “현인택과 같은 반통일분자들이 통일부에 틀고 앉아 있는 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 없고 북남관계도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고 강변
- 그러나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은 화해와 협력,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염원을 반영한 것으로서 반통일 분자가 제동을 건다고 하여 그만 두게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혀 여전히 관광재개를 희망하고 있음을 내비침.

● 北, 한국정부 겨냥해 '괴뢰' 표현 재등장(11/24, 민주조선)

- 북한 매체가 우리 정부를 겨냥해 다시 “괴뢰”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 북한은 지난 8월 말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간 뒤 정부나 이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는 ‘괴뢰’, ‘역도’ 등의 표현을 자제해 왔음.
- 민주조선은 24일 논평에서 우리 정부가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해 “괴뢰들의 ‘인권’ 소동은 우리 공화국(북)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괴뢰들이야말로 적대감이 골수에 차 있는 반통일 역적 무리”라고 언급
- 북한은 이와 함께 최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이름으로 “‘현’명하지 못한 ‘인’간의 선 ‘택’”(우리민족끼리)이란 삼행시까지 짓는 등 현 장관에 대한 공격도 강화, 북한은 그러나 아직까지 이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고 있음.

● 北, 사형 가능한 일반 범죄 증가(11/24, 연합)

- 북한이 지난 2007년 형법 부칙(附則)을 제정, 최고 사형이 가능한 일반 범죄의 종류를 늘린 것으로 뒤늦게 밝혀짐. 부칙 제정 이전의 기존 북한 형법은 반국가범죄(내란, 테러행위, 공화국 전복탈출, 민족반역행위)와 고의살인죄 등 5가지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규정했었음.
- 23일 박정원 국민대 법대 교수가 최근 입수한 북한 형법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채택한 형법 부칙(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83호)은 23개 조문에 걸쳐 새로운 범죄 처벌 규정을 도입, 특히 이 가운데 16개 조문에 규정된 범죄가 ‘극히 무거운 형태’이거나 ‘특히 무거운 형태’인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음.
- 예를 들어 제11조는 ‘극히 무거운 형태의 마약밀수, 밀매’에 대해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하며, 제17조는 ‘특히 무거운 형태의 불량자행위죄’에 대해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음.
- 이밖에 부칙에는 경제범죄 처벌과 관련, 외화도피죄(제9조)와 건설법규침해죄(제10조), 비법적인 영업죄(제18조) 등이 신설,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에 대한 비법협조죄(제13조)도 마련됐음.
- 부칙 제19~21조는 각각 특히 무거운 형태의 고의적 중상해죄, 극히 무거

은 형태의 유괴죄, 특히 무거운 형태의 강간죄를 규정해 해당 범죄자를 처벌토록 했음.

● 北, 북미 간 평화보장체계 수립 촉구(11/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평화보장 체계 수립이 급선무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충돌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북)·미 사이의 정전 상태를 끝장내고 평화보장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 신문은 ‘대청해전’을 거론하면서 “이번 무장충돌 사건이 그 절박성을 입증해 준다”고 강조
- 노동신문은 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루 빨리 바꾸는 것은 조선반도에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불안정한 현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이며 여기에서 기본 책임을 지니고 있는 당사자는 미국”이라고 지적, 또 “평화보장 체계 수립의 문제는 미국의 입장과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며 “조선반도에 존재하는 전쟁위험 제거와 북남 사이의 무장충돌 방지 문제는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때라야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

● 노동신문, 南 인권결의안 공동제안 비난(11/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인권 말살자들의 가소로운 정치광대극’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남한 정부의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에 대해 “북남 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대결을 격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
- 신문은 “남조선 당국이 북남 대결 소동을 갈수록 악랄하게 벌이고 있다”면서 “(공동제안국 참여는) 우리에게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또 하나의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 또 “이번의 ‘북 인권결의안’ 공동제안 책동도 동족 대결을 인권문제로까지 확대시키고 북남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기 위한 범죄적 목적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며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이 반공화국 대결 소동에 기승을 부리는 한 북남 관계 개선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고 언급
- 신문은 이어 “우리는 갈수록 더욱 무분별해지고 있는 괴뢰들의 반통일 대결 책동을 절대로 용납치 않을 것이고 단단히 계산할 것”이라고 경고, 신문

은 “우리의 존엄 높은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인권문제란 애당초 제기조차 될 수 없다”며 “이것은 우리 공화국을 편견없이 대하는 세계의 공정한 사회 여론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문제”라고 항변

다. 경제 관련

● 北, FAO, 식량위기 대처 국제환경 마련해야(11/25,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북한은 11월 20일 열린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총회 제36차 회의에서 “FAO가 무엇보다도 식량위기, 금융경제위기에 대처하여 지속적인 농업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북한의 언론매체들이 25일 보도
-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이 회의에 참석한 북한 대표단 단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 정부는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에 따라 앞으로도 유엔 농업식량기구와 모든 성원국들과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킬 것이며 세계 식량안전 보장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도 적극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
- 단장은 또 “발전도상 나라들의 농업 발전을 위한 활동계획들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성원국들에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농업 전략과 정책을 세우고 농업 생산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FAO에 주문

● 북한서 ‘자본주의 상징’ 청바지 만든다(11/25, 자유아시아방송)

- 스웨덴 의류업체인 ‘노코 진스’가 북한 내 위탁가공으로 생산한 청바지 1천 벌을 다음 달 4일부터 스웨덴에서 판매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 RFA보도에 따르면 노코 진스가 시판하는 북한산 청바지는 남녀용 각 2종으로 이 회사 공동대표 3명이 직접 디자인한 것임. 노코 진스의 주문에 따라 전량 수출용으로 만들어진 북한산 청바지의 판매 가격은 알려지지 않음.
- 회사의 제이콥 애스트롬 공동대표는 RFA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고급 기술이 큰 장점이긴 하나 북한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청바지라는

희소성 때문에 더 특별한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 이 회사는 청바지 착용을 금지하는 북한에 진출하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다 작년 7월 스웨덴 주재 북한대사관과 협상을 벌여 어렵게 북한진출 계약을 따냈다고 RFA는 설명

● 北 올해 식량 150만 톤 부족(11/24, 연합)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권태진 선임연구원은 24일 “북한은 올해 작황이 나빠 최대 150만 톤 정도 식량이 부족하며 따라서 당분간 외부의 긴급 식량지원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힘.
- 권 선임연구원은 “올해 북한의 곡물 소요량은 520만 톤 정도로 추정되는데 비료 부족과 나쁜 기상 여건으로 인해 올해 곡물생산량은 작년의 431만 톤보다 1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
- 나기 사피크 전 세계보건기구(WHO) 평양사무소 프로젝트 매니저도 “6세 이하 북한 어린이의 3분의 1 가량이 만성 영양실조이고 여성의 30%가 빈혈증세를 보이고 있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건시스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올해 6월까지 8년간 평양에 상주한 그는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지원으로 1998년과 2004년 사이 발육을 저해할 정도의 만성 영양실조는 전체 아동의 62%에서 37%로,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영양실조는 16%에서 7%로 감소했다”고 설명
- 경기도의 이승신 남북협력담당관은 남북 보건의료협력의 모범 사례를 소개하면서 “2008년부터 경기도와 북한이 말라리아 공동 방역을 추진한 결과, 2008년 한 해 동안 남한 전체의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보다 53% 줄었고, 경기도에서도 51.8% 감소했다”고 설명
- 미국 비정부기구(NGO)인 AFSC의 우나 레일리 대북사업 담당자는 “지난 10여 년간 북한 합영농장 4곳과 공동연구를 진행해 북한 실정에 맞는 농업 기술을 보급했다”며 “특히 지난해 보급한 논벼 파종 기술로 모든 농장에서 헥타르당 수확량이 0.5t 내지 1t 늘었다”고 전언
- 우나 비센바흐 주한유럽연합(EU) 대표부 부대사는 “1995년부터 EU는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벌여 지금까지 지원 규모가 지난달 현재 3억 8천만 유로에 달한다”며 “현재도 트랙터 공급 등 7건의 식량안전 프로젝트가 황해북도, 함경남도, 평안남북도의 21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

● UNDP, 내년 1월 대북사업 재개(11/24,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개발계획(UNDP)이 2010년 1월 평양사무소를 다시 열고 대북사업을 재개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
- 방송은 UNDP의 '대북사업보고서'를 인용, "농경 에너지 지원, 농업, 생필품 공급, 통계자료 수집, 인적자원 개발 등 미화 250만 달러(약 29억 원) 규모의 6개 대북지원 사업을 내년 초 재개한다"며 "이미 프랑스인인 제모리 사우비지 씨가 평양사무소 대표로 임명됐고 총 18명의 직원이 근무할 예정"이라고 밝힘.
- RFA는 이어 "이달 2일 평양사무소 대표로 임명된 사우비지 대표가 평양으로 가 대표직 수행을 위한 국가 허가증 취득 과정을 북한 외무성을 통해 12일 완료했다"며 "사우비지 대표가 유엔 아동기금(UNICEF),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등 북한 주재 유엔기구를 대표하는 조정사무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
- UNDP 평양사무소에는 국제직원 5명과 북한 현지인 13명이 근무할 예정인데, 평양사무소의 보수공사가 완료돼 장비와 연락 체계 준비만 끝나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방송은 전언
- RFA는 또 "과거의 자금 전용 의혹을 의식해 이번 대북사업은 다른 유엔 기관보다 더 정밀한 감독과 감사를 거칠 것"이라며 "예전과 달리 전반적인 사업이 뉴욕 본부의 계획과 통제 아래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

라. 사회·문화 관련

● 평양서 AFC 프로감독 자격강습 개최(11/27, 조선중앙통신)

- 11월 2일부터 22일까지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아시아축구연맹(AFC) 프로감독 자격강습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
- 이번 강습에는 북한 내 AFC A급 감독자격 보유자들과 각급 국가대표팀 감독들이 참가해 영국과 독일 강사들로부터 강의를 들었음. 통신은 "축구선수들의 육체적 발달을 위한 훈련을 비롯해 여러가지 문제들이 강습에서 취급됐다"고 소개

● **北장애인 예술·체육 교육 확대(12월호, 조국)**

- 월간 '조국' 12월호는 '새로운 양상을 띠는 장애인보호사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이 "장애자들에 대한 회복치료 사업과 함께 사회문화예술 및 체육 교육이라는 보다 독특한 형태로 그들의 사회적 참여를 실현시켜 주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
- 잡지에 따르면 지난 5월 평양 대동강 구역에 건립된 대동강장애인문화센터에선 성악과 기악, 무용 분야의 전문가들이 장애인들에게 예술 교육을 하고 있음. 주로 특수학교(농아·맹인학교)의 예술소조(동아리) 학생들이 교육 대상임. 이 센터는 장애인들에게 탁구, 활쏘기, 사격을 비롯한 여러 종목의 체육 교육도 실시

2 대외정세

가. 북·미 관계

● **보즈워스, 오산서 군용기로 방북(11/28,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2월 6일 서울에 도착한 뒤 8일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군용기를 이용해 방북할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
- 방송은 지난 27일 '워싱턴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보즈워스 특별대표, 성 김 북핵 특사, 국무부와 국방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관리로 구성된 소규모 방북단이 6일 서울에 도착해 한국 측 관리를 만난 뒤 8일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군용기를 타고 평양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힘.
- RFA는 "보즈워스 특별대표와 미국의 특사단이 군용기를 타고 방북하는 것은 이번 북미 간 만남이 '협상'이 아닌 '접촉'의 성격이 강하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하고자 하기 때문에 미국 측이 언제든 북미대화를 마치고 평양을 떠나 필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뜻으로 보인다"고 해석
- 방송은 이어 보즈워스 일행이 서울에 도착하는 다음날인 7일 한국 정부와 방북에 관한 사전협의를 하고 방북을 마친 뒤에도 다시 서울로 와 한국 정

부에 방북 내용을 보고·논의하고 일본과 중국, 러시아를 차례로 방문해 방북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소개

-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보즈워스 대표가 8일 북한에 들어간다는 것 말고는 아직 구체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공식적인 일정이 통보된 게 없다”고 밝힘.

● 보즈워스, 평양 2박 3일 체류, 일정 길어져(11/23, 연합뉴스)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평양 체류 일정이 당초 알려진 1박 2일보다 길어질 것으로 알려짐. 정부의 고위소식통은 23일 “보즈워스 대표가 8일 평양에 들어가 10일까지 머물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
- 당초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 일정은 8일부터 9일까지(1박 2일)가 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처럼 체류 일정이 길어짐에 따라 북미대화의 의미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
- 보즈워스 대표는 평양 방문에 앞서 서울에 들릴 예정이며 방북을 마친 이후에도 곧바로 서울로 내려와 방북 결과를 정부 당국에 ‘디브리핑(debriefing)’할 것으로 알려짐. 이어 보즈워스 대표는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방북 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전해짐.

나. 북·중 관계

● 北인민군 협주단, 中베이징서 공연(11/29, 조선중앙통신)

- 북한 인민군 협주단이 27일 중국 베이징 중국극원에서 초청공연을 가졌다 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
- 이번 공연은 김정각 북한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의 방중과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의 방북 및 김정일 위원장 면담 등 북·중 양국 간 군사부문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이뤄진 것임.
- 군 협주단은 ‘조선인민군가’, ‘중국인민해방군 군가’를 시작으로 혼성합창 ‘언제나 수령님을 우러러’, 남성4중창 ‘선군의 나의 조국아’ 등을 공연했으며 ‘3대규율 8항주의’ 등 중국노래도 선을 보였음. 중국의 쉬차이허우(徐才厚)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공연 관람에 앞서 북한군 협주단 간부들과

면담을 갖고 “두 나라 영도자들의 깊은 관심 속에 중·조(북) 군대들 사이의 관계가 좋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소개

● 北·中, 나진항, 국제 물류기지 합작개발(11/25, 연합)

- 북한과 중국이 나진항을 중계무역과 보세, 수출가공이 가능한 국제 물류기지로 합작 개발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중국 지린성의 한 소식통은 25일 “지린(吉林)성 발전연구센터 류시밍(劉庶明) 거시경제처장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나진항을 중계무역과 수출 가공, 보세 물류 등 국제 교역 단지로 합작 개발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소개
- 류 처장은 이 자리에서 “나진항을 단순한 동해 진출 항구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다”며 “나진항 중계무역 기지 개발 프로젝트는 이미 북한은 물론 중국 중앙정부의 승인이 난 것”이라고 설명, 그는 이어 “이미 세계화상(華商)연합회와 미국의 모 그룹이 나진항 개발과 관련, 지린성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며 “투자 규모는 30억 위안(5천억 원)”이라고 전언
- 류 처장은 “나진항을 중계무역 기지로 개조하기 위해 중국 접경 지역인 북한의 원정에서 나진까지 폭 9m의 4차로 도로를 개설하고 나진항 기존 부두의 보수·확장과 4번 부두 신축에 양측이 합의했다”며 “나진항이 수출 가공과 보세, 중계 무역 기능을 갖춘 국제적 물류단지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
- 나진항 개발을 위한 자금은 외자 유치를 포함, 중국 측이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북·중 양측은 나진항을 통과하는 중국의 선박과 인원에 대한 출입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한다는 데도 합의

● 北-中 국방부장 회담(11/24, 조선중앙통신)

-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이 24일 방북 중인 중국 량광례(梁光烈)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과 회담을 가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통신은 “회담에서 쌍방은 조(북)·중 두 나라 군대들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변함없이 발전시킬 데 대하여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깊이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소개하지 않음.
- 회담에는 북한 측에서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심상대 상장, 김수학 중

장 등이 참석했고, 중국 측에선 인민해방군 선양(瀋陽)군구 정치위원인 황셴중(黃憲中) 상장, 지난(濟南)군구 부사령관인 풍조거 중장, 난징(南京)군구 부사령관 겸 해군 동해함대 사령관인 서홍명 중장, 난징군구 공군 사령관인 장젠펑(江建曾) 중장,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조직부장인 시소량 소장, 총참모부 작전부 부부장인 왕진 소장, 국방부 외사판공실 자샤오닝(賈曉寧) 부주임과 류샤오밍(劉曉明) 주북 중국대사, 주북 중국대사관의 쑤옌펑(孫延風) 국방무관이 참석

- 회담에 앞서 량 부장 일행은 이날 대성산혁명열사릉과 조·중 우의탑에 헌화하고,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했으며,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도 참관했다고 북한 언론은 소개

● 中, 北·美 간 대화·접촉 지지(11/24, 연합)

- 중국이 12월 8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와 접촉을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힘.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북·미 간 대화가 적극적인 진전을 이룩하길 희망한다”고 언급
- 친 대변인은 북·미 간 대화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북핵 6자회담은 현재 중요한 기회를 맞고 있어 각 당사국이 함께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언급, 그는 “중국은 의장국으로서 줄곧 6자회담 및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해 왔다”고 강조
- 친 대변인은 또 22일부터 시작된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의 방북과 관련해서는 “양국군 사이의 통상적인 교류의 일부분”이라면서 “양국 간 전통적 우호관계를 강화·발전시키고 양국군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 그는 “중국은 양국 및 양국군 간의 발전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해 공헌할 것”이라고 발표

● 中해역서 구조된 北화물선원 평양 귀환(11/23, 조선중앙통신)

- 중국 해상에서 조난됐다 중국 측에 의해 구조된 북한의 무역화물선 '지성 5호' 선원들이 23일 평양으로 귀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통신은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가던 '지성 5호'가 지난 17일 중국 해상에서 "사나운 풍랑을 만났다"며 "중국 정부와 해당부문 일꾼들은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던 선원들을 위해 긴장한 구조활동을 벌였으며 구원된 선원들의 생활상 편의도 성심성의로 보장해 줌으로써 '조·중(북·중) 친선의 해'인 올해에 조선 인민에 대한 중국 인민의 협조정신을 잘 보여주고 전통적인 조·중 친선을 꽃피우는 데 이바지하였다"고 설명
- 통신은 "선원들을 태운 특별비행기가 평양비행장에 도착하였다"고 전했으나 귀환 선원들의 숫자는 밝히지 않았음.
- 앞서 중국 신화통신은 북한 남포항을 출발해 중국 다롄(大連)으로 가던 북한 화물선 '길송 5호'가 17일 낮 12시 35분(현지시각) 다롄 인근 해역에서 강풍에 침몰, 6명이 실종되고 14명이 구조됐다고 18일 보도

다. 북·러 관계

● 북·러 과학협조 의정서 조인(11/2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국가과학원은 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 분원과 2009~2011년 과학협조에 관한 의정서를 지난 25일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 조인식에는 북측에서 리성욱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가과학원 대표단이, 러시아 측에서 발레리 쿨레쇼브 과학원 시베리아 분원 부원장 등이 참가

● 러 상원의장, 北 6자회담 복귀 의사 미확인(11/28, 미국의 소리 방송)

- 러시아 연방의회의 세르게이 미로노프 상원의장은 방북기간 "북한이 과연 6자회담 복귀 의지가 있는 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
- 그는 그러나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등을 면담하고 "북한 핵문제는 협상과 다자회담의 틀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과 "러시아는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의 가입국이자 발의국으로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실험을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소개
- 미로노프 의장은 또 이번 방북 때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친서를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언

● 러 상원의장, 北-러 협조, 동북아 안정 기여(11/25,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북한을 방문 중인 러시아 연방의회의 세르게이 미로노프 상원 의장은 “두 나라 인민들의 긴밀한 협조는 조선반도(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보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이 25일 보도
- 미로노프 의장은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연회에서 “러시아와 조선(북한) 사이의 친선 관계는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면서 “두 나라 의회들 사이의 협력은 러·조(북·러) 관계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면서 공동으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고 매체들은 전언
- 북한의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방문은 두 나라 의회들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조선과 러시아 사이의 전반적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두 나라 최고위급에서 합의된 공동선언들과 새 국가간 조약의 정신에 기초하여 조러 관계가 가일층 공고 발전되리라는 것을 믿는다”고 강조
- 연회에는 북측에서 김완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과 궁석용 외무성 부상,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홍서헌 북.러친선의원단 위원장, 김성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이, 러시아 측에서는 발레리 수히닌 주북 러시아 대사와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아태 담당 외무차관, 콘스탄틴 폴리코프스키 의장 고문, 루슬란 타타리노프 의장 서기국장, 안드레이 바클라노프 의회 국제연계국장 등이 참석

라. 기타 외교 관계

● 북한 내 독일문화원 열람실 폐쇄(11/23, 쥐트도이체 차이퉁)

- 2004년 북한에 개설됐던 ‘독일 과학기술 도서 보급실(독일문화원 정보센터)’이 최근 폐쇄됐다고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이 23일 보도
- 신문은 “독일 외무부도 참석한 괴테 인스티투트(독일문화원) 이사회가 2009년 여름 평양의 열람실 폐쇄를 결정한 데 이어 10월 북한의 조선-독일 친선협회와 맺은 ‘독일 과학기술 도서 보급실’ 운영에 관한 협약을 종료했다”면서 “미국이 독일에 폐쇄를 요구한 것 같다”고 밝힘.

- 신문은 “독일문화원이 폐쇄의 이유로 북한의 열람실 검열과 출입 통제를 들었지만, 이사들 누구도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문제 삼지 않았었다”면서 미국이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모든 차원에서 북한의 고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에 ‘우호적인’ 독일 외무부가 문화원에 폐쇄를 강요했다고 주장
- 2004년 6월 2일 평양 천리마문화회관에 개설된 이 도서보급실은 북한에 설치된 최초의 서방 문화 관련 시설이자 개방의 ‘전진초소’로, 독일의 과학, 학술, 문화, 역사 서적, 신문, 영상자료 등이 전시돼 있었음.

3 대남정세

● 南·北, 12월 함께 中·베트남 공단 시찰(11/27, 조선일보)

- 남북이 개성공단 발전을 위해 12월 중순쯤 중국과 베트남의 공단을 공동 시찰,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다음 달 중순 약 10일 일정으로 중국과 베트남 공단을 대상으로 남북 합동 시찰을 실시하기로 최근 북측과 합의했다”며 “합동시찰단 규모는 남북 각 10명씩 구성될 예정”이라고 설명, 구체적인 일정과 참석자 명단 등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며 이번 합의는 지난 6월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우리 측이 제의한 내용을 이번 주 북측이 수용한 것임.

● 北, 진정성 있으면 당국회담 정식제의 해야(11/23, 연합뉴스)

- 통일부는 23일 북한이 최근 현대를 통해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 대화를 제의한 것과 관련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관광 재개를 희망한다면 지금 가동되고 있는 당국 간 회담 채널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회담 제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사업자(현대와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사이에 협의된 내용에 대해 우리는 공식회담 제의로 보지 않는다”고 언급, 천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민간을 통해 대화를 제의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측에 대한 비난 등 여러 가지 다른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그 의미나 의도를 판단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밝힘.

- 그는 또 우리 쪽에서 먼저 회담을 제의하는 방안에 대해 “당국 간 회담을 지금 시점에서 제의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금강산 관광 이외에도 남북 간의 여러 현안들이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가 북핵 문제와 연계된 것은 아니다”고 부연

● 정부, 개성공단 北근로자용 타미플루 확보(11/23, 연합뉴스)

- 정부는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에게 제공할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를 1천 명분 확보했다고 23일 밝힘. 통일부는 이날 “개성공단 내 남측 근로자 대상 100명분, 북측 근로자 약 1천 명분의 타미플루를 확보했다”며 “이는 북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

11.30-12.06

12월
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및 유엔안보리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러 관계
- 마. 북·일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인민보안성 운영 과수원 현지지도(11/3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보안성에서 건설해 운영하는 대동강 과수종합농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
 - 김 위원장은 남한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인민보안성 본부를 최근 시찰한데 이어 이번에 인민보안성 과수농장도 돌아봄으로써 인민보안성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드러냄.
 - 김 위원장은 이 과수종합농장에서 과일생산 실태 등을 보고 받고 “이 농장은 우리 인민들에 대한 과일 공급뿐 아니라 나라의 과수업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본보기 농장”이라고 평가
 - 김 위원장은 또 평양시 변두리에 위치한 석정 돼지공장(양돈장)과 석정 장아찌공장도 현지지도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
 - 현지지도에는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와 장성택 당 행정부장, 박남기 당 부장 등이 수행했으며 대동강 과수종합농장 현지지도 때는 주상성 인민보안상과 리병삼 인민보안성 정치국장 등이 영접

나. 정치 관련

- 北, ‘북한인권법안’ 채택 움직임에 광분(1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5일 최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인권을 구실로 반공화국(반북)책동에 광분하고 있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엄중한 적대행위”라고 주장
 - 통신은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책동’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회 본회의에서의 북한 인권법안 정식 채택 움직임과 유엔 무대에서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을 지적하며 “동족대결을 체질화한 반민족 분자들의 반공화국 대결야망의 발로로서 우리에게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비난
 - 통신은 이어 “남조선의 극우보수세력들은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아

량과 성의있는 노력에 도전해 동족대결을 인권문제로 확대시키면서 북남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반공화국 대결소동에 기승을 부리는 한, 북남관계 개선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

● 北, 화폐개혁 혼란 대비 軍 전투태세(12/4, 러시아 코메르산트; 데일리NK; 조선신보)

- 북한 군이 최근 단행된 화폐개혁에 반발해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한 전투준비 상태에 들어갔다고 4일 러시아 경제 일간지 코메르산트가 북한 내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북한 여러 도시에서 이번 화폐 개혁을 ‘강도(強盜)와 같은 정책’이라며 비판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에 당국이 이런 지시를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언, 소식통들은 또 화폐 개혁 기간 북한의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아야 하고 주민들은 그동안 모아뒀던 돈을 쓸 수 없게 되면서 크게 당황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파견된 많은 외교관들이 북한 당국의 화폐 개혁을 되돌리려고 여러 모임을 갖고 있다고 밝혔음.
- 북한 내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최근 북·중 국경 인민경비대에 “허락 없이 국경을 넘는 자들은 현장사살을 해도 된다”는 발포 명령을 내렸다고 함. 화폐 개혁과 관련된 ‘불순 세력들의 도주’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임. 소식통은 “지금까지는 먹고살기 힘든 계층이 많이 탈북했지만 앞으로는 갑자기 돈을 빼앗긴 능력 있는 중산층이 탈북 행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
- 정보 당국자는 “현재 집단 소요나 대량 탈북 등의 첩보는 없다”며 “북한 주민들은 집단행동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면 시위보다 탈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설명
- 함북 청진, 함남 함흥, 평남 평성 등에서 김일성 사진이 담긴 옛 화폐(5000 원권)가 오물에 훼손되거나 찢긴 채 발견돼 보위부가 비상에 들어갔다고 함. 김정일을 비난하는 낙서와 뼈라(전단)도 나돌기 시작했다고 내부 소식통은 전언
- 데일리NK는 이날 “양강도에서 화폐 개혁 이후 한 채무자(빚꾼)가 갑자기 채권자(돈주)에게 ‘옛날 돈으로 빚을 갚겠다’고 우기며 싸우다가 채권자에

게 맞아 죽은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도, 신의주의 한 장마당에선 화장품 장사를 하던 40대 중반 여성이 당국을 비난하는 소리를 지르다가 보안원에게 체포됐다는 소식도 있음.

- 지금 북한 주민들은 화폐 개혁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돈을 잘 교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은 한 가구당 10만 원(신권 1000원·우리 돈 4만~5만 원) 수준이던 교환 한도를 늘려 1인당 5만 원씩 더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저축 한도를 없애는 등 주민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북한은 6일까지 화폐 교환을 끝낼 계획이었지만 3일 현재 함북 회령·무산 등에는 신권이 도착하지도 않았다고 함. 이 때문에 교환 시기를 ‘신권 도착 후 1주일’로 바꿨다고 내부 소식통은 밝힘.
- 조선신보는 평양발로 “지난달 30일부터 화폐 교환사업이 북한 전역에서 일제히 진행되고 있다”고 처음 보도

● 北, 노동자 월급은 종전 수준 유지(12/4, 연합뉴스)

- 100대 1의 화폐 개혁을 단행한 북한이 노동자 급여를 종전 수준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이는 사실상 노동자 급여가 화폐 개혁 이전에 비해 100배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어서 주목됨.
-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한 무역 일꾼은 4일 “노동자 급여는 화폐 개혁 이후에도 종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북한)당국의 방침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언, 화폐 개혁 이전 3천 원을 받던 노동자에게 화폐 개혁 이후 신권으로도 3천 원을 보장해줌으로써 사실상 100배의 임금 인상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
- 이 일꾼은 “이번 화폐 개혁의 목적은 북한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비사회주의 조장 세력’의 지하 자금을 몰수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장사 등 지하 경제에 매달리는 것을 막고 사회주의의 건전한 노동 작풍을 형성하려는 조치”라고 설명

● 北, 화폐 개혁 내각결정 하달(12/4, 연합뉴스)

- 북한이 화폐 개혁과 관련한 내각결정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짐. ‘좋은벗들’은 3일 소식지에서 “화폐 교환에 관한 내각결정 423호가 내려졌다”며

“423-1호는 ‘인민생활 안정과 향상을 위하여’, 423-2호는 ‘경제관리체계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다”라고 전언

- ‘좋은벗들’은 또 “화폐 교환과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해 무자비하게 징벌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소개, 또한 “평양시는 외화 사용을 금지한다는 공시를 내렸다”고 보도

● **北당국, 중국인 신권교환 제한 안뒤(12/3, 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화폐 개혁에 따라 구권을 신권으로 바꿔주면서 중국인 무역업자와 기업인들에게는 신권 교환 한도와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경제 전문가인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의 조봉현 연구위원(경제학 박사)은 3일 연합뉴스 기자에게 “북중 교역을 하는 조선족들과 북한과 교역하는 한국인 업자들에게 들은 얘기”라면서 “중국 기업인들은 신권 교환 한도인 가구당 10만 원이 적용되지 않고 1주일로 정해진 교환기간에도 제한이 없다고 한다”고 소개
- 열린북한방송도 이날 “북중 국경 근처인 북한 무산의 소식통이 어제(2일) ‘중국인이 보유한 북한 돈에 대해서는 신권 교환 한도가 사실상 없으며 이에 따라 중국인을 통해 구권을 신권으로 바꾸려는 북한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전언

● **새 화폐 사용, 北, 평양 주재 외교 공관에 통보(12/2, 신화통신)**

- 북한이 1일 평양 주재 각국 외교 공관에 기존 화폐 사용을 중지하고 새로운 화폐로 교환할 것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밝혀짐. 신화통신은 “북한 외무성 관리가 1일 각국 공관에 11월 30일부터 기존의 북한 화폐 사용이 정지됐으니 새로운 화폐로 교환하라는 통보를 해왔다”고 보도
- 이 관리는 “이번 화폐 개혁 조치는 최근 북한 정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구화폐를 새로운 화폐로 교환할 수 있다”고 언급, 그러나 화폐 개혁의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신화통신은 전언

● 北, 해상봉쇄로 상선항해, 선원안전 위협(11/30, 평양방송)

- 국제해사기구(IMO) 제26차 총회에 참석한 북한 대표단이 국제사회의 해상 봉쇄로 상선의 자유항해와 선원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평양방송이 30일 보도
- 북한은 지난 27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IMO총회에 고능두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가해사감독국 대표단을 파견
- 고 국장은 총회 연설에서 “특정한 나라들의 정치적 동기에 따라 강요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경제 제재와 봉쇄로 최근 평화적인 무역집배(컨테이너선)의 자유로운 항해와 선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발생해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국제해사 실천에서 국제법과 유엔헌장의 원칙을 무시한 주권침해 행위는 절대로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다. 경제 관련

● 北 새 화폐 어떻게 달라졌나(12/4, 연합)

- 북한이 11월 30일 화폐 개혁에 따라 새로 발행한 화폐는 구권과 비교해 2천 원권의 지폐가 추가돼 총 9종의 지폐와 5종의 동전으로 구성, 지폐의 최고 액권은 과거와 같이 5천 원권이며 2천 원, 1천 원, 500원, 200원, 100원, 50원, 10원, 5원 등임.
- 북한은 2002년 물가와 임금을 현실화한 ‘7·1 경제관리개선 조치’에 따라 그동안 5천 원부터 1천 원, 500원, 200원을 추가로 발행해왔는데 이번에 화폐개혁 조치로 2천 원권이 새로 등장, 주화 종류는 1원, 50전, 10전, 5전, 1전으로 종전과 같음.
- 지폐의 크기는 모두 동일하며 가로 145mm, 세로 65mm임. 그러나 화폐의 도안은 과거와 약간 달라졌음. 도안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 위원장의 생모인 김정숙 등 이른바 ‘3대장군’을 상징하고, 북한 당국의 정책을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음. 최고액인 5천 원권은 과거와 같이 앞면에 김일성의 초상화, 뒷면에는 김일성의 고향인 ‘만경대 고향집’이 각각 그려져있는데, 다만 김일성의 초상화가 중년 시절 정장차림에서 그의 사망 후 새로 그려진 초상화인 ‘태양상’으로 교체

- 새로 발행된 2천 원권은 김정일만을 상징하는 그림만 담았음. 앞면에는 김정일이 태어났다는 '백두산 밀영의 고향집'과 '정일봉'을, 뒷면에는 백두산 전경을 담음. 1천 원은 구권이 구권 5천 원과 똑같이 앞면에 김일성 초상화, 뒷면에 '만경대 고향집'이 그려져 있었던 데 반해 신권은 앞면에 김정숙이 태어난 '회령 고향집', 뒷면에는 항일빨치산들을 상징하는 삼지연 못가를 그렸음. 고액권 순서대로 김일성-김정일-김정숙이 담긴 것임.
- 500원의 경우 김일성의 시신이 안치돼 있는 금수산기념궁전에서 김일성의 '조국개선'을 상징하는 평양시내의 '개선문'으로 바뀌었음. 200원짜리는 북한의 국화인 목란꽃에서 대중운동을 상징하는 '천리마동상'으로 바뀌면서 100원에 대신 목란꽃이 들어갔음. 50원에는 '사상중시'를 의미하는 인테리 노동자 농민이, 10원은 종전 노동자에서 '총대중시'를 의미하는 육해공군 병사, 5원은 구권과 같이 '과학기술 중시'를 의미해 과학자와 대학생을 담았음.
- 주화는 1원에 '김일성화(花)', 50전에 '김정일화', 10전에 진달래, 5전에 목란꽃, 1전에 철쭉을 그렸음.

● 압록강 대교, 단둥 하류 건설 유력(12/4,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이 합의한 압록강 대교가 단둥 하류인 랑터우(浪頭)와 평안북도 용천을 연결하는 지점에 세워질 것으로 알려짐. 4일 단둥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새 압록강 대교 건설 위치가 단둥의 하류로, 단둥시가 신개발구로 건설 중인 랑터우로 사실상 확정됨.
- 중국 당국은 공식적으로 압록강 대교 건설 지점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단둥시 관계자들이 랑터우에 다리가 세워진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음. 최근 랑터우 압록강변에 세워진 개발구 건설 조감도에도 랑터우와 신의주 남쪽에 위치한 용천을 잇는 구간을 압록강 대교 건설 예정지로 표기돼 있음.
- 북한은 2007년 중국이 제의한 압록강 대교 건설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랑터우에 세우자는 중국의 요구와는 달리 단둥과 신의주 상류인 위화도 부근에 세울 것을 고집해 왔음.
- 이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압록강 대교 건설은 지난 10월 초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북 때 북한이 전격 합의, 압록강 대교 건설비용 전액을 중국 측이 부담하는 조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설 지점을 북한이 양보했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랑터우가 유력한 입지로 거론되어 왔음.

● 北, 풍력에너지 개발에 관심(12/4, 조선신보)

- 전력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풍력에너지 개발을 위해 국제사회와 교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조선신보는 4일 “현재 조선에서는 풍력에너지 개발, 이용을 위한 국제적 협조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며 “세계풍력에너지협회(WWEA)와 독일교회개발봉사 그리고 중국의 풍력에너지 설비협회 등이 연계 대상”이라고 소개
- 북한은 또 올해 4월 상하이에서 열린 제3차 국제풍력에너지전시회에 대표단을 파견, 세계풍력에너지협회 및 중국 전문가들과 소형 풍력발전기 생산, 인력양성 등 문제를 논의했다고 신문은 전언
- 조선신보는 “지금 국내의 해당 부문에서는 풍력에너지에 관한 정보의 보급에 주력하는 한편 풍력발전의 본보기 단위를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사업도 밀고 나가고 있다”고 소개, 북한이 2007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하고 있는 ‘농촌에너지와 깨끗한 환경본보기 창조를 위한 대상계획’사업도 풍력에너지 이용과 연관돼 있음.
- 이 사업은 평양 국제새기술경제정보센터(PIINTEC)가 주도하고 있는데 이 센터는 2003년 10월 환경보호와 에너지 개발, 정보기술(IT)·원예·유기농 부문의 국제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음. 이 센터는 2005년 세계풍력에너지협회와 국제유기농연맹(IFOAM)에 가입했고, 2006년 1월에는 ‘지속개발을 위한 세계에너지네트워크’(GNESD)의 일원이 됐음.
- 조선신보는 “앞으로도 조선측은 재생에너지 생산 기술과 그 활용 방법에 대해 유럽의 대학, 전문기관, 기업 등과 교류, 연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도

● 북한도 저탄소 녹색성장 관심(2009년 11월호, 천리마)

- ‘천리마’ 11월호는 ‘세계적 추세로 되고 있는 저탄소 경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저탄소 경제의 개념과 세계적 추세를 소개하고 필요성을 강조, 이 잡지는 먼저 저탄소 경제를 “한마디로 말해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방출량을 최소화하는 경제”라고 정의
- 잡지는 이어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며 공장이 많이 건설되고 새로운 공업 부문이 끊임없이 생겨남에 따라 자연환경이 파괴되며 육지의 사막화, 지구 온난화 같은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켜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

고 있다”며 저탄소 경제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

● **北, 유엔 두만강 개발계획 탈퇴(12/2, NHK방송)**

- 북한이 유엔개발계획(UNDP)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중국·러시아 3국 국경 개발계획에서 탈퇴했다고 일본의 NHK방송이 2일 보도, UNDP가 추진하고 있는 북·중·러 3국 국경개발개발계획은 두만강 유역에 대규모 공단 등을 개발하는 ‘두만강 개발계획’임.
- 두만강 유역은 북·중·러 3국과 한국·몽골을 포함한 5개국이 17년 전부터 공동 개발계획을 추진해 왔음. 특히 중국은 이 계획에 대해 다양한 구제안을 내놓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음. 하지만 북한은 올 초 이 개발계획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다고 방송은 전언
- 북한이 탈퇴한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두만강 유역 개발로 국경 지역에서 물적·인적 교류가 활발해질 경우 사상 통제와 주민 통제에 문제가 생긴다는 내부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음. 일각에서는 유엔이 북한의 지난 4월 로켓 발사와 5월의 핵실험과 관련 제재를 가하자 이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음.

● **北고려호텔 앞 음식점거리 리모델링 마쳐(12/2, 조선중앙통신)**

- 평양 고려호텔 앞 창광 음식점거리가 리모델링을 마치고 1일 영업을 시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 통신은 “본래의 건축형식을 살리면서 인민들의 문화적 요구와 매개 식당의 특성에 맞게 개진된 거리는 그 주변의 고층건물, 살림집(주택)과 한 데 어울려 경쾌하고 세련된 감을 준다”고 소개, “이번에 최신 주방설비와 집기류, 봉사비품들을 갖췄고 내·외부 불장식도 잘 해놓았다”고 강조

라. 군사 관련

● **北통신, 南 군사훈련 맹비난(1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일 남한군이 휴전선 인접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다며 ‘북침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고 이는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라고 비난

- 통신은 이날 '군사소식통'을 인용, "11월 30일부터 '쌍룡부대'가 춘천과 화천일대를 작전무대로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을 진입"했으며 "11월 27일 파주시 문산에서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20여 문의 105mm포를 기동시켰다"면서 "최전연(선) 일대에서 벌어지는 남조선 괴뢰군 호전광들의 북침 연습은 자주,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
- 통신은 비난에서 지난 8월 하순 대남비난 용어를 순화해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괴뢰군 무장악당'이라는 용어를 다시 사용

마. 사회·문화 관련

● 北, 中고전 '홍루몽' 영화로 제작(1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올해 '조(북)·중 친선의 해'를 맞아 가극으로 만들었던 중국 고전소설 홍루몽을 영화로 제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 통신은 "조선예술영화촬영소가 예술영화 홍루몽 제1·2부를 만들어 내놓았다"며 "피바다 가극단이 조·중 친선의 해인 올해 중국의 유명한 소설을 각색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재창조한 가극을 옮긴 것"이라고 설명

● 평양 시내 비교적 평온(12/6, 연합)

- 북한 당국이 11월 30일 화폐 개혁을 단행한 직후 대북지원 사업 모니터링차 평양을 방문했던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5일 "평양 시내가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였다"고 전언
- 이 단체 대표는 북한 주민들이 "환전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며 방북 기간인 지난 3, 4일 자신들이 묵은 "양각도호텔 내부에서 뿐 아니라 바깥 식당과 매대 선물코너에서도 이전에 하던 것처럼 유료화와 달러화·위안화를 그대로 썼다"고 소개
- 북한의 중앙은행 조성현 책임부원은 화폐 개혁과 관련해 12월 4일 조선신보와 회견에서 앞으로 취할 새로운 조치에 언급, "앞으로는 일체 상점, 식당 등에서 외화로 주고받는 일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외국인이나 해외동포들이 가는 상점, 식당에서도 화폐교환소에서 외화를 조선돈으로 교환하여 쓰게 되어있다. 인차(곧) 그렇게 될 것이다"고 밝힌 바 있음.

● **북한서 어린이 오리털옷 인기(12/4, 조선신보)**

- 가볍고 따뜻한 오리털로 만든 어린이옷이 무거운 목화솜옷 일색인 북한에서 호평받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4일 평양지국발로 보도
- 신문은 '환영받는 어린이용 오리털솜옷'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수봉화 피복공장이 만든 오리털옷을 소개, 신문은 "문수봉화 피복공장은 원래 계절별 여성옷을 질 높고 제작하는 것으로 이름났다"며 "이번에는 뛰어난 감성의 과녁을 어린이들에게 맞췄다"고 소개, "새 제품은 가벼우면서도 보온성이 높으며 몸매와 얼굴을 귀엽게 해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도

● **북한 신의주에 신종플루 유행 주장(12/4, 연합)**

- '좋은벗들'은 3일 소식지에서,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신종 독감이 돌고 있다"면서 "의사들이 집집마다 돌면서 역학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힘. 이 단체는 신형 독감이 돼지 바이러스에서 발생한 독감이라고 보도, 신종 플루가 애초 돼지 독감(swine flu)으로도 불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의주에 돌고 있는 신종 독감은 신종 플루인 것으로 추정됨.
- 이 단체는 "일반 감기처럼 시작해 기침이 심해지고, 발열 현상에 뼈마디가 쑤시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치료제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최근 단행된 화폐 교환으로 약조차 살 수 없는 실정이라고 전언
- 세계보건기구(WHO)는 북한에서 신종 플루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사실 확인 작업에 나섰다. WHO의 니키 알렉산더 공보관은 "아직 환자 발생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면서 "북한을 담당하는 지역 사무소의 전문가들에게 사실을 확인토록 지시했다"고 밝힘.
- 세계보건기구는 이에 앞서 지난 10월 미국을 비롯한 선진 9개국이 비축한 백신을 필요한 국가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으며, 북한에도 이르면 연내에 처음으로 신종플루 백신을 지원할 예정이었음.

● **北만수대창작사, 호주 아·태미술전 출품(12/4,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최고의 미술가단체인 '만수대창작사'가 호주 브리즈번 소재 국립미술관 '퀸즐랜드 아트 갤러리'에서 5일 개막하는 '제6회 아시아·태평양 현대 미술 트리엔날레'에 회화와 조각 등의 작품을 출품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

- 퀸즐랜드 아트갤러리의 아밀리에 군텔라크 공보관은 RFA와 인터뷰에서 “북한 최고의 미술창작 단체로 알려진 만수대창작사가 내년 4월까지 계속 되는 이번 전시회에 회화와 조각, 포스터 등 현대 미술 작품을 다수 출품했다”고 밝힘.
- 이 전시회에 작품을 내놓은 만수대창작사 작가는 강재원, 황인재, 김영강, 조영선, 장히로, 임혁, 채장호, 오성규, 김형일, 김기철 10명임.
- 군텔라크 공보관은 “이번 전시회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건물 외벽을 다시 칠하고 있는 장면을 그린 조영선 작가의 회화 ‘건설장’을 비롯해 학교와 극장의 보수 공사 장면을 묘사한 그림 등 북한의 사회, 정치적 상황을 담은 작품도 다수 선보인다”고 소개

● 北, 역사유적 보수·복원(12/3, 조선중앙통신)

- 올해 가을에 북한 각지에서 대대적인 유적 보수·복원 공사가 이뤄져 태백산성(황해북도 평산군 소재) 등 7개의 옛성이 원상 복구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
- 통신은 “올해 가을철에만 전국적으로 7개의 옛성과 70여 기의 무덤이 원상 복구되고 1천170여 개소의 천연기념물 보존관리, 유적건물 대보수와 문화보존시설물 설치가 끝났다”고 전언
- 통신은 보수·복원 공사가 끝난 곳으로 황해북도 평산군 공룡발자리(발자국) 화석 보존관, 연탄군 심원사 보광전, 강원도 금강군 불지암, 함경남도 북청군 광제사 대웅전, 영광군 불지암 등을 소개

● 北 화폐 교환 저조, 주민들 저항 표현(12/3, 연합뉴스)

- 북한에서 지난 1일부터 새 화폐 교환이 시작됐으나 화폐 개혁 조치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주민들이 교환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으며 군 당국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비를 대폭 강화, 북한 내부에 긴장감이 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 3일 신의주 접경 지역인 중국 단둥(丹東) 지역 북한 무역상과 대북 무역상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신의주를 비롯한 북한 전역에서 새 화폐 교환이 이뤄지고 있지만 갑작스런 조치에 충격과 허탈감에 빠진 상당수 주민이 교환을 꺼리고 있음.
- 대북 무역상들은 “겉으로는 평온한 모습이지만 어렵게 벌어들인 돈 상당

액이 휴짓조각이 될 처지에 놓였다는 생각에 주민들이 당국의 조치에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6일 이후에는 구권 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환전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조선 중앙은행 저금소들이 한산한 모습”이라고 전언

- 반면 뒷거래를 통해 환전 규모를 늘리려는 주민들이 줄을 대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은행 직원들의 ‘몸값’은 치솟았음. 북한 당국은 또 새 화폐가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의주 등 중국 접경 지역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
- 한 북한 무역상은 “북한 화폐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것이 불법이었으나 이전에는 별다른 통제가 없었다”며 “한국을 비롯한 해외 언론의 관심이 증폭되자 새 화폐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변경 무역상들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해 신의주 세관에는 긴장감마저 들고 있다”고 설명

● **북한, 동아시아게임에 7개 종목 76명 파견(12/2, 연합)**

- 5일 개막하는 2009홍콩동아시아게임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의 규모가 드러났음. 홍콩동아시아게임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은 육상과 다이빙, 축구, 유도, 조정, 역도, 조정 등 7개 종목에 선수 76명을 출전시키는 것으로 확인해줌. 감독과 코치, 본부임원을 합하더라도 10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이 같은 규모는 4년 전 마카오 동아시아게임 당시 11개 종목 선수와 임원 150명보다 대폭 축소된 인원임.

● **北, ‘세계 에이즈의 날’ 행사(1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행사에 참가한 북한 내각과 중앙기관, 근로단체 일꾼(간부)과 북한 주재 국제기구 대표부 요원들은 ‘우리나라(북한)에서 에이즈 예방통제 활동’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들은 뒤 녹화편집물 ‘에이즈에 대하여’를 감상했다고 통신은 전언
- 리봉훈 보건성 부상은 연설을 통해 북한에서 에이즈 예방을 위한 감시, 통제 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긴밀한 연계 밑에 에이즈 예방사업에 계속 국가적인 관심을 돌릴 것”이라고 언급

- 北 평양민속공원에 역사유물 모형물 설치(11/30, 조선신보)
 - 북한 당국이 평양 대성산 기슭에 조성 중인 평양민속공원에 고구려 시기의 불상을 비롯해 안중근 열사와 서예가 김정희의 글씨체 등을 실물 그대로 재현한 유적, 유물 모형물이 들어선다고 조선신보가 30일 보도
 - 신문은 “지금 공원 건설과 더불어 공원에 설치할 역사 유적의 모형 창작이 한창”이라며 “고구려 시기의 불상 조각을 비롯해 촛대, 향로, 향합, 시주함, 목탁, 벽화, 광배를 비롯한 역사 유적, 유물들이 실물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밝힘.
 - 신문은 이어 단군, 고주몽을 비롯한 역사적 인물들의 초상은 물론 “고국원 왕 무덤벽화(250m²)의 모사품도 웅장하게 형상되고 있다”며 특히 “금동불상의 모형 제작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고 있다”고 전임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및 유엔안보리 관련

- 문타폰 유엔보고관, 北인권엔 관심 가져야(12/4, 연합뉴스)
 - 비릿 문타폰(Vitit 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은 오는 7일 실시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앞두고 탈북자, 강제수용소 등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
 -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홈페이지에 지난 1일자로 게재한 메시지를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 내 인도주의적 식량 원조, 탈북자 인권, 감옥 등 수용시설 현대화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
 -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식량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감독하에서 인도주의적 원조가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문제와, 망명지나 피난처를 찾아 탈북을 시도하거나 강제로 송환된 사람들에 대한 당국의 제재를 중단하도록 하는 것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힘. 또 누구나 인도주의적인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수용시설을 현대화하는 것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안, 유엔

특별보고관 및 관련 위원회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관심과 북한의 실효성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지적

● 美 골드버그, 北 은행·기업 WMD 확산 조장(12/2,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를 총괄해온 필립 골드버그 국무부 정보조사 담당 차관보 후보자가 “북한의 국영은행과 기업이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
- 골드버그 후보자는 이날 열린 상원 인준 청문회에 앞서 정보위원회에 미리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여하는 금융 조직은 주로 정부 기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이들이 종종 합법적인 비즈니스를 통해 확산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RFA는 전언
- 그는 대북 제재 조정관으로 일한 자신의 경험과 관련해 “대북 제재와 관련해 금지된 군수물자 선적을 막고 금융 제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실무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고 회고

나. 북·미 관계

● 조선신보, 보즈워스 방북 핵심의제는 ‘평화’(12/5, 조선신보)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앞두고 조선신보는 5일 이번 북미 양자대화에서 “‘평화’는 마땅히 외면할 수 없는 주제”라고 강조
- 조선신보는 ‘교전국들의 직담판, 주제는 평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해서는 결국 교전쌍방이며 핵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인 조(북)미가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 신문은 지난 8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조미 사이에 현안문제가 깊이 있게 논의되었다”며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은 “그 연장선 위에 있다”고 밝히고 클린턴 정권 시절인 지난 2000년 10월 적대관계 종식과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언급한 북미 공동 코뮈니케를 채택한 사실을 상기
- 신문은 또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조·미 수뇌자(정상) 사이에 이미 ‘간접대화’가 이루어진 셈”이라며 “8월의 대화에서는 당연히 관계개선에 관한 조선측의 견해도 제시됐을 것이고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파견

은 조선이 제시한 견해에 대한 미국측의 회답이 전달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

- 신문은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는 “유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고 다자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상정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과거의 경험에 비춰 볼 때 각자가 준비 없이 맹목적으로 모여들어 다자회담을 열면 결말이 나지 않을 공산이 높다고 주장, 따라서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해서는 결국 교전 쌍방이며 핵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인 조미가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거듭 제기

● 美노벨상 과학자, 北김책공대서 강연(12/5, 자유아시아방송)

- 2003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피터 아그리 미국 과학진흥협회(AAAS) 회장이 다음주 방북해 북한의 대표적 과학기술 고등교육기관인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북한 과학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강의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보도
- 방송은 AAAS 관계자의 말을 인용, 아그리 회장이 이끄는 미국 과학자 대표단이 다음주 중반 “미국과 북한 간 과학 분야의 연구협력과 학술교류 증진을 논의하기 위해 방북해 북한 관리와 과학자를 두루 면담하고 오는 16일을 전후해 귀국할 예정”이라며 소개
- 방북단 관계자는 이번 과학자들의 방북이 ‘미북 과학교류 컨소시엄’이라는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오는 8일~10일로 예정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

● 美국무부, 보즈워스, 8~10일에 방북(12/4, 연합)

- 미국 국무부는 3일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는 12월 8~10일 평양에 머물며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등을 촉구하기 위한 북미대화를 갖는다고 발표
-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보즈워스 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오는 8일 평양에 도착, 북한 당국자와 만나 6자회담 재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
- 토너 부대변인은 보즈워스 대표가 평양체류 중 접촉할 북측 당국자에 대해

“격에 걸맞은 고위 인사”라고만 전하고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이름은 밝히지 않음. 보즈워스 대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임이 두텁고 핵 협상을 실질적으로 총괄해온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만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임.

- 그는 ‘보즈워스 대표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할 가능성’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답변, 토너 부대변인은 “보즈워스 대표 등은 평양방문 이후 10일 서울, 11일 베이징, 12일 도쿄, 13일 모스크바 등을 차례로 방문해 후속 협의를 하고 15일 워싱턴 DC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힘.
- 보즈워스 대표는 앞서 주말인 오는 5일 워싱턴 DC를 출발, 6일 오후 서울에 도착해 한국 당국자들과 방북 사전협의를 마친 후 8일 오산 공군기지에서 특별전용기를 타고 평양으로 들어갈 예정임.
- 토너 부대변인은 “방북 대표단에는 성 김 6자회담 대사와 국가안보회의(NSC), 국방부 당국자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 이와 관련, 국무부 당국자는 “보즈워스 대표, 성 김 대사를 포함해 국무부 3명, NSC 1명, 국방부 1명 등 모두 5명으로 대표단이 구성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 대표단에는 다니엘 러셀 NSC 아태담당 보좌관, 데릭 미첼 국방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

● 北고위관리, 美에 평화조약 체결 요구(12/3, 요미우리신문)

- 북한이 11월 하순 방북한 미국의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일행에게 북·미 간 평화조약 체결을 요청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북·미 협상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3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북한의 리근 외무성 미주국장은 11월 이들을 만난 자리에서 평화 조약 체결과 북한에 대한 투자를 요청, 리근 국장은 특히 프리처드 소장 등에게 “미국이 항구적인 평화 조약 체결을 확약하면 핵폐기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제안했다고 신문은 소개

● 美대사, 보즈워스 방북은 6자들 안에서(12/3, 연합)

-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3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해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6자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언급

- 스티븐스 대사는 “그의 방북은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려는 것이며, 동시에 북한이 9·19 공동성명을 다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받아내는 것”이라고 밝힘. 그는 “한반도를 비핵화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북한이 밝히도록 하는 것도 이번 방북의 목적”이라며 “미국은 9·19 공동성명의 이행과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추구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설명
- 그는 특히 “우리는 6자회담이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최고의 기구라는 데 대한 신념도 확실하다”며 “한국과 미국은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을 포함한 6자회담 관계국들과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
-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 그는 “평화체제는 조약이든 협정이든 이 문제를 말할 때 한미동맹은 항상 논의에서 (얘기할 필요도 없는) 열외로, 이는 변하지 않는 확약”이라며 한국이 반드시 포함될 것임을 시사
- 북한이 최근 단행한 것으로 알려진 화폐 개혁에 대해선 “북한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고통 받는다고 하니) 안타깝다”고 언급

● **조선신보, 북·미 간 최대 현안은 평화체제 수립(12/2,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일 ‘비핵화 첫 절차는 평화보장체제 수립’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북)·미 회담에 임하는 조선측의 최대 관심사는 항상 평화이며 그 외의 잡다한 문제는 주된 의제로 상정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북미 양자대화의 최대 현안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라고 주장
- 신문은 “교전국들 사이의 관계 문제는 철두철미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풀린다”며 북미 간의 평화보장체제 수립은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의 출발점이라고 주장, 신문은 특히 ‘대청해전’을 거론하면서 “북남간의 무장 충돌은 조선반도의 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재확인케 했다”며 “우발적인 충돌과 전쟁재발의 우려가 있는 한 조선측이 자위적 억제력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일을 있을 수 없다”고 못박음.
- 또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인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에 대해 “미국이 조선반도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진실로 핵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평화보장체제의 수립이 근선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

● 보즈워스, 北에 연락사무소 제기할 수도(12/1, 자유아시아방송)

- 오는 8일 방북하는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에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
- 이 방송은 미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시 박사를 인용, “현재 오바마 행정부 내에 북한에 연락사무소나 이익대표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보즈워스가 연락사무소를 북한에 설치하는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닉시 박사는 “미국은 지난 90년대부터 북한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려 했다”며 “2007년 미 국무부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도 북측에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를 제기했었다”고 언급

● 디트라니, WMD확산저지 새 임무맡아(12/1, 연합)

-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 시절 대북협상 특사를 지냈던 조지프 디트라니 국가정보국(DNI) 북한담당관이 DNI산하 국가확산대책센터(NCPC) 소장에 임명됨.
- 블레어 소장은 “디트라니 담당관은 30년 이상 국가정보 및 외교와 관련해 풍부한 경험을 쌓아 왔고, 특히 2006년 신설된 DNI의 북한담당관실을 이끌면서 유능하게 일해 왔다”고 평가
- 디트라니 신임 NCPC 소장은 앞으로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맞선 통합적인 전략과 조치를 개발하는 동시에 WMD 확산을 예측, 무력화시키는 임무를 맡게 됨.

다. 북·중 관계

● 中, 북·미대화서 6자복귀 일정 기대(12/1, 연합)

- 중국은 오는 8일로 예정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시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시기를 표명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북·미 양자대화에서 6자회담 복귀 시기를 밝힐 것이라던 일본 언론 보도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현재로서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우리는 이 보도가 사실이길

희망한다”며 강한 기대감을 표명

- 친 대변인은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가 지난 10월 방북했을 때 북한이 6자회담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과 함께 6자회담을 포함한 양자 및 다자회담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중국과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추진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으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새로운 조건을 만들었다”고 평가
- 그는 “북·미 양자대화는 6자회담 진전의 일부분이고 6자회담 틀의 일부분”이라고 규정하면서 “중국은 북·미대화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하고 이를 통해 6자회담이 재개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언급
- 친 대변인은 “6자회담 진전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는 중국이 줄기차게 힘써 추진해온 목표”라고 강조

● 中, 화폐 개혁은 北내정, 논평 않겠다(12/1, 연합)

- 중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30일자로 화폐 개혁을 단행한 것과 관련, 북한의 내정이라면서 공식 논평을 거부,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화폐 개혁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북한이 어떤 화폐를 사용하든 간에 이는 북한의 내정이므로 논평하지 않겠다”고 답변
- 친 대변인은 이번 화폐 개혁이 북·중 경제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묻는 말에도 “중국과 북한은 우호적인 이웃국가로서 과거와 다름없이 평등, 상생의 원칙하에서 북한과 경제무역, 교역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원칙적으로 답변
- 신화통신은 1일 북한이 평양 주재 각국 외국공관들에 대해 기존 화폐 사용을 중단하니 새로운 화폐로 교환할 것을 공식 통보했다고 보도해 북한이 화폐 개혁을 단행했음이 사실상 확인됨.

● 北최태복, 中 전인대 부위원장 만나(11/30, 조선중앙통신)

-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30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예방해온 천즈리(陳至立)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전인대 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담화에는 북한 측에서 홍선옥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성자립 조(북)·중 친선의원단 위원장이, 중국 측에서 류샤오밍(劉曉明) 주북 중국대사 등이 각각 배석했다고 통신은 전언
- 통신은 중국 전인대 대표단이 이날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함.

라. 북·러 관계

● 러 상원의장, 北 6자회담 복귀 준비 안 돼(12/2, 리아 노보스티 통신)

- 러시아 연방의회(상원) 세르게이 미로노프 의장은 2일 북한 지도부는 아직 6자회담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힘. 11월 25일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다녀온 미로노프 상원의장은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변
- 그는 또 “북한 지도부와 만나 대화를 나눴는데 전에 없이 강경한 어조였다”며 “이런 태도는 러시아가 지난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동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도 없었다”고 소개

마. 북·일 관계

● 北, 美·日 ‘후텐마 갈등’ 관심(10/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미군기지 이설(전)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줄다리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후텐마 비행장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갈등상을 보도했다고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전언
- 신문은 “일본은 오래전 약속한 후텐마 미군기지 이설을 질질 끌고 있고 미국은 이를 매우 언짢게 여기면서 빨리 약속을 지키라고 압력을 들이대고 있다”고 보도, 신문은 원안대로 후텐마 기지를 이전할 경우 일본은 미국의 세계지배 전략기지로 전략해 미국의 군사통제에 더 깊숙이 빠져들게 돼 여기서 벗어나 독자적 군사행동을 하려는 것이 일본의 진정한 속내라고 분석
-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을 그냥 내버려두면 종당에는 미국의 군사적 경쟁자, 위협세력으로 될 수 있다”며 “일본을 손아귀에 틀어쥐고 이곳을 대조선, 대아시아전략 실현의 군사전략적 거점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주

장하고 “후텐마 기지 등 주일미군 재편 계획이 미일의 줄다리기 속에서 추진된다고 해도 서로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미일 모순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

● **日경찰, 北에 화장품 등 수출한 2명 체포(12/1, 연합뉴스)**

- 일본 경찰은 북한에 화장품, 식품, 의류 등을 수출, 대북 교역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일본인 여성 2명을 체포했다고 밝힘. 경찰에 따르면 수출업체 간부인 나가니시 노리코(62)와 동료 이케야마 마사키(73)는 지난해 중국을 통해 북한에 화장품을 수출한 데 이어 올 8월 의류와 식품을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음. 경찰은 그러나 수출업체의 이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음. 일본은 북한 집권층을 겨냥, 2006년부터 쇠고기, 캐비아(상어알) 등 사치품의 대북수출을 금지하고 있음.

● **北신문, 日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 비난(1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주제넘게 놀지 말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에 대해 “푼수 없는 짓”이라고 주장, 이 신문은 “일본은 지금까지 저들의 과거죄행에 대해 성근한(성실한) 반성도, 응당한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
- 신문은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은 유엔을 분열시키고 국제무대에서 군국주의의 새로운 전쟁을 불러오는 위협천만한 일로 될 것”이라며 “상임이사국 확대 문제를 논의하는데서 일본은 마땅히 제외되어야 할 첫 대상”이라고 주장

3 대남정세

● **남북 공동시찰 대상 中·베트남 공단 결정(12/3, 연합뉴스)**

- 남북이 12월 중순 공동으로 시찰할 해외공단이 중국의 칭다오와 선전, 베트남의 엔퐁 산업단지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짐.
- 정부 소식통은 3일 “남북 해외공단 공동시찰단은 오는 12일부터 열흘간 중국의 칭다오와 선전, 베트남의 엔퐁 산업단지를 둘러볼 예정”이라며 “이들

은 시찰활동 중 개성공단의 토지임대료와 임금, 근로 조건 등에 대해 폭넓게 의논할 계획”이라고 설명, 이 소식통은 그러나 막판 조율 단계에서 시찰 대상 공단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언

- 시찰단의 단장은 지난 6~7월 세 차례 진행된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였던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대표가 맡게 된 것으로 전해짐. 한편, 공동시찰을 위한 선발대가 중국과 베트남 현지 점검을 위해 2일 출국

● 서해상 구조 북한군 중사 北송환(12/2, 연합)

-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우리 해군 함정에 구조된 북한군 중사가 2일 오전 11시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 유엔군사령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군 중사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요원과 북한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내 군사분계선(MDL)을 통해 북한으로 넘어 갔다”고 밝힘.
- 북한군 중사는 판문점 경비부대 대대장의 안내에 따라 MDL로 접근한 뒤 MDL을 넘어 북한군 장교의 뒤를 따라 아무런 행동이나 말 없이 판문각으로 들어갔다고 이 관계자는 전언
- 앞서 12월 1일 유엔사 군정위와 중립국감독위가 북한군 중사를 면담했으며 그는 북한으로 돌아가길 희망한 것으로 전해짐. 북한군 중사는 11월 29일 스티로폼 뗏목을 타고 승어잡이 그물을 설치 중에 급류에 휘말려 표류하다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인 연평도 북방 1마일 해상에서 구조됐음.

● 대청해전으로 중단된 北모래반입 재개(12/2, 연합)

- 대청해전으로 중단됐던 우리 선박의 북한산 모래 채취가 재개된 것으로 알려짐. 통일부 당국자는 2일 “북한산 모래 반입이 대청해전 발발 약 2주만인 11월 25일 재개됐다”며 “이후 동해 고성, 서해 해주 등에서 우리 측 모래채취선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힘.
- 당국자는 “업체들이 북측에 투자(대금지불)해 놓고 투자한 만큼의 모래를 들여오지 못한 경우에 한해 모래채취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며 “기투자분 회수가 끝난 뒤에도 계속 모래반입을 허용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
- 북한 해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우리 측 모래채취선은 11월 10일 대청해전이 발발하자 자체 판단에 따라 11일 인천항을 통해 귀환했었음.

● 대북지원단체, 종자 공급 끊겨 北농업 타격(12/1, 연합)

- 정부의 대북 물자반출 제한으로 옥수수 등의 종자 지원까지 끊겨 농업 분야 협력사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대북지원단체들이 주장, 이들 단체는 의약품과 취약계층 긴급구호 식량의 반출을 허용하면서 정작 북한 주민의 만성적 식량난 완화에 도움이 되는 종자와 농자재 반출을 불허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

12.07-12.13

12월
2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및 유엔안보리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러 관계
- 마. 북·일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평양시내 현지도, 산학협력 강조(12/1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곡산공장과 김일성종합대학 내 수영관 등 평양 시내를 현지도하고 산학협력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식료품 제조공장으로 최근 리모델링을 마친 평양곡산공장을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본 뒤 생산공정의 과학화와 현대화를 강조하면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대학과 과학연구기관에서 이 사업을 주인다운 입장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
- 그는 또 김일성대 수영관을 방문해서도 “이 대학의 졸업생들이 지금 주체적 CNC(컴퓨터수치제어)화를 실현하는 사업을 비롯해 부강조국 건설의 전투장 마다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며 김일성종합대학 출신들이 산업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산학협력이 만족감을 표시
- 김정일 위원장의 평양 시내 현지도에는 최영립 평양시 당 책임비서, 김기남·최태복 당 중앙위 비서, 여동생인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매제인 장성택 당 행정부장, 박남기 당 재정계획부장, 박명선 내각 부총리 등이 수행

● 김정일, 연일 강계시 산업시설 시찰(12/1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중 국경에 가까운 자강도 강계시 산업시설을 잇따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먼저 장자강공작기계공장을 찾아 “정보산업시대 요구에 맞게 공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하는 동시에 최신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선차적 관심을 돌려 생산자들의 기술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
- 이어 김 위원장은 강계편직공장을 방문,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먹는 문제에 못지 않게 중요한 2대부문의 하나이므로 생산을 부단히 늘려야 한다”고 강조
- 강계포도술공장을 찾은 김 위원장은 새로 조성한 맥주와 막걸리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만족을 표시했으며 “이 공장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만큼 자기의 특산인 포도술의 고유한 맛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 시찰에는 박도춘 자강도 당 위원회 책임비서, 김기남 노동당 비서,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매제인 장성택 당 행정부장, 박남기 당 재정계획부장 등이 수행

● 김정일, 자강도 산업시설 현지지도(12/1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부 지방인 자강도 강계시의 '강계트락토르(트랙터) 종합공장'과 새로 건설된 강계목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우선 강계트락토르종합공장의 일꾼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공장의 CNC(컴퓨터수치제어)화를 실현함으로써 첨단 돌파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들을 평가했다고 통신은 전언
- 김 위원장은 또 염소와 토끼, 오리, 젖소 등을 사육하는 종합적인 대규모 축산기지인 강계목장을 둘러보면서 "강계목장은 강계시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중요한 몫을 맡고 있다"면서 목장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강력적인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보도
- 시찰에는 박도춘 자강도당 위원회 책임비서,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매제인 장성택 당 행정부장, 당 부장인 박남기 등이 수행

● 한해 '두 살' 먹은 김정은(12/11, NHK)

- 김정일 위원장의 3남 '정은'씨의 나이에 대해 북한 당국이 지난 6월경부터 당초 설명해 왔던 것보다 한 살 더 많은 27세로 변경했다고, 일본 NHK가 북한 내부 동향에 밝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
- NHK에 따르면 북한 당국자들은 지난 6월쯤부터 평양 주재 외교관들에게 정은씨의 출생연도를 1982년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동안에는 1983년 1월 8일생이라고 설명해 왔음.
- NHK는 그 배경과 관련, 북한이 '강성대국 원년(元年)'으로 선전하고 있는 2012년에 30세로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2012년은 고(故) 김일성 주석의 출생 100주년에 김정일 위원장이 70세가 되는 해임. 북한 당국자들은 실제 "김정일 위원장이 70세가 되는 2012년에 정은씨가 30세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고 함.

- NHK는 “북한 지도부는 정은씨가 조부의 탄생 100년이 되는 해에 부친과 함께 아주 좋은 나이가 된다는 점을 강조해 카리스마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과거에도 김정일 위원장의 나이를 바꾼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은씨의 나이를 2012년에 맞춰 바꾼 것은 후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보도
- 김정일 위원장의 출생연도는 1942년 2월 16일로 알려져 있지만, 1941년생이라는 설도 있음.
- NHK는 정은씨가 지난 6월 중국 베이징을 방문,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을 만났다고 최근 보도

나. 정치 관련

● 北, DMZ 생태·평화벨트 조성구상 비난(12/12,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12일 ‘수치도 모르는 자들의 기발한 발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이달 초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를 생태, 평화벨트로 조성해 세계적인 관광지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과 관련, “DMZ를 돈벌이공간으로 이용하려는 흥계”라고 비난
- 신문은 군사적 대결의 상징인 DMZ를 돈벌이 공간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동족대결에 환장한 자들의 또 하나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추태”라며 “남조선의 보수당국이 내외의 관광객들을 DMZ에 끌어들이려 하는 데는 관광객들을 이용해 반공화국 모락소동을 일층 강화하고 대결을 고취하려는 불순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

● 北, 美와 견해차 좁힌 대화였다(12/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1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통해 스티븐 보즈워스(Bosworth)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과 관련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향후 미국과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힘.
- 외무성 대변인은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기간에 “실무적이고 솔직한 논의를 통해 쌍방이 상호 이해를 깊이 했으며 서로의 견해차를 좁히고 공통점도 적지 않게 찾게 됐다”고 설명, 그는 특히 “6자회담 재개 필요성과 9·19 공

동성명 이행의 중요성과 관련해 일련의 공동 인식이 이뤄졌다”며 “조(북)·미 쌍방은 남아 있는 차이점들을 좁히기 위해 앞으로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고 했다고 언급

● **조선신보, 북·미 평화관계 확신서야 다자회담 나가(12/11,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1일 ‘조·미대화, 합리적인 해결방도 찾기’라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조선(북한)은 북미간의 교전관계가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된다는 확신이 서야만 다자회담에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평양회담에서는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하지만 그것이 현실화되자면 조·미 사이의 적대관계 청산과 신뢰조성을 위한 첫걸음이 잘 준비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현 시점에서 6자회담을 무작정 재개해도 평화문제가 풀린다는 보장은 없다”며 “지난 6년간의 회담과정이 그것을 응변으로 말해줬다”고 밝혀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한반도 평화체제 등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
- 신문은 “(미국은) 평화체제 문제를 9·19 공동성명의 한 개 요소로 언급하고 있다”며 그러나 “조·미 사이의 적대관계가 청산되고 신뢰가 조성되지 않고 있는 조건에서는 공동성명에 ‘평화체제’가 명기되어있다 하더라도 그 실현은 구체적인 의제로 상정될 수 없었다”고 주장
- 조선신보는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에 대해 “실무적인 성격을 띠었지만 (북·미) 쌍방이 앞으로 정치적 결단을 행동에 옮기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좋은 출발을 뒀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

● **노동신문, 南, 남북관계 외면하면 단호한 결심(11/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아량과 선의를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남조선의 보수 당국이 화해와 관계개선을 외면하고 대결로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도 단호히 결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
- 신문은 “우리는 북남관계를 귀중히 여기지만 결코 그것을 구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아량과 선의를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신문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맺은 공동 보도문, 조의특사방문단 파견, 추석 이산가족 상봉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남조선 당국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며 “그 사이 공식·비공식 접촉과 회담을 통해 우리와 한 합의와 약속을 모두 뒤집어 엮고 간신이 이어지던 민간급 내왕과 협력사업마저 봉쇄했다”고 주장

- 또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실체도 없는 유령에 불과하다”며 “포로문제는 이미 정전협정 체결 때 다 해결된 문제이고 우리 공화국 북반부에는 살길을 찾아온 의거입북자는 있어도, 그 무슨 납북자는 애당초 있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

● 보즈워스 특사 평양 도착(12/8, 조선중앙방송)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8일 오후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방송은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조선 정책 특별대표와 일행이 8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밝혔으나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사실과 공항에서 영접한 북측 인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방송은 내보내던 음악을 끊고 여자 아나운서의 육성으로 보즈워스 일행의 평양 도착 사실을 보도
- 앞서 보즈워스 대표는 8일 오후 2시 2분 오산 공군기지에서 특별전용기를 이용해 평양으로 출발, 보즈워스 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성 김 6자회담 미국 측 대표, 마이클 쉬퍼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대니얼 러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 찰스 루터스 NSC 비확산 담당 보좌관과 기록요원, 통역 등으로 구성

다. 경제 관련

● 北, 휴대전화 가입자 급증, 12만 명 예상(12/9, AFP통신)

- 북한에서 휴대전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년 만에 휴대폰 가입자가 급증해 내년 초까지 12만 명의 이용자를 예상한다고 AFP통신이 9일 보도
- 원래 북한은 2002년 11월부터 평양을 중심으로 휴대폰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정보 통제를 위해 2004년 서비스를 중단했다 했었음. 그러다가 2008년 12월 15일부터 이집트 통신기업인 오라스콤과 북한 정부가 각각 75%, 25%씩 출자해 합작회사 고려링크를 설립, WCDMA방식에 의한 제3세대

휴대폰 서비스를 제공 중임.

- 고려링크 측은 “애초 사업 1년차에는 가입자 5만 명, 3년차에는 12만 명 달성을 목표로 했지만 11개월 동안 7만 명이 넘어 기대 이상의 성공”이라고 말했다고 최근 방북했던 동아시아학 연구원 아라마키 마사유키(荒卷正行)는 전언
- 휴대폰은 중국산으로 가격은 200유로(약 34만 원). 선불(先拂)카드를 통해 통화가 가능하며, 카드 종류는 3유로와 5유로짜리 두 종류가 있음. 민간인은 평양 시내에만 통화가 가능하며, 최근에는 휴대폰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도 시작했다고 함.

● 北 국정가격 공시, kg당 쌀 23원(12/13, 오늘의 북한소식; 데일리NK)

- 북한은 최근 화폐 개혁에 따라 새롭게 책정한 국정가격을 지난 9일 공시했으며 품목별로 보면 kg당 쌀 23원, 옥수수 8원, 밀가루 22원, 돼지고기 45원 등이라고 대북인권단체 ‘좋은벗들’이 13일 보도
- 북한 당국은 앞서 이번 화폐 개혁을 통해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당시 수준으로 물가를 낮추겠다고 지난 4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 밝혔는데, ‘7·1 조치’ 당시 북한 당국이 지정한 쌀 가격은 kg당 44원이었음.
- ‘오늘의 북한소식’에서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공시가격은 kg당 옥수수쌀 12원, 옥수수국수 10원, 두부콩 9~13원, 콩기름 50원, 무 5원, 인조고기 15원, 줄땅콩 10원, 맛내기 한 봉지 45원”이라고 보도
- 소식지는 이어 화폐 개혁 이전인 지난달 28일 주요 도시 지역 쌀값은 구화폐로 “평양 1천 700원, 함흥 1천 850원, 청진 2천 원, 사리원 1천 700원이었다”고 말해 신권대 구권의 교환비율이 1대 100임을 감안하면 쌀값이 화폐 개혁 후 옛날 돈으로 300~600원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 또 이들 네 도시의 화폐 개혁 이전 옥수수, 밀가루, 돼지고기 등의 평균가격을 소식지를 참고해 계산하면 각각 737.5원, 1천 687원, 5천 450원으로 화폐 개혁 후 돼지고기만 가격이 하락하고 나머지는 다 올랐음.
- 소식지는 “현재 북한 주요 도시의 시장가격을 보면 국정가격대로 판매되는 품목이 몇 안된다”며 “거의 대부분 공시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실정”이라고 첨언, 일례로 지난 11일 함경북도 청진시 시장에서는 쌀 1kg에

50원, 옥수수 1kg에 18원 등으로 공시가격보다 2배 이상 비싸게 거래됐다고 소식지는 보도

- 그러나 돼지고기는 공시가격 그대로 판매됐는데 이는 “그동안 농가에서 곡식을 사서 술을 담근 뒤 그 술찌끼로 돼지를 길러 왔으나 화폐 개혁 후 곡물가가 비싸지고 술도 잘 안 팔려 돼지 사육을 포기하는 집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소식지는 설명
- 소식지는 또 화폐 개혁 후 “광산과 탄광의 노동자 월급이 기존 6천 원에서 새 돈으로 8천 원으로 인상됐다”며 “함경북도 탄광지구의 탄부들은 더 이상 부업을 하지 않아도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며 기뻐하고 있다”고 소개
- 그러나 데일리NK는 지난 11일 북한 양강도 내부소식통을 인용, “9일 폐막된 양강도 재정일꾼 실무회의에서 화폐 개혁 직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가격조치가 발표되지 않아 북한 주민들 안에서도 다양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 월 1천 300원에서 2천 500원 사이였던 노동자들의 임금을 (신권) 400원 전후로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발표됐다”면서 “만약 이렇게 된다면 군당 책임비서들의 월급은 1천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전언

● 北, 올해 곡물부족 심각할 듯(12/9, 연합)

- 북한이 올해 심각한 곡물 부족 현상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최근 북한을 다녀온 온 유엔의 한 관계자가 9일 밝힘. 지난주 북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다니엘레 도나티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긴급사업국장은 이날 방콕으로부터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식량 수요를 맞추려면 100만 톤 이상을 수입해야 할 수도 있다고 추산한다”고 설명
- 도나티 국장은 북한의 올해 비료 사용량은 199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농가들이 비료 부족으로 피해를 봤다면서도 올해 중순 몰아닥친 홍수가 수확에 큰 해를 끼쳤다는 지표는 없다고 설명, FAO는 북한에 한 해 식량과 가축 사료, 종자 등을 조달하려면 곡물 510만 톤 가량이 필요하다고 추산

● 北은행, 미화 1달러 신권 35원에 매입(12/9, 오늘의 북한소식; 열린북한방송; 데일리NK)

- 화폐 개혁 이후 북한의 환율이 ‘미화 1달러당 새돈 35원’으로 정해졌다고

대북 인권단체가 전언, ‘좋은벗들’은 9일 소식지에서 “신의주의 한 은행이 지난 7일 미화 100달러를 3천500원에 매입하고 3천800원에 판매했다”고 소개

- 화폐 개혁 전 북한의 공식 환율은 1달러당 140원 수준이었나 암시장 시세는 달러당 3천500원까지 높게 형성돼 있었음. 이번 화폐 개혁이 ‘100대 1’로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공식 환율로 미화 1달러는 북한돈 신권 1.4원 수준이 돼야 함.
- 그런데 신의주 은행에서 적용된 것으로 알려진 환율은 공교롭게도 화폐 개혁 전 북한의 암시장 시세와 비슷함. 이렇게 되면 북한돈 신권의 미달러 대비 가치는 화폐 개혁을 전후해 갑자기 25분의 1로 절하된 셈임.
- ‘좋은벗들’은 또 “신의주에서 화폐교환 첫날인 10월 30일 신권으로 25원 하던 쌀 한 되가 12월 7일에는 80원까지 올랐고, 돼지고기는 1kg에 100원, ‘고양이 담배’(정식명 크레이븐, 북영 합작기업 생산)는 한 곱에 20원에 거래됐다”고 설명
- 한편 북한이 화폐 개혁 단행에 따라 새롭게 책정한 국정가격이 9일 발표된다는 소식도 전해짐. ‘열린북한방송’은 이날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공급소 등 공공시장과 각 지역 종합시장에서 거래되는 생필품의 국정가격이 내각에서 정해져 12월 9일 하달될 것”이라고 밝힘.
- 이 방송은 이어 “국정가격이 발표되지 않아 모든 상거래가 아주 불안정한 상태”라며 “결혼식 등 이미 예정된 관혼상제에 필요한 생필품 값이 불안정해 주민들이 예상치 못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 그러나 “당장에는 세대당 선물 현금 500원과 1인당 백미 7kg이 지급돼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다”고 소개
- ‘데일리NK’는 또 양강도 등지에서 재정일꾼 회의를 열어 화폐 개혁과 관련한 임금 규정 등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북한 당국이 시장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시장 가격이 국정 가격을 넘을 수 없다는 세칙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

● 김책공대, 신형 형광물질 개발(12/7, 우리민족끼리)

- 북한에서 빛에 잠시만 노출해도 10시간 이상 빛을 발하는 신형 형광물질이 개발됐다고 ‘우리민족끼리’가 7일 보도

- 우리민족끼리는 “이전의 형광체들은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안정성이 낮았으며 보충적으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써 인체에도 해로웠다”며 “하지만 이번에 김책공업대학이 개발한 형광체는 종전의 제한성을 극복했다”고 소개, 이어 “종전에 비해 이 형광체의 제조원가는 20분의 1 이하이며 수명은 몇 배에 달한다”며 “이미 도로표지판, 가로등, 시계, 계기 눈금 등 여러 곳에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

● 개천 수백만 톤 석탄매장 확인(12/4, 평양방송)

- 북한 지질학자들이 평안남도 개천군에서 수백만 톤의 석탄 매장량을 새로 확인했다고 평양방송이 4일 보도, 방송은 “조양탄광 일대의 석탄 매장량을 새롭게 확정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벌여 일대의 지질구조를 새롭게 해명하고 심부 석탄 매장량을 수백만 톤으로 확정하는 훌륭한 성과를 이룩했다”고 보도, 방송은 또 채광량 확인에 따라 현재 새로운 탄광 개발설계가 끝나 개발에 착수했다고 전언

●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CNC화(12/7, 조선중앙방송)

- 평안남도 대안군에 위치한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가 북한 최초로 대형 공작기계의 컴퓨터수치제어(CNC)화를 실현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7일 보도
 - 방송은 “16m 짜리 광폭선반을 비롯한 대형기계의 CNC화 실현됨으로써 발전기축 등 제품가공에서 일대 혁신이 일어났다”며 “특히 350t 중량에 10층 아파트 높이만한 특대형 공장기계인 터닝반(turning盤, 수형선반)에 CNC 기술을 도입한 것은 커다란 성과”라고 보도
 - 방송은 “기업소는 CNC 기계들을 이용해서 생산한 효율 높은 발전설비를 영원발전소,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금야강발전소 등 중요 건설장에 보내 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소개

● 도별 식료품 공장 건설(12/6, 노동신문)

- 북한의 각 도에 종합 식료품공장이 들어서 일제히 시제품 생산 단계에 들어갔다고 노동신문이 6일 보도
 - 노동신문은 “지난 5월 착공의 첫 삽을 박은 각 도에서는 150일 전투기간 공사를 시작해 평양시, 함경남도 등지에서 이미 10월 초 설비 시운전에 들어

섰다”고 보도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4월 삼일포특산물공장을 현지지도하며 “모든 도에 종합적인 식품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현 시기 경공업 혁명 방침을 관철하는 기본 문제”라고 지시

● 자체농사 농장 작년 1.3배(12/1, 평양방송)

- 농번기에 외부 노동력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장이 작년의 1.3배로 늘었다고 평양방송이 1일 보도
- 평양방송은 “평양시와 평안남도, 황해남도에서는 분조관리제를 실시해 농장원들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자체로 농사짓는 농장을 확대했다”고 소개, 방송은 또 “150일전투와 100일전투를 이어오며 투쟁열기가 더 높아져 가을걷이 시기에는 모내기철에 비해 500여개나 더 많은 농장들이 지원노력을 받지 않고 영농작업을 진행했다”고 전언

● 김일성대, 여성질병 예방 건강식품 개발(12/7, 우리민족끼리)

-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식물생물학강좌와 이 대학병원 의사들은 최근 식물의 천연활성물질을 이용해 약리작용이나 예방치료 효과가 큰 새로운 복합기능성 건강식품을 연구, 완성했다고 우리민족끼리가 7일 보도
- 이 건강식품은 갱년기 전후 여성들의 건강보호에 좋을 뿐 아니라 유선증, 노년기 골송소증을 비롯한 질병예방에 효과가 있고 핏속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세척하며 말초핏줄을 확장시켜줌으로써 심장혈관계통을 보호하는 데도 좋다고 매체는 소개

라. 군사 관련

● 北, 2차 핵실험서 플루토늄 5kg 사용 추정(12/12, 미국의 소리 방송)

- 북한이 지난 5월 실시한 제2차 핵실험에서 플루토늄 5kg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12일 보도, 방송은 ‘국제핵물질위원회(IPFM)’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 “북한이 2006년 10월에 실시한 1차 핵실험에서 플루토늄을 2kg 사용했으며 올해 5월 2차 핵실험에서는 플루토늄 5kg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이 현재 34kg의 플루토늄을 확보

한 것 같다”고 밝힘.

- IPFM은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통해 ‘수 kt’의 폭발력을 얻었다”고 밝혔는데 1kt의 폭발력은 고성능 폭약인 TNT 1천 톤을 폭발했을 때 나오는 폭발력을 의미
-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영변의 5MW급 원자로를 재가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폐연료봉을 모두 재처리했을 경우 추가로 8~12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결과 북한은 기존에 추출한 플루토늄을 포함해 총 34kg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 보고서는 “북한이 5개 미만의 핵무기를 갖고 있을 공산이 있다”고 추정하기도 했다고 VOA는 보도

● **北전투기, 동계훈련 강화(12/12, 연합)**

- 북한 공군 전투기들이 지난달부터 시작된 동계훈련 수준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짐. 군 소식통은 12일 “북한 전투기들이 동계훈련이 시작된 최근 이·착륙 비행과 원거리 비행훈련을 횡수를 늘리고 있다”면서 “이 가운데 일부는 북한 황해도 상공에 설정된 전술조치선(TAL)에 접근 비행하고 있다”고 밝힘.
- 전술조치선은 북한 전투기가 이륙 후 불과 3~5분 내에 수도권에 도착하는 점을 감안해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20~50km 북쪽 상공에 가상으로 설정해 놓은 선임. 북한 전투기가 이 선에 근접하면 우리 전투기가 즉시 발진하도록 되어 있음.
- 소식통은 “지난 9일 오전에는 전투기 1대가 전술조치선을 넘어와 우리 공군 KF-16 등 전투기 6대가 대응기동을 하자 4분여 만에 돌아갔다”면서 “이런 상황은 흔히 발생하는 일”이라고 전언, 북한 전투기들은 지난 1월 17일 이후 5월까지 전술조치선을 1천87회나 접근한 것으로 알려짐.

● **평양밑 300m에 지하세계, 김정일의 중국 도주용 땅굴(12/8, 연합)**

-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7일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자유북한방송에 출연해 “평양 지면 아래 약 300m 지점에 지하철도(지하철)와 다른 제2의 지하 세계가 존재한다”고 말한 것으로 8일 알려짐. 이 ‘비밀 땅굴’은 유사시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를 위한 대피로이며 남포·순천 등 평

- 양 주변 40~50km까지 뻗어 있다고 황 전 비서는 밝혔음.
- 그는 방송에서 “지하철도 공사를 책임지던 경비대장이 찾아와 병사들과 대학생들(황 전 비서는 김일성대 총장을 지냈음) 간의 폭행사건 처리를 부탁하며 공사 현장에 초대했다”며 “지하철도로 내려간 뒤 그 깊이 만큼 더 내려간 곳에 땅굴이 있었다”고 설명, 이런 비밀 땅굴과 지하시설은 “평양 곳곳에 부지기수”라는 말도 했다고 함.
- 황 전 비서에 따르면 평양에서 직선 거리로 약 40km에 위치한 순천의 자모산까지 뚫린 땅굴에는 깨끗한 샘물과 새파란 풀이 있었고, 직선 거리로 약 50km인 묘향산 인근의 영월까지도 땅굴이 연결됐다는 것임. 특히 “평양 삼석구역 철봉산 휴양소에서 남포항까지 땅굴을 뚫어 났는데 이곳을 통해 유사시(김정일 등이) 중국으로 도주할 수 있다”고 언급
- 그는 “북한은 6·25 전쟁 휴전 직후부터 땅굴 건설에 집중 매진했으며 이들 땅굴은 한때 방북한 소련 군사대표단이 감탄했을 정도로 정밀함을 자랑하고 있다”고 전언

마. 사회·문화 관련

● 北, 신종플루 예방대책 공개회의(12/13, 오늘의 북한소식)

- 북한 당국이 신종플루 발생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직전인 12월 7일 내각 보건성에서 신종플루와 관련한 공개 전원회의를 북한 전역의 시, 군 당별로 개최했다고 대북인권단체 ‘좋은벗들’이 13일 보도
- ‘오늘의 북한소식’은 “전원회의에는 시·군 보건 부문 일꾼과 인민병원 책임 일꾼들, 농촌 리진료소 소장과 학교 교장·부교장 등 보건 부문과 교육 부문 일꾼 전원이 참석했다”며 “신종독감(플루)을 공개적으로 전면 검토하는 자리였다”고 설명
- 소식지는 “얼마 전만 해도, 극소수 책임자만 모아 비밀리에 대책을 논의하고 예방책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힘. 소식지는 “보건성은 중국 정통편과 국내산 아스피린을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전국에 내렸다”며 이는 평안남도 지역에서 신종독감에 걸린 환자에게 정통편과 국내산 아스피린을 먹여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라고 소개

- 함경북도에서는 다른 지방 여행자들이 오가지 못하도록 통행단속 강화 지시가 내려졌고, 가정마다 감기 증세가 보이는 가족의 바깥출입을 금지시키도록 했다고 소식지는 전언

● 평양서 고구려 침성대 유적 발굴(12/11, 조선신보)

- 평양 중심의 대성산 일대에 건설 중인 평양민속공원 부지 내에서 고구려 시대 때 만들어진 침성대 유적이 발굴됐다고 조선신보가 11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유적은 대성산 소문봉 남쪽 기슭 안학궁터 서문에서 서쪽으로 약 25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돌과 석회를 다져서 쌓은 사각형의 중심시설과 그 외부를 둘러싼 칠각형의 보조시설로 이뤄져 있음.
- 조선신보는 북한 고고학자의 언급을 인용, “새로 발굴된 건축터는 고구려가 수도를 평양의 대성산 일대에 정하고 있던 427~586년 축조하고 이용한 침성대 유적”이라며 하늘의 해와 달, 별을 관측하고 제사를 지내던 곳이라고 소개
- 또 평양민속공원 부지 내에서는 고구려 시기 벽화무덤도 새로 발굴

● 北, 개성공단 통해 남한서 신종플루 전염(12/10, 열린북한방송)

- 북한 보건 당국이 현재 북한에서 확산 중인 신종플루가 남한으로부터 전염됐다고 선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 대북 라디오 방송인 ‘열린북한방송’은 10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 북한 보건 당국이 지난 5일 평양 시내 초·중·고·대학교 등 각급 교육기관 책임자와 각 지역 보건담당일꾼들에게 신종플루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현재 급속히 퍼지고 있는 신종플루는 경제협력모델인 개성공단을 통해 남조선에서 온 것이라고 선전했다”고 전언
- 방송은 또 “이번 지시에서는 대학을 포함한 북한 내 모든 교육기관은 12월 5일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일제히 방학에 들어가도록 지시해 갑자기 일시에 방학이 시작됨에 따라 평양역에는 기차표를 구하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언
- 조선신보는 9일 이와 관련해 “신형독감의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평양 시내의 모든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가 예년보다 20여일 앞당겨 7일부터 겨울 방학에 들어갔다”고 보도

- **北, 신종플루 WHO 보고, WHO, 백신 지원할 듯(12/10, 미국의 소리 방송)**
 - 북한이 신종플루 발생 사실을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했다고 10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
 - WHO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북한이 9건의 신종플루 확진 사례를 보고해 왔다”며 “평양에서 3명, 신의주에서 6명이 신종플루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고 이 방송은 보도
 - 대변인은 또 “북한이 뛰어난 기초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항바이러스제 재고도 충분해 현재로서는 북한 당국이 신종플루에 적절히 대응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당장 북한을 지원할 계획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대변인은 그러나 “인도 뉴델리에 있는 WHO 동남아 총괄사무소가 현재 북한 당국과 긴밀히 접촉하며 의약품 지원 여부를 논의하고 있어 항생제 등이 지원될 수도 있다”라고 소개

- **北, 평양·신의주서 신종플루 9명 확진 발표(12/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평양과 신의주 등에서 신종플루가 발생한 사실을 공식 확인, 조선중앙통신은 9일 일부 지역에서 신종플루가 발생했다고 보도, 통신은 “세계적으로 'A형 돌립감기(신종플루)'로 인한 인명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속에 조선의 일부 지역에서도 이 신형 독감이 발생했다”며 “보건성에 따르면 신의주와 평양에서 확진된 환자가 9명”이라고 보도
 - 통신은 이어 “해당 기관에서 신형 독감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검역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예방과 치료사업을 마련중”이라고 보도

- **北, 새 돈 차명교환 2명 총살(12/8, 열린북한방송)**
 - 최근 화폐 개혁을 단행한 북한이 차명으로 돈을 바꾸다 적발된 주민들을 총살했다고 민간 대북 라디오방송 '열린북한방송'이 8일 주장
 - 방송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한도 초과외 구권 화폐를 편법으로 바꾼 평남 평성의 화폐 장사꾼 2명이 4일 비공개 총살당했다는 사실이 보위부 관계자를 통해 알려졌다”면서 “이들은 장사로 번 구권 1천100만 원을 아는 사람들에게 10만 원씩 바꾸게 해 1대 1로 나눠 가졌는데 이것이 불법으로 규정된 것”이라고 보도

- 북한의 화폐 개혁에 따른 구권 교환 한도는 가구당(4인 기준) 30만 원으로 알려짐.
- 방송에 따르면 또 신.구권 교환이 이뤄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부정행위를 철저히 색출하고 화폐를 버리거나 불 지르는 것과 같이 화폐개혁에 반하는 행위를 엄벌하라는 지시가 보위부를 통해 시달됨. 방송은 “지난 4일 함북 청진 수성천에 1천 원 등 구권이 많이 든 배낭을 누군가 버린 사건이 있었다”며 “보위부는 주범을 색출하려고 전문 그루빠(그룹)까지 만들었으나 아직 잡지 못했다”고 전언
- 북한 당국은 집집마다 설치된 유선 스피커 시스템 ‘3방송’을 통해 화폐 개혁의 당위성을 선전하는 한편 ‘화폐개혁의 목적은 노동자, 농민의 생활수준을 똑같이 하려는 것과, 장사꾼을 없애고 이전처럼 국가가 정한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것 두 가지’라는 요지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지시문을 전역에 보냈다고 이 방송은 전언

● 돈 빼앗긴 아줌마들 이판사판 저항(12/8, 조선일보)

- 북한이 7일부터 새 화폐 사용을 시작한 가운데 이번 화폐 개혁의 최대 난관은 40~50대 ‘시장 아줌마들’의 분노일 것이라고 북한 내부소식통이 전언, 북한에서 시장 상인 대부분은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40~50대 여성들인데, 이들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모은 돈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장사마저 어렵게 되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
- 한 내부 소식통은 “함경도 포순이’ 등 억척 아줌마들이 극도로 화가 났다”며 “시장은 김정일 성토장으로 변하고 있다”고 보도, 상황이 절박한 ‘아줌마들’은 잡혀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끼리끼리 모여 당국을 비난, 이 소식통은 “젊은 보안원들이 제지를 하지만 아줌마들은 ‘개×× 꺼져라’, ‘넌 부모도 없느냐’며 거세게 항의한다”고 전언

● 北, 신종플루로 한 달 조기 방학(12/7, 오늘의 북한소식)

- 북한 내에서 신종플루가 빠르게 퍼져 각급 학교들이 한 달 앞당겨 겨울방학에 들어갔다고 대북인권단체 ‘좋은벗들’이 7일 소식지를 통해 보도
- 단체는 소식지에서 “북한의 보건성과 교육성 일꾼들이 독감을 예방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대책회의를 열었다”며 “교육성이 방학을 한 달 앞당기기로

결정해 학교들이 지난 4일 겨울방학에 들어갔다”고 밝힘.

- 북한에서는 원래 새해 1월 초에 대학교를 포함한 대다수 학교들의 겨울방학이 시작됨.
- 이 단체는 ‘평양시 시당 교육부 일꾼의 보고’라고 하면서 “11월 한 달 중 20일 동안 21세 대학생 환자 2명, 23세 대학생 환자 1명, 8.28청년돌격대 2명 등 7명의 청년 사망자가 나왔다”며 “평양시에서는 11월 초에 1명이 사망하고, 26일쯤 1명이 추가 사망해 모두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전언
- 이 단체는 또 “평안북도 신의주에서는 최근 돌고 있는 신종 독감이 중국 단둥시와 인근 국경 지역에서 넘어온 전염병이라 단정했다”며 “보안 당국은 국경 출입 상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단둥·신의주 세관을 통과하는 모든 여행자에 대해 철저히 검진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고 소개

● 北, 외국인 관광 내년 초까지 일시 중단(12/7, 중국 인민일보)

- 북한 당국이 외국인들의 북한 내 관광을 일시 중단키로 했으나 화폐 개혁과는 무관해 보인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7일 보도
- 신문은 북한 세관의 업무가 12월 중순부터 이듬해 1월까지 정지돼 이달 10일부터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북한 관광에 나설 수 없게 된다고 전언
- 이와 관련 충칭(重慶) 등 중국 내 일부 여행사는 최근 단행된 북한의 화폐 개혁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았으나 북한 관광을 전문으로 다루는 단둥(丹東) 지역 여행사들은 “해마다 있어 왔던 관행으로 화폐 개혁과는 무관하다”고 밝힘.
- 외국인의 북한 관광은 1월이 돼야 재개되며 신의주 등 중국 접경 지역에서 이뤄지는 1일 코스의 변경 관광은 외국인 관광 중단 조치와 무관하게 계속 시행됨.
- 한편 인민일보는 화폐 개혁 조치 이후에도 중국인들은 북한에서 자유롭게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어 관광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전언

● 北, 시장거래 6일째 끊겨, 후유증 장기화(12/7, 연합)

- 북한의 화폐 개혁에 따른 통화 교환 마지막 날인 6일, 압록강 너머 신의주

를 마주 보고 있는 단둥(丹東)은 썰렁한 모습. 북한의 보따리상들을 상대하는 단둥 세관 주변 거리는 한적했다. 20~30개 일용잡화 도매 가게가 밀집해 있는 이곳은 화폐 개혁 발표 이후 손님이 반 이상 줄었음.

- 주방용품을 파는 D상점의 점원은 “경비 버스를 타고 넘어와 박스로 물건을 떼가는 북한 사람이 크게 감소했다”며 “지난 5월 2차 핵실험 직후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고 언급, 단둥을 이용한 북한과 중국 간 공식 국경 무역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미국 달러화나 유로화를 결제 통화로 이용하기 때문임. 그러나 북한 화폐 교환이 필요한 보따리상과 임가공(賃加工) 무역 등은 거래가 크게 위축됐다고 현지 무역상들은 전언
- 북한 무역에 종사하는 조선족 김모(46)씨는 “아직 새 화폐의 환율이 결정되지 않아 북한 내에서 환전상들이 활동을 중단한 상태”라며, “북한 내 일반 상품점은 물론 ‘장마당(시장)’까지 거래가 끊겼다”고 언급
- 평양 내 임가공 봉제공장에서 의류를 공급 받고 있는 사업가 홍모(56)씨도 “화폐 개혁으로 북한의 민심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전언, 그는 “봉제공장 공인들이 임금을 구(舊) 북한 화폐는 물론 중국 위안화로도 안 받겠다고 하고 있다”며 “북한에 이어 중국까지 화폐 개혁을 한다는 헛소문이 나돈다고 한다”고 설명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및 유엔안보리 관련

● 北무기 목적지는 우크라이나(12/13, 더 네이션)

- ‘미사일 등 북한산 무기 35톤을 운송하다 태국 당국에 억류된 수송기의 최종 목적지는 우크라이나’라는 증언이 나왔다고 태국 현지 신문인 더 네이션이 13일 보도
- 재급유를 위해 태국 돈므엥 공항에 착륙한 뒤 억류된 동유럽 국적의 이 수송기 조종사인 미카일 페투코(벨로루시)는 경찰 조사에서 “우크라이나를 출발해 북한에 도착, 상품들을 실었다”면서 “평양을 떠나 돈므엥 공항과 스리랑카에서 재급유를 받아 우크라이나에서 화물을 내려놓을 예정이었다”

고 밝힘.

-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평양으로 가는 동안 아제르바이잔과 아랍에미리트 (UAE), 태국 등에서 세 차례 재급유를 받았다”고 주장, 페투코의 증언이 나오기 전에는 스리랑카를 비롯해 테러범들이 암약하고 있는 파키스탄과 중동 지역 등이 최종 목적지로 거론됐었음.
- 페투코는 비행 일정에 대해서는 순순히 자백했지만 자신과 동료 승무원들의 무기 운송 혐의는 전면 부인, 그는 “수송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들은 상품 수송을 위해 고용됐다”며 “수송기에 무기가 적재돼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
- 한편, 스리랑카군은 이날 태국 당국에 억류된 수송기가 스리랑카로 향하던 중이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 우다야 나나야카라 스리랑카군 대변인은 “수도인 콜롬보에 착륙하기 위해 착륙 허가를 신청한 북한 비행기가 없었다”고 밝힘.

● 泰, ‘압류 北무기보고서’ 45일내 유엔 제출(12/13, 연합뉴스)

- 태국 정부는 평양발 수송기에서 압류한 북한 무기와 관련한 보고서를 45일 내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더 네이션 등 태국 현지 언론과 외신들이 13일 보도
- 타니 통팍데 태국 외무부 부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무기 선적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결의안에 따라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힘. 태국 정부는 또 북한산 무기를 수송기에 적재한 조종사 등 승무원 5명을 이르면 14일 법원에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아피싯 웨차치와 태국 총리는 “태국 법과 유엔 결의안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이라며 “태국 당국이 승무원에 대한 혐의를 조만간 확정해 이들을 기소할 것”이라고 설명
- 억류된 수송기는 그루지야 국적이고 조종사 등 승무원 5명 중 4명은 벨로루시, 1명은 카자흐스탄 출신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아피싯 총리는 “보안 및 정보기관이 승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 벌이고 있다”며 “문제의 수송기가 당초 스리랑카에서 재급유를 받을 예정이었다는 것만 확인했을 뿐 최종 목적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

● 泰, 北 미사일 등 적재한 수송기 억류, 조종사 등 5명 조사, 무기 35톤 압수 (12/12, 연합)

- 미사일과 폭약 등 북한제 무기를 적재하고 평양을 출발했던 동유럽 국적의 수송기가 태국 돈므엥 공항에 재급유를 위해 착륙한 뒤 태국 당국에 억류됐다고 교도통신 등 외신과 태국 현지 언론들이 12일 보도
- 파니탄 와타나야콘 태국 정부 대변인은 “문제의 수송기 조종사가 12일 오전 재급유를 위해 돈므엥 공항 착륙을 요청했다”며 “이 수송기가 공항에 착륙한 뒤 당국이 수송기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무기를 발견, 수송기와 조종사 등을 억류하고 무기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 파니탄 대변인은 “압수된 무기들은 태국 중앙부의 나콘사완주(州) 타크리 공군 기지로 이송됐다”며 “억류된 조종사들은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
- 안보담당인 수텝 타웅수반 태국 부총리는 “억류된 조종사 등은 당초 수송기에 원유 시추용 장비들을 운반 중이라고 주장했지만 수송기 검사 과정에서 무기들이 다량 발견됐다”며 “이번 사건에는 이해관계자가 많아 투명하게 모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
- 또 태국 당국이 구체적인 압수품 목록을 아직 확인해 주지 않고 있지만 미사일과 폭약, 대공화기 발사대, 로켓포 등 35톤 정도의 무기가 수송기에 적재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파니탄 대변인은 “조종사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국제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유엔 당국의 의견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이 수송기의 출발지와 관련, 몬톤 수추콘 태국 공군 대변인은 “내가 갖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문제의 수송기는 북한 수도 평양에서 출발했다”며 “공군 당국이 억류된 항공기에 대해 보안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 목적지에 대해서는 억류된 수송기가 올해 중반 내전이 종식된 스리랑카로 향하던 중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지만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음.
- 태국 현지 방송들은 태국 당국이 미국 측 정보를 받아 이 수송기를 억류했다고 보도했지만 태국 방콕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아피싯 웨차치와 태국 총리는 “외국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수송기에 다량의 무기가 적재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수송기 억류는 정보 기관들의 공조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

나. 북·미 관계

● 보즈워스, 6자회담 재개 인내심 필요(12/12, 연합)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8~10일 방북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좀 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언급
- 11일 베이징에 도착한 보즈워스 대표는 중국 관리들과 방북결과 협의를 마친 뒤 12일 오전 숙소인 차이나월드 호텔에서 지지들과 만나 “6자회담을 언제 어떻게 재개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며 좀 더 기다려 봐야 한다”고 언급, 보즈워스 대표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현재는 전략적 인내심을 이행할 시간”이라고 말했다고 언급
- 그는 평양 방문 결과와 관련,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만나 매우 실무적이고 솔직하고 전향적인 방식으로 건설적이고 유용한 대화를 했다”면서 “6자회담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또 9·19 공동성명의 합의 이행을 재개하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고 설명
- 보즈워스 대표는 북·미 양자 간 추가 대화의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추가 양자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나는 이번 대화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하는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고 강조
- 그는 또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쌍방은 평화협정 체결과 관계 정상화, 경제 및 에너지 협조,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등 광범위한 문제들을 장시간에 걸쳐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 “이를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만 간단히 언급
- 보즈워스 대표는 전날 밤 양제츠(楊潔?) 중국 외교부장과 북핵 6자회담의 장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을 잇따라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을 논의
- 보즈워스 대표는 12일 오전 일본 도쿄로 출발했으며 13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들른 뒤 15일 워싱턴으로 돌아감.

● 美대북인권특사, 방북 추진(12/12, 연합)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는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힘.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관련 회의에 참석 중인 킹 특사는 지난 9일 현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당국자들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북한 방문) 비자를 내줄 것을 북한 측과 접촉해 요구할 것”이라고 밝힘.

- 미 국무부가 11일 공개한 기자회견 녹취록에 따르면 킹 특사는 “취임한 지 보름 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 그런 접촉을 하지는 못했다”고 부연 설명
- 킹 특사는 이어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인권에 진전을 이루고 국제적 기준을 수용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북한의 인권개선이 미·북관계 정상화의 한 조건임을 분명히 했음. 그는 “핵심적 문제인 핵 문제에 대한 대화와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인권에 대한 우려를 다룰 대화도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 킹 특사는 또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 “인도적 지원에 대한 모니터를 할 수 있도록 합의가 이뤄지고, 북한에서 (식량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며,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고, 요구가 맞아떨어진다면 다시 지원하는 방안을 기꺼이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이와 관련, 그는 “미국은 인도적 지원 문제를 어떤 정치적 고려와도 연계시키지 않고 있다”고 강조

● 美, 북과 계속 접촉할 것(12/12, 연합)

- 미국 국무부는 11일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후속 조치와 관련, 6자회담 참가국 및 북한과 계속 접촉할 것이라고 밝힘.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6자회담 파트너들과 계속 접촉(engage)해 나갈 것”이라면서 “향후 진전 방안을 조율해야만 한다”고 언급, 켈리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과도 역시 접촉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힘.
-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2차 북미 고위급대화 개최 가능성과 관련, 북한이 원할 경우 이에 응할 방침임을 시사하였음.
- 켈리 대변인은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향후 미국과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북한 외무성의 입장 발표에 대해 “놀라운 것이 아니다”면서 “보즈워스 대표가 이해한 것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 그는 “(북한의 입장 발표 내용이) 확실히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실질적인 합의에 이를 때까지 이를 긍정적이라고 부르지

도 않을 것”이라고 설명

- 한편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이 언급한 ‘미국과의 의견차이’에 대해 “6자회담에 돌아오겠다고 합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실한 차이”라면서도 “북한에서 보는 차이점은 그들이 말해야 하는 문제”라며 구체적 언급을 회피

● 美, 미·북대화 좋은 출발, 대북제재는 계속(12/11, 연합)

- 필립 크롤리 미국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10일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계기로 열린 북미 대화에 대해 “이번 대화는 미국과 북한의 관리 사이에 1년여 만에 열린 첫 고위급 만남”이라며 “좋은 출발점 (good start)이라고 성격을 규정한다”고 언급
- 크롤리 차관보는 그러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보즈워스 대표가 이미 언급했듯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우리는 6자회담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국가들과 협의를 할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관해 북한으로부터 좀 더 분명한 응답을 기다릴 것”이라고 설명
- 그는 특히 “북한은 근본적인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면서 “우리는 이번 회담을 건설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이 6자회담으로 복귀할지 여부와 어떻게 복귀할지에 대해 북한으로부터의 좀더 분명한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기다림.
- 그는 북미 간 후속 고위급 대화 개최 문제와 관련, “(북한이 입장을 전달할) 수단이 전화가 됐건 다른 대화가 됐건간에 (북한의 반응을)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 2차 북미 간 대화 개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 이와 관련, 그는 “그들과 접촉을 유지할 것이며, 어떻게 6자회담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어떤 특정한 루트를 취할지는 예견하지 않겠다”고 북미 간 직·간접적 접촉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
- 크롤리 차관보는 이어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기간에 북한이 평화협정 문제를 제기했느냐는 질문에 “평화협정 문제도 들어 있는 2005년 공동성명 문제를 논의했다”고 부인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6자회담 틀 내의 양자회담의 맥락에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답변
-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압력은 계속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 1874호의 완전한 이행을 계속할 것”이

라면서 “장기적으로 그들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결정을 북한이 내리도록 압력을 계속 넣을 것”이라고 강조,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제재가 계속 될 것임을 분명히 함.

- 앞서 클린턴 장관은 북미대화 결과에 대해 “예비대화(preliminary meeting)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고 평가

● **北, 6자회담 복귀 더 두고 봐야(12/10, 연합)**

-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오바마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박 3일간 평양을 방문하고 10일 서울로 돌아와 “미·북 양국이 6자회담 프로세스 재개의 필요성에 대해 공통의 이해에 도달했다”고 밝힘. 하지만 “북한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6자회담에 복귀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 북한으로부터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명확한 약속을 받아내지는 못했음을 시사
- 보즈워스 대표는 외교통상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6자회담 프로세스의 중요성에 동의했으며 9·19 공동성명 이행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했다”고 했음.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만남은 요청하지 않았고, 만나지 않았다”며 “평양에서는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 부상 등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
- 그는 “6자회담 당사국들은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언젠가 대체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6자회담이 재개되면 우리 모두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설명

● **클린턴 국무장관, 北 6자회담 복귀 설득 희망(12/8, 연합)**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스티븐 보즈워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과 관련, 보즈워스 대표가 북한을 설득해 6자회담에 복귀시키길 희망한다고 밝힘.
- 클린턴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보즈워스 대표의 방문이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고,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 및 (6자회담) 참가국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향해 나아가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적이길 분명히 바란다”고 언급
- 한편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과 관련된 콘퍼런

스 콜 브리핑을 통해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목적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진지하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힘.

● 美, 보즈워스, 김정일 면담 추진안해(12/7, 연합)

- 미국은 7일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목적은 6자회담 재개라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체제 문제는 이번 방북의 의제가 아니라고 밝힘.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이뤄질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을 하루 앞둔 정례브리핑에서 “명백히 우리의 목적은 6자회담 재개”라고 언급
- 켈리 대변인은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시 북한과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면서 “그것은 우리의 의제가 아니다”라고 일축, 이와 관련, 그는 “6자회담의 맥락에서 양자 간 실무그룹이 마련돼 있다”면서 “그것이 적절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언급
- 그는 “보즈워스 대표는 매우 단순한 의제를 갖고 평양에 갈 것”이라면서 “이는 6자회담의 재개를 확실히 하고, 2005년 9월의 공동성명과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

다. 북·중 관계

● 경제무역대표단 중서 귀환(12/12, 조선중앙방송)

- 구본태 무역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경제무역대표단이 중국에서 열린 북·중경제무역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12일 평양으로 귀환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中, 한반도 긴장완화 기회 포착해야(12/10, 연합; 신화통신)

- 중국은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과 관련, “한반도의 긴장완화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한다”고 유관 당사국들에 촉구
-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유관 당사국이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 유리한 시기를 잘 포착해 유연성을 발휘함으로써 북핵 문제가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상궤도로 하

루빨리 돌아오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힘.

- 장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유관 당사국과 대화와 협력을 계속 유지하길 희망한다”고 언급
- 그는 “보즈워스 대표는 이미 방북을 마치고 한국에 도착했다”면서 “11일 베이징에 도착해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과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과 회동하고 방북 결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고 설명
- 장 대변인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북·미 간 양자대화 결과를 놓고 북한과 접촉했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 이 같은 정보는 없다”고 대답
-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평양발 기사에서 보즈워스가 평양 순안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이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고 보도

라. 북·러 관계

● 러시아, 北 6자회담 재개 의사 환영(12/11, 인테르팍스 통신)

- 러시아는 북한이 6자회담 재개 필요성을 천명한 데 대해 올바른 방향의 진전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러시아 외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11일 보도
- 이 소식통은 “만약 북한이 6자회담으로 돌아올 준비가 돼 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평양이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을 떼는 것”이라며 “러시아는 북한과 미국 간의 양자대화를 지지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대화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 앞서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결과에 대해 “러시아는 한반도 핵 문제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접촉도 환영하며 양측이 이번 접촉을 통해 ‘실무적’ 대화를 나눈 데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 그는 이어 “미국과 북한이 가까운 장래에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만간 공통의 언어를 발견하기 바란다”고 첨언
- 한편, 러시아 외무부에 따르면 6자회담 관련국 순방에 나선 보즈워스 대표는 오는 14일 모스크바를 방문,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 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과 만나 이번 방북 성과를 설명하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가능성 등을 논의할 예정

● 김영남, 러 폭발사고에 위로전문(12/7, 연합)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우랄 지역 페름시에서 발생한 나이트 클럽 폭발사고와 관련해 7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음. 김 상임위원장은 전문에서 “나는 귀국의 페름변강에서 일어난 뜻하지 않은 화재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는 불행한 소식에 접해 당신과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문의 뜻을 표한다”고 언급

마. 북·일 관계

● 北·日, 납북자 관련 대화에 ‘속도’(12/13, 연합)

- 1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북한을 방문했던 미국의 보즈워스 대북 특사는 12일 일본에 들러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에게 “북한이 납치자 문제를 포함한 일본과 북한 간 대화에 전향적 자세를 보였다”고 전언

● 하토야마, 북 필요하면 가겠다(12/11, 지지통신)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지통신이 11일 보도, 하토야마 총리는 11일 밤 기자들과 만나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 위한 방북 가능성과 관련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갈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가야 한다”고 언급하고, 그러나 “아직 방북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해 방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음.
- 하토야마 총리는 11일 오후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를 부각하기 위해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 담당상이 주최한 리셉션에 참석해 “정부로서 한시라도 빨리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힘. 그는 납치피해자의 귀국 실현과 진상 규명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

● 민주조선, 일본의 정찰위성 발사는 범죄행위(12/9,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9일 ‘용납될 수 없는 우주 군사화 책동’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H2A 로켓에 실어 다섯 번째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에 대해 “우

- 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조약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라고 비난
- 신문은 “일본의 정찰위성 발사는 주변나라들의 군사적 움직임을 내탐하기 위한 첩보활동”이라며 “이에 반해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 발사는 우주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강성대국 건설에 이바지할 실용위성 개발을 위한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 활동”이라고 주장
 - 신문은 이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본 반동의 군사대국화 책동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일본 반동들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3 대남정세

● 정부, 타미플루 분배 투명성 확보 北과 협의(12/11, 연합)

- 통일부는 11일 북한에 타미플루 50만 명분을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 “지원의 목적에 맞게 분배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을 북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떤 형태의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분배 투명성은 중요한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
- 이 부대변인은 다만 “분배 투명성의 정도나 분배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지원하는 품목이나 전달되는 절차 등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된다”고 부연,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분배 투명성이 어느 지원에서나 중요하지만 타미플루의 경우 다른 대북지원품과 달리 신종플루에 걸린 사람 외에는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
- 이 부대변인은 이어 타미플루 외에 다른 지원품을 함께 보낼 가능성에 대해 “손 소독제 등을 포함해서 신종플루 예방 또는 신종플루 확산에 대처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품목들도 앞으로 북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게 되면 검토할 수 있다”고 부연

● 北, 남측의 타미플루 지원 받겠다(12/10, 연합)

- 북한이 10일 신종플루 치료제를 지원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임.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오전 판문점 연락관

채널(전화)을 통해 신종플루 관련 지원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북측에 통보했다”며 “이에 대해 북측은 같은 채널을 통해 우리 측 지원 의사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설명

- 10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타미플루 등 신종플루 치료제 50만 명분을 북한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답변.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북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무제한 공급할 생각이 없느냐”고 질문하자 현 장관은 “추후에 검토하겠다”고 했고, 마스크와 손 소독약, 진단기 등 신종플루 대처에 필요한 부대 장비와 의료진 및 의료기기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언급. 남북은 11일부터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법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임.

● 남북, 12월 12~22일 中·베트남공단 합동시찰(12/10, 연합)

- 남북한은 12월 12~22일 중국의 칭다오(靑島)와 수저우(蘇州), 선전(深?), 베트남의 엔퐁 공단을 합동시찰할 예정이라고 통일부가 10일 밝힘.
-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남북 시찰단은 오는 12일 베이징(北京)에서 만나 13~14일 칭다오, 15~16일 수저우, 17~18일 선전 공단을 방문한 뒤 19일부터 22일까지 베트남의 엔퐁 공단을 시찰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 부대변인은 이어 “남북 시찰단은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해외 공단의 투자환경과 공단 운영시스템, 출입.체류, 노무 관리 등 각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또 공단별로 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현지 운영실태 등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언급
- 이번 공동시찰의 남측 단장은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 대표, 북측 단장은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임. 이들은 지난 6~7월 세 차례 열렸던 개성공단 실무회담의 남북한 수석대표였음.
- 이번 시찰에는 남북 각각 10명이 참석, 남측에선 통일부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인사가, 북측에선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공단 관련 기관의 실무인원 등이 참석할 예정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2.14-12.20

12월
3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및 유엔안보리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러 관계
- 마. 북·일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주체철 생산' 성진제강 방문(12/19,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체철' 생산체계를 완성한 함경북도 김책시 소재 성진제강연합기업소를 찾아 "자체의 기술로 주체철 제강법을 완성한 것은 3차 핵시험 성공보다 더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
- 북한이 주장하는 '주체철'이란 철광석 소비를 낮추면서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중유, 코크스 등을 쓰지 않고 북한 내에서 조달한 재료를 이용해 생산된 철을 말함. 통신은 김 위원장이 "주체철이 강물처럼 쏟아져나오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재래식 제강법에 종지부를 찍고 생산을 부단히 늘려가고 있는 데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전언
- 현지지도에는 홍석형 함경북도 당 책임비서, 김기남 노동당 비서,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정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박남기 당 계획재정부장, 주규창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리제강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동행

● 김정일, 김책제철소·청진광산금속대 시찰(12/1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북도의 김책제철연합기업소와 청진광산금속대학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
- 김 위원장은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서 새로 건설한 주체철용광로 등을 둘러보고 "주체철용광로는 우리나라에 풍부히 매장돼 있는 원료와 연료에 의거해 철을 생산하는 우리 식의 독특한 용광로"라며 "김책제철연합기업소가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룩함으로써 이제는 무섭게 용을 쓰며 비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보도
- 그는 또 청진광산금속대학에 가서는 "나라의 채취, 금속공업 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들을 널리 개척해야 한다"고 지적
- 이번 청진광산금속대학 현지지도에는 홍석형 함경북도 당 책임비서, 김기남 노동당 비서, 김정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박남기 당 계

획재정부장이 수행했고,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는 이들 외에 당 제1부부장인 주규창, 리제강 두 사람이 추가로 수행

● 김정일, 라선시 첫 현지도(12/16,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라선대흥무역회사 등 라선시를 방문, 대외무역 발전을 위한 지시를 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 북한이 1991년 12월 라선시를 경제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한 이래 김 위원장이 이곳을 찾은 것은 처음임.
-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라선대흥무역회사의 수산물종합가공장, 축양장, 술가공장 등을 둘러보고 수출품 생산 및 수출 실태를 파악한 뒤 “대의 활동을 진공적으로 벌여 대외시장을 끊임없이 넓혀가야 한다”고 강조
- 김 위원장은 이어 라선시를 돌아보면서 도시 건설과 도시 경영 전반을 파악한 후 “중요한 대외무역기지의 하나이므로 전망성있게 잘 꾸리고 시의 당 및 행정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언
- 김 위원장의 현지도에는 홍석형 함경북도 당 책임비서, 김기남 노동당 비서,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박남기 당 계획재정부장이 수행

나. 정치 관련

● 北, 북핵은 남북관계 장애물 아니다(12/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핵 문제는 북남관계의 장애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북핵문제는 북남관계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북남관계 개선의 장애물이 될수도 없다”고 주장
- 신문은 남측 당국자들의 북핵 관련 발언을 언급, “남조선집권세력이 미국의 반공화국 핵소동에 적극 추종하면서 북남관계 개선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 신문은 “남조선 당국이 북남관계와 핵문제를 억지로 결부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악랄한 도전, 도발이고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으려는 것”이며 “우리 공화국을 무장해제시키고 고립압살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
- 신문은 과거 “내외 반공화국 세력의 핵소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지는 속에서

도 두 차례 북남수뇌상봉이 진행되고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이 채택됐다”며 “북남관계 문제가 해결돼야 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

● 北, 오바마 친서 강석주에 전달(12/18, 조선중앙통신)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 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의)친서를 조선(북한)을 방문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조선정책 특별대표가 9일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에게 전달했다”고 보도, 그러나 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당 역사연구소 소장에 김정임 임명(12/17, 연합)

-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그 일가족의 이른바 ‘혁명사적’을 발굴·보존·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노동당 역사연구소 소장(장관급)에 김정임 부소장이 임명된 것으로 확인됨. 북한 언론은 17일 김일성 주석의 항일빨치산 동료 오중흡의 70주기 중앙추모회 소식을 전하면서 김정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당역사연구소 소장이 사회를 했다고 보도
- 당역사연구소장은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의 형인 강석승이 1975년부터 무려 25년간 역임했으나 2001년 사망 이후 공석이었으며 2003년부터 김기남 노동당 비서가 겸임해 온 것으로 알려짐.
- 소장 임명 시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김 신임 소장이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으로 선출된 점으로 미뤄 그가 김정은 후계구도 구축을 위한 권력이동이 이뤄진 2월께 소장에 임명됐을 것으로 관측
- 김 신임 소장은 1985년부터 16년간 이 연구소의 부소장으로 일해왔으며 1992년 북한 최고 훈장인 ‘김일성훈장’을 받았음.

● 北잡지, 공무원 평가 강화 촉구(2009년 3호, 정치법률연구)

- 북한의 계간 학술지인 ‘정치법률연구’는 지난 2005년 말 제정된 ‘공무원 자격판정법’에 따른 공무원 평가를 강화, “공무원 대열의 사상적 순결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잡지는 ‘사회주의 국가관리에서 공무원 자격판정 제도 확립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무원 자격판정 제도를 올바르게 확립하는 것은 선군시대 공무원들이 당에 무한히 충실한 사

상과 신념의 강자, 실력가가 되어 강성대국 건설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 해나가도록 하는 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강조, 이 법은 또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 평가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일정한 기준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공무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명시

● **노동신문, 美오바마 핵구상, 실천 따라야(12/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지체없이 핵무기를 철수해야 한다’ 제목의 논평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 구상에 대해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은 말로 이뤄질 수 없고 실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
- 신문은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세계 면전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을 제창하고 있다”며 “핵무기 보유량으로 보나, 세계 도처에 수많은 핵무기를 배치해 놓고 있는 것으로 보나 미국은 응당 핵군축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힘.
- 신문은 이어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일관된 입장으로서, 문제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미국은 저들의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 공약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세계 앞에 실천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

● **北, 美에 대북 제재 해제 요구(12/16, 연합)**

- 북한은 지난 8~1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대북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16일 알려짐.
- 외교소식통은 “북한 측이 보즈워스 대표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며 그 과정에서 대북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은 기존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안다”고 소개

● **北, 보즈워스에 6자회담 복귀 명분 요구(12/16, 요미우리신문)**

- 북한은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2월 8~10일 방북했을 때 6자회담 이탈 방침을 번복하고 복귀할 명분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

다. 경제 관련

● 伊·獨, 북한에 식량지원(12/19, 자유아시아방송)

- 이탈리아와 독일 정부가 북한에 85만 유로 상당의 식량과 겨울옷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
- RFA에 따르면 이탈리아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청은 북한에 30만 유로 규모의 식량과 보건 물품을 지원하기로 최근 결정, 이탈리아는 2003년 북한과 '상호 식량 지원 프로그램'에 합의한 후 해마다 많게는 1백만~3백만 유로 상당의 식량을 북한에 직접 지원해 왔음.
- 독일 정부 또한 북한에 식량개발 사업과 겨울옷 제공을 위해 55만 유로를 독일에 기반을 둔 국제 NGO '저먼 애그로 액션(German Agro Action)'과 가톨릭 국제 구호단체 '카리타스(Caritas)'에 기부했다고 RFA는 전언, 이중 40만 유로는 저먼 애그로 액션을 통해 북한 내 과수나무 재배와 종자 개발 사업을 위해, 나머지 15만 유로는 카리타스를 통해 북한 내 취약계층에게 식량과 겨울옷을 제공하는 데 쓰일 예정임. 독일은 2008년에도 2백만 유로의 기부금을 NGO를 통해 북한에 전달해 과수나무 재배와 옥수수와 감자 종자 개발 등을 지원했음.

● 北 라진·선봉 관광지 개방 검토(12/18,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2010년 라진·선봉 지역을 관광지로 개방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
- 북한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중국 고려여행사 사이먼 카커럴 대표는 RFA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올해 함경북도 칠보산과 황해남도 해주, 평양 일부 지역 등을 새로 개방했듯이 내년에도 라진·선봉 지역을 관광지로 개방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고려여행사 측은 관광산업이 북한의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므로 새 관광지 개방과 상품 개발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변화라고 분석
- 카커럴 대표는 올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미국인 여기자 억류 등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비슷한 1천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북한을 찾았다며 미국과 영국 관광객은 줄었지만 기타 유럽국가의 관광객은 다소 늘었다고 전언

● **北통신, 美기업가대표단과 투자환경 조성 논의(12/17, 조선중앙통신)**

- 찰스 보이드 미국 국가안보사업이사회(BENS) 회장 겸 최고경영자를 단장으로 한 미국 기업가대표단이 14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 북한의 경제 부문 일꾼(간부)들과 “투자환경을 마련하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진지하게 토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
- 통신은 ‘미국 기업가대표단 평양 체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방북 기간 이 대표단이 “김일성종합대학, 주체사상탑, 인민대학습당, 평양지하철도, 평양방직공장, 평양326전선공장 등을 참관했다”고 보도

● **김정일, 미국 등 서방자본 유치하라고 지시(12/17, 중앙일보)**

- 북한이 11월 30일 단행한 화폐 개혁은 지난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제관리 노선 변경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중앙일보가 17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서 “김 위원장이 9월 초 내각의 무역성과 대외사업기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주요 간부들을 대상으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조화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내렸다”며 “화폐 개혁은 이에 따라 내부 통제와 계획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언급, 이 소식통은 북한 내각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김 위원장의 지시를 담은 새 경제관리 노선은 2010년 1월 1일 3개 신문 신년 공동사설(신년사)에 반영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
- 이는 이번 화폐 개혁의 주목적이 2002년 이후 두드러지기 시작한 소규모 시장(장마당) 등의 시장경제 요소를 약화시키고, 국가계획경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을 나타내준다고 이 신문은 보도, 북한 최고인민회의(국회) 상임위원회가 16일 부동산의 등록과 이용, 사용료 납부를 규제하는 부동산관리법과 물자소비기준법 등 경제 관련 법률을 제정한 것은 시장을 강력히 통제해 나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 대북 소식통은 또 “김 위원장은 경제부처 간부들에게 경제관리 노선변경 외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자본의 유치도 지시했다”고 전언, 소식통은 “북한은 1993년과 2002년 나진·선봉과 신의주 특구를 통해 해외 자본 유치를 시도했으나 성과가 없었다”며 “이번에는 특구 확대와 특구 이외 지역에 대한 투자 유치도 적극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

● 北, 경제관계법 제정, 화폐 개혁 후속행보 박차(12/16, 연합뉴스)

- 북한이 11월 30일 화폐 개혁을 단행한 데 이어 부동산관리법 등 경제 관계 법령 여러 건을 한꺼번에 제정, 북한이 이들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일견 부족한 재정 확충과 자원의 효율적 관리, 중앙집권적 요소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함.
- 먼저 신설된 ‘부동산관리법’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확산된 시장의 변화를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부분적 점유권이 허용되는 부동산의 사용료 징수를 극대화함으로써 재정 확충도 도모하겠다는 ‘일석 이조’의 포석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북한 당국은 2006년 고강도 부동산 실사를 진행하면서 당과 군부대 산하 기관, 기업소는 물론 라선시와 개성 및 금강산 특구 지역의 외국인 투자기업까지 실사 대상에 포함시켰음. 또 개인, 기관, 기업소의 토지와 건물은 기본이고 작은 ‘땀기밭’과 건물의 내부 설비, 수목의 숫자까지 세밀하게 조사한 것으로 알려짐.
- 새로 제정된 물자소비법도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강력한 소비 억제와 ‘사재기’ 등의 시장적 요소 퇴출을 겨냥하고 있는 듯함. 어차피 극심한 물자 부족으로 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어려운 터라 공장이나 기업소에서의 효율적 물자 사용을 유도하면서 생산성 제고를 통해 물자난을 완화해 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됨. 아울러 일부 축재계층에서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사재기’를 강력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임.
- 이와 함께 종합설비수입법도 경제 분야에서의 정부 개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보임.

● FAO, 2010년 봄 北 현지서 작황 조사(12/15, 미국의 소리 방송)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2010년 4~5월께 실사단을 북한에 파견해 작황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5일 보도
- 12월 초 평양을 방문한 다니엘레 도나티 FAO 긴급활동국 아시아 담당 국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4월에서 5월쯤이면 논밭에 작물들이 충분히 자라 추수를 가늠해 볼 수 있다”며 4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실사단을 북한에 보내 현지 농작물 실태와 생산성, 수확량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힘. 그는 “북한 당국도 작황 조사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언

라. 군사 관련

● 북한 올해 무기수출 2억 달러 육박, 작년 2배(12/17, 동아일보)

- 북한이 올해 2억 달러에 육박하는 규모의 무기를 해외에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가 17일 보도, 북한은 국제사회가 올해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를 채택해 강력한 무기 수출 단속에 나서자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청송연합' 등을 전면에 내세워 무기 판촉활동을 펴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
- 대북 정보소식통들은 “올해 북한의 무기 수출 규모는 2008년과 비교하면 배 이상 늘었다”고 소개, 북한의 무기 수출액은 2003년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D)이 가동된 이후 점차 줄어들어 2007년 4960만 달러로 추산됐으나 2008년부터 다시 늘어난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
-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무기 수출 대상국을 과거의 중동 국가 중심에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 등으로 다변화했으며 수출품목도 방사포, 함정, 탄약 등 재래식무기와 함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로 확대했다고 소식통들은 전언
- 북한은 국제사회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위장 방식을 개발한 것으로 전해짐. 북한의 무기 수출을 관장하는 노동당 제2경제위원회는 청송연합을 전면에 내세워 바이어들을 유치하는 한편 유엔의 의심을 받는 산하의 주요 수출회사들에 과거와 다른 가짜 이름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보도

● 北, 과거에도 항공기로 무기 수출(12/16,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산 무기를 실은 그루지야 국적기가 태국에 억류된 가운데 북한이 이번 뿐 아니라 과거에도 항공기로 미사일 등 무기를 수출해 왔다고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16일 군 출신 탈북자의 증언을 인용해 보도
- 3년 전까지 북한군 총참모부의 병기국 무기호송대에서 복무했다는 탈북자 강모씨는 RFA와 인터뷰에서 “지난 10년 동안 각종 미사일과 군수품목을 평양 인근 순안공항으로 운반했다”면서 “순안비행장으로 화성미사일(스커드미사일)의 북한 내 명칭)도 많이 나가는데 순안비행장까지 간다는 것은

그쪽(해외)으로 실어 내간다는 걸 의미한다”고 주장

- 강씨는 또 해외 무기수출을 주도하는 부서는 노동당 99호실이고, 무기가 해외로 운반될 때마다 이곳 실무자들이 호송대로부터 무기를 넘겨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RFA는 전언

마. 사회·문화 관련

● 北 내년 쉬는 날 68일, 올해보다 '딱딱'(12/20, 연합)

- 북한에서도 2010년에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많아 쉬는 날이 올해보다 나흘이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연합뉴스가 최근 입수한 평양출판사 발간 내년도 북한 달력에 따르면 '주체 99년(2010년)'의 쉬는 날은 공휴일 17일과 일요일 51일을 합쳐 모두 68일. 이는 공휴일 20일을 포함해 72일을 쓴 올해보다 4일이 적음.
- 주 5일제 근무가 자리잡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북한은 토요일에도 정상 근무를 하고 있으며 토요일 오전에는 일하고 오후에는 사업 단위별로 '생활총화(비판회의)'를 가짐. 1974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도입된 것으로, 자아비판을 하는 것도 이때임. 그러나 국경일 등 법정 공휴일은 우리보다 훨씬 많음. 설과 추석 연휴, 7일의 법정 공휴일을 합쳐 모두 13일을 쉬는 남한과 달리 북한의 법정 공휴일은 모두 18일에 달함. 설과 추석 등 고유 명절을 빼 북한의 공휴일은 모두 정치적 색채가 짙은 것이 특징

● 北 화폐 개혁 내부 혼란은 없어(12/20, 환구시보)

- 북한이 화폐 개혁을 단행한 후 이미 새 화폐가 시장에서 사용되기 시작하는 등 큰 내부 혼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가 보도
- 20일 환구시보 보도에 따르면 평양 주재 특파원이 평양의 외국인 시장인 통일시장을 비롯해 시장과 상점을 취재한 결과 대부분이 정상 영업을 하고 있었고 새로운 화폐를 받기 시작했다고 보도
- 환구시보는 물가가 일부 오르긴 했지만 사재기 현상은 빚어지지 않고 있으며 시장의 공급물량도 충분히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시킨다고 소개, 환구시보는 북한 사람들의 월급액수는 과거와 비슷하고 물가도 조금 올랐지만

화폐가치가 100배가 커지는 바람에 실질적인 소득이 올라 화폐 개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고 전언

- 한편 신문은 북한이 연말부터 2010년 2월까지 외국인의 관광을 중단시킨 것과 관련, “매년 있는 조치로 화폐 개혁과는 무관하다”면서 “북·중 무역에도 큰 영향이 없다”고 보도

● **북한판, 뉴타운 만수대거리(12/20, 연합)**

- 2012년까지 평양에 10만 세대의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공언한 북한 당국이 최근 ‘북한판 뉴타운’의 시범 성격을 띠는 만수대거리 재개발을 끝마쳐 관심을 끌고 있음.
- 우리의 국회의사당 격인 만수대의사당 근처의 만수대거리는 고구려 시대 성문인 보통문(普通門)에서 만수대의사당까지 이어지는 500여m 도로의 양쪽 지역을 말하며 평양의 중심부인 중구역에 위치하고 있음. 북한 수도 건설국은 2008년 7월 이 일대 주택 600여 세대를 모두 허물고 대대적인 재개발 사업에 나섰다. 1960년대에 지어진 5층 이하의 낡은 아파트가 대부분이었던 이 지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등 북한 지도부의 비상한 관심 속에 착공 1년 만인 지난 9월 800여 세대의 번듯한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
- 대북 소식통들은 “김정일 위원장이 만수대거리의 재개발을 위해 보통문 바로 옆 야산에 있던 김 주석의 옛 관저이자 자신의 유년·청년기를 보낸 ‘5호택 관저’를 헐도록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재개발된 만수대거리는 옥류교 방향의 도로 입구에서 보통문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전언
- 소식통들은 “5호택 관저는 주석궁 건설 뒤에는 관리인들만 두고 20여 년간 보존돼 왔다”며 “김 위원장이 이를 허물도록 지시한 것은 만수대거리 조성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여준다”고 설명, 김 위원장은 완공 직후 직접 이곳을 찾아 “당의 구상과 의도가 반영된 최상급의 현대적 살림집”이라며 치하
- 만수대거리의 아파트 ‘배정’이 최근 끝나 지난달부터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돼 지금은 거의 마무리됐음. 북한판 ‘뉴타운’에는 기존에 살던 600여 세대가 다시 들어왔고 건설 참여 관계자와 노동자, 체육인 등 각종 공로를 인정받은 시민들이 나머지 아파트를 배정받았다고 함. 북한은 이번에 새집을

언제 된 기존 주민이나 추가로 입주한 사람들이나 모두 ‘공짜’로 새집에 들어왔다고 선전

● 북한 신종플루 추가 발병 없다(12/12, 미국의 소리 방송)

- 북한이 평양과 신의주에서 9명의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했다고 공식 인정한 이후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2일 세계보건기구(WHO)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
- 인도 뉴델리에 있는 WHO 동남아시아 총괄사무소 수전 웨스트맨 박사는 VOA와 전화에서 “12월 8일 현재 WHO에 새롭게 보고된 신종플루 감염 확진 사례는 없다”며 “북한에서 지금까지 약 2백 개의 신종플루 표본이 검사됐으며 병원체 유전자 판별을 위한 검진 시약(Primer) 상태가 좋다”고 밝힘.

● 北, 사리원에 ‘열사릉’ 추가 건립(12/1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우리의 현충원에 해당하는 열사릉을 추가 건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 통신은 “정방산의 품치 수려한 곳에 자리 잡은 열사릉에는 조국 해방과 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투쟁한 40여명의 열사들의 유해가 안치됐다”고 전언
- 통신은 이곳에 안장된 인사로 항일열사 안형익, 허상검, 최을암, 홍종국과 황해간석지 건설종합기업소 지배인 최기춘 등을 소개
- 열사릉은 평양, 함흥, 평성 등지에 있으며 가장 등급이 높은 곳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모 김정숙 등 항일빨치산 출신들을 주로 안장한 평양 대성산 혁명열사릉임.

● 北 화폐 개혁 후 아사자 나와(12/18, 데일리NK; NK지식인연대; 자유북한방송)

- 최근 북한이 단행한 화폐 개혁으로 식량 유통이 크게 줄어들면서 양강도 농촌에서 아사자가 처음 나왔다고 ‘데일리NK’가 18일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주장, 데일리NK는 “양강도 갑산군에서 국수장사를 하던 신모 씨가 11살 난 딸과 함께 자기 집에서 허약으로 사망했다”고 보도, 이 매체는 신 씨 사망을 보고받은 양강도당이 주민 동요를 우려해 일대 극빈층에게 무료 급식을 하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섰다고 소개
- 한편 ‘NK지식인연대’도 “화폐 개혁 후 시장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온 서민

층에서 직장에 복귀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북한 상황을 전언, 이 단체는 또 사채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돈주’들이 화폐 개혁 때문에 시장에서 밀려나고 공산품, 식량 등 현물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새로 시장에서 득세하고 있다고 소개

- 자유북한방송은 화폐 개혁 이후 일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신소 공용 전화 요금이 분당 구권 3원에서 신권 17전으로 사실상 6배나 올라 주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보도

● 北인구, 1993년 이후 300만 명 늘어(12/18, 미국의 소리 방송)

- 북한의 전체 인구가 2천405만여 명으로 조사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유엔인구기금(UNFPA)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
- 18일 VOA가 입수한 UNFPA의 ‘2008 북한 인구조사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총인구는 2천405만 2천231명(작년 10월 기준)으로 1993년의 직전 조사 때보다 약 300만 명 늘어나 연평균 0.85%의 증가율을 보임. 성별로는 남성 1천172만 838명, 여성 1천233만 393명으로 여성이 51.3%였음.
- 65세 이상은 전체의 8.7%로 ‘노령화 사회’ 기준(7%)을 넘겼고, 출산율은 가임 여성 한 명당 2.0명으로 현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에 미달, 같은 기간 신생아 사망은 14명(1천 명 기준)에서 19명으로 35.7%, 산모 사망은 54명(10만 건 기준)에서 77명으로 42.6% 증가, 이에 따라 평균 기대수명도 72.7세에서 69.3세로 3.4세 낮아짐.
- 또 북한 인구의 60%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인구 100만 이상은 평양(325만 5천288명)이 유일, “11년 무상 의무교육의 결과로 10세 이상 북한 인구가 모두 글을 읽고 쓸 수 있고, 5세부터 16세까지 아동의 학교 출석률도 100%로 나타났다”고 밝힘.
- 이번 인구조사는 2008년 10월 1~15일 보름간 UNFPA의 후원 아래 실시됐으며, 실제로 현장 조사 및 지도 요원 4만 2천여 명이 투입돼 전 가구 방문 형식으로 나이, 성별, 결혼 여부, 가족 수, 개인소득 등 53개 문항을 조사했다고 보고서는 설명, 북한의 김창수 중앙통계국장은 보고서 서문에서 “15년 전의 1차 인구조사 때 다뤄지지 않았던 주택, 장애, 교육, 이주, 경제 활동, 모성사망 등의 항목이 이번에 포함됐다”면서 “전체적으로 성공적인 인구조사였다”고 평가

- 北, 금강산 ‘별금강’ 등 천연기념물 추가 등록(12/1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올해 내각 결정에 따라 강원도 고성군의 명승지 ‘별금강’을 비롯해 동굴과 나무 등 수십 개 대상을 천연기념물로 신규 등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
 - 별금강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1973년 8월 금강산을 방문했을 당시 “이 곳을 잘 꾸려 관광객과 휴양생들이 휴식하도록 한 뜻 깊은 곳”이라며 “320m의 산 정점에 100m 둘레의 작은 못이 있고 20m 높이의 기묘한 벼랑 바위들로 둘러싸여 있어 특이한 자연경관을 펼치고 있다”고 통신은 소개

- 北당국, 14일부터 사흘간 시장운영 중단(12/15, 오늘의 북한소식)
 - 화폐 개혁과 국정가격 공시에도 불구하고 각종 물품의 시장가격이 불안정함에 따라 북한 당국이 14일부터 사흘간 시장운영 중단을 결정했다고 대북 인권단체 ‘좋은벗들’이 15일 보도, 소식지는 “화폐 교환 조치 이후 시장 가격이 크게 요동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당국에서는 14일 오후부터 3일간 시장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모든 물가를 새 국정가격으로 조정한 뒤 시장운영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
 - 소식지는 “현재 국정가격이 공시됐지만 국가가격제정국에서는 전국 지방의 실태 자료와 주민 여론동향 등을 고려해 새 가격을 다시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
 - 이 단체는 북한 당국이 각급 시장 앞에 공정한 국정가격표와 관련해 kg당 쌀 22~23원, 옥수수 8원, 콩기름 50원, 돼지고기 45원, 설탕 40원, 두부 1모에 3원 등이라고 소개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및 유엔안보리 관련

- 美재무부, 北금강은행 주의 리스트 추가(12/20, 연합뉴스)
 - 미국 재무부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은행이 거래를 주의할 북한 은행 리스

트에 금강은행을 추가, 이에 따라 재무부가 미국 금융기관들에 주의를 요구한 북한 은행은 총18개로 늘어나게 됐다.

-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이날 '북한 정부 기관과 기업들의 불법금융행위 개입'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권고문에 포함된 북한 은행 리스트에서 금강은행을 추가
- 앞서 재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이 권고문을 통해 북한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후 신분을 감춘 차명거래나 제3자를 통한 자금이전, 반복적인 계좌이체 등 변칙, 위장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 금융기관들의 주의를 촉구한 바 있음.

● 유엔, 對北인권결의 공식 채택(12/20, 연합)

- 유엔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총회를 열어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대북한 인권결의를 공식 채택, 이날 표결에는 미국과 일본, 독일 등 99개국이 찬성했고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 20개국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63개국은 기권
- 유엔이 11월 19일 제3위원회에서 채택했던 대북 인권결의를 총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킴에 따라 유엔은 지난 2005년 이후 5년 연속 북한에 대해 인권결의를 채택한 셈이 됐다.
- 북한 인권 결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적인 중단 촉구, 탈북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가혹한 처벌에 대한 우려 표명, 탈북자 강제 송환을 금지하는 원칙 존중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泰전투기가 北 수송기 강제 착륙시켜(12/17, 러시아 코메르산트)

- 북한 무기를 수송한 그루지야 국적의 일류신(ИЛ)-76 화물기가 재급유(給油) 때문에 태국에 기착했다가 억류된 게 아니라, 태국 영공에 진입한 뒤 태국 전투기들에 의해 강제 착륙한 것이라고, 러시아의 일간지 코메르산트가 17일 보도
- 이 신문은 “평양에서 출발한 ИЛ-76기가 지난 12일 태국 영공에 진입하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태국 전투기 2대가 외국 정보기관의 귀뜸에 따라 ИЛ-76기에 착륙을 지시해 방콕 돈므앙공항에 착륙했다”고 보도
- 이는 ИЛ-76기가 재급유와 바퀴점검을 위해 방콕에 기착한 것을 억류했다

는, 애초 태국 정부의 발표 내용과는 다른 것이며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제 무기를 외국에 팔려던 이 화물기가 애초 운행상의 재급유 예정지인 스리랑카에 가기 전에 태국 영공에서 물리적으로 차단됐음을 시사

● 유엔 北무기 압류조치 긍정 평가(12/16, 연합)

- 태국 정부가 북한제 무기를 신고 가던 화물기를 억류해 조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안보리 결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또 태국 정부가 조사를 끝낸 뒤 제재위에 공식 보고서를 제출하면 관련 협의를 진행할 방침임.

나. 북·미 관계

● 美, 泰압류 북한 무기 행선지는 중동(12/19, 연합)

- 태국 정부가 최근 압류한 북한산 무기의 행선지가 중동 지역이라는 분석이 미국 정보 당국에서 18일(현지시각) 나왔음.
- 테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워싱턴포스트에 “미국과 외국 (정보) 기관 사이의 팀워크 덕분에 중동으로 향하던 북한 무기를 압류할 수 있었다”고 밝힘. 이 발언은 그간 논란이 돼온 북한산 무기의 행선지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첫 번째 공식 발언임. 이 경우 그동안 행선지로 거론돼온 스리랑카와 우크라이나, 수단, 미얀마, 파키스탄 등의 국가보다 이란이 부상하게 되었음. 또 무기압류 과정에서 이뤄진 미국의 역할을 당국이 공식 시인한 것이라는 의미도 있음. 블레어 국장은 미국내 16개 정보기관의 협력이 강화된 점도 한몫 했다고 평가

● 美, 2010년 상반기 평양에 연락사무소 개설(12/18, 연합)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핵 폐기 프로세스에 들어간다면 외교관계 수립문제 등을 협의할 연락사무소를 평양에 개설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들은 18일 이같이 밝히고 “최근 북한을 방문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런 내용을 담은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전언, 이들은 “연락사무소는 북미 공식 수교 이전에 설립하는 것으로 대표부보다 급이 낮다”면서 “평양 연락사무소가 개설되면 국교수립이나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설명

- 이들은 평양사무소 개설 시기와 관련, “북한은 현재 6자회담에 복귀할 명분을 찾고 있다”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6자회담이 재개되고 연락사무소도 개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 **방북 美기업가대표단, 북미 간 평화로운 관계 희망(12/1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을 방문 중인 미국기업가대표단이 북미 사이에 평화로운 관계를 맺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
- 전직 미국 공군 장성인 찰스 보이드 미 국가안보사업이사회(BENS)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단장으로 한 미국 기업가대표단은 12월 14일부터 북한을 방문 중임.
- 통신은 보이드 단장이 주체사상탑을 참관하고 감상록에 “미·조(북)가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번영하는 세계를 건설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글을 남겼다고 보도
- 대표단원들은 또 “앞으로 전쟁 재발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쌍무경제관계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려 한다”고 언급했고 이어 김일성종합대학 수영관을 참관하고 “조선은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하며 경제적 발전 가능성이 대단히 큰 나라”라며 “조선의 교육수준과 지하자원 등은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언
- 미 대표단은 방북 기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의춘 외무상을 만났으며 평양산원을 참관하고 평양교예단 공연도 관람

● **북미 과학자들, 폭넓은 교류 다짐(12/17, 자유아시아방송)**

- 최근 미국 과학자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한 피터 아그리 미국 과학진흥협회(AAAS) 회장이 “(북한 과학자들과) 의학, 에너지, 공학, 기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폭넓은 교류를 다짐했으며 과학교류를 꾸준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
- RFA에 따르면 12월 10~14일 ‘미·북 과학교류 컨소시엄’ 대표단의 단장으

로 북한을 방문한 아그리 회장은 이번에 미 과학자들이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과학 연구소와 실험실, 병원 등을 방문해 의학, 생물학, 에너지 개발, 공학, 산업기술 등의 분야에서 과학교류를 경험했다”고 밝힘.

● 보즈워스, 미북관계 미래 비전 전달(12/17, 연합)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6일 국무부에서 가진 평양 북미대화 결과 브리핑에서 북한 지도부에 현재,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미·북 양자관계의 미래 비전을 내가 직접 전달했다”고 언급
- 보즈워스 대표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준비가 돼 있다면, 우리는 미·북 양자관계와 동북아에서의 북한의 전반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그 방법에 대해서도 북측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설명
- 보즈워스 대표는 오바마 대통령 친서 여부에 대한 즉답을 비켜갔지만,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보즈워스 대표의 브리핑 후 가진 별도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편지가 있었으며, 보즈워스 대표가 그것을 김정일 위원장에 직접 전달하지 않고 북한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공식 확인
- 보즈워스 대표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향후 활동과 관련,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앞으로 수주 동안 당사국들과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이니셔티브를 가질 것”이라며 “이 과정이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 美, 태국 北 무기 억류, 안보리 제재위 보고(12/15, 연합)

- 미국은 14일 북한산 무기 수송기에 대한 태국 당국의 억류 조치와 관련,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어기고 무기를 수출한 것으로 보고 이를 안보리 산하 제재위에 사실상 회부할 방침임을 밝힘.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조치는 이번 사건을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위에 보고하는 것이 될 것”이라면서 “이 위원회는 이번과 같은 사건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언급
- 켈리 대변인은 이어 “북한으로부터의 무기 이전을 금지하고 모든 회원국들에게 무기가 실린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조사하고 억류할 것을 촉구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한 태국 정부를 기린다”면서 “거듭 태국 정부의 행동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힘.

- 그는 압수된 무기의 목적지와 관련, “알지 못한다”면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이들 선적된 무기가 정확히 어디로 향했는지도 그 조사의 일부분”이라고 답변

다. 북·중 관계

● 中자칭린, 북중 고위급 교류에 만족(12/19, 조선중앙통신)

- 중국 권력서열 4위인 자칭린(賈慶林)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1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김완수 서기국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 대표단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
- 자칭린은 “두 나라 최고 영도자들의 깊은 관심 속에서 중조(북중) 친선관계는 끊임없이 발전되고 있다”며 “우리는 중조 사이에 고위급 왕래가 많이 진행되고 경제무역 협조와 문화교류가 확대되고 있는데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
- 그는 또 “중국 당과 정부는 조선과의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고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를 끊임 없이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우리는 조선동지들과 함께 중조 친선협조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中, 김정일 방중설 들은 바 없다(12/18, 연합)

- 중국 외교부는 17일 최근 나도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 임박설을 우회적으로 부인,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들을 확인해 달라는 질문에 “아직 그런 방면의 정보를 들은 바 없다”고 답변

● 北·中 치안총수 회담(12/1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주상성 인민보안상과 중국 명젠주(孟建柱, 62)公安부장이 1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 북한의 인민보안상과 중국公安부장은 모두 우리의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직책임.
- 통신은 “회담에서 쌍방은 두 나라 보안기관 사이의 교류와 협조 관계를 더

육 발전시키는 것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언급했을 뿐 자세한 회담 내용은 전하지 않음.

- 이번 회담에는 북한 측에서 인민보안성 대표단원과 최진수 주중 북한 대사, 중국 측에서 멩홍웨이(孟宏偉) 공안부 부부장 등이 배석

라. 북·러 관계

● 러시아 외무부, 북핵 협상 긍정적 변화 주목(12/18, 연합뉴스)

- 러시아 정부가 최근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일부 긍정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데 대해 상당한 의미를 부여,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외무부 정례브리핑에서 “여전히 풀어야 할 민감한 문제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한반도 북핵 문제와 관련해 점진적이며, 바람직한 진전이 있는 데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
- 특히 브리핑에서 네스테렌코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6자 회담 프로세스 내에서 정치적, 외교적 해결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사실이다”며 “러시아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활발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

마. 북·일 관계

● 日, 국제경기 유치 자격 없다(12/14,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4일 일본 정부가 내년 2월 도쿄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축구연맹 선수권대회 본선에 참가할 북한 여자대표팀의 입국을 반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비난
- 조선신보는 ‘정치적 개입’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 여자축구팀의 입국을 당연히 반대한다”는 일본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공안위원장의 발언을 거론, “체육에 대한 지나친 정치적 개입”이라고 비난, 신문은 특히 “일본은 국제적인 경기를 초청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 일본이 국제대회를 유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

● 北신문, 日에 과거청산 위한 배상 주장(12/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일본의 과거사 청산을 언급하면서 배상을 강조, 이 신문은 ‘철면피성과 도덕적 저열성의 극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 나라들이 오늘 그에 대해 성근(성실)하게 반성하고 배상하는 것은 하나의 국제적 흐름”이라며 “이에 배치되게 과거청산을 한사코 외면하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비난

바. 기타 외교 관계

● 北, 프랑스 문화협력사무소 개설 동의(12/1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프랑스가 제안한 평양 문화협력사무소 개설에 동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 통신은 “프랑스 측은 대통령 특사의 조선 방문 결과에 따라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계 조치로서 평양에 프랑스 협조 및 문화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했다는 것을 통보해왔다”며 “우리는 프랑스와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려는 입장에서 사무소 개설에 동의했다”고 보도

● 北외교관, 스웨덴서 담배 밀수 혐의로 기소(12/15, 미국의 소리 방송)

- 스웨덴에서 최근 담배 밀수 혐의로 체포된 북한 외교관 2명이 16일 기소될 예정이라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15일 보도, 스웨덴 세관 대변인은 방송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들 북한 외교관은 강선희(56)와 박응식(54)이며, 이들이 16일 기소될 예정이라는 것을 스톡홀름시 검찰 당국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소개, 러시아 주재 북한 외교관인 이들은 11월 18일 핀란드 헬싱키를 출발, 러시아산 담배 23만 개비를 차 안에 숨겨 반입하려다 스톡홀름 세관에 적발되었음.

3 대남정세

● 정부, 개성공단에 소방차 5대 지원(12/19, 연합뉴스)

- 정부는 개성공단에 소방차 5대를 지원하고 정식 소방서를 신설하기로 북한

과 합의한 것으로 19일 알려짐.

- 정부 소식통은 이날 “최근 북측과의 협의를 거쳐 소방차가 3대에 불과한 개성공단에 5대를 추가로 지원하고 컨테이너식 가건물 형태인 현 소방서도 정식 소방서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설명, 이어 “소방시설 확충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의 60% 이상이 섬유와 봉제 등 화재에 취약한 업종인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정식 소방서가 신설되면 현재 21명인 소방서 근무 인력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고 소개
-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소방차 추가 지원과 소방서 신설에 필요한 남북협력기금 51억여 원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짐. 정부는 이에 따라 이달 중 소방차 5대를 확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개성공단 현지에 보낼 방침

● 北, 신종플루 치료제 전달에 “상당히 고맙다”(12/18, 연합뉴스)

- 북한에 신종플루 치료제 50만 명 분을 전달한 남측 인도단이 18일 오후 4시 40분께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입경, 단장을 맡은 김영일 통일부 인도지원과장은 출입사무소 입경장에서 “북측은 남측의 신속한 치료제 제공에 상당한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밝힘.
- 김 단장은 이어 “북한은 경험이 많은 남측에서 신종플루 치료제를 지원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남측 상황을 참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북한의 신종플루 발생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게 없다”고 언급
- 인도단은 오전 10시께 북측 인수요원들을 만나 1시간 30분 가량 북측 냉장 차량 11대에 타미플루 40만 명분과 리렌자 10만 명분을 옮겨 실었음. 남측 인도단에 포함된 의료진은 북측 보건 분야 관계자에게 신종플루 치료제 사용법과 그에 따른 부작용 및 주의사항을 30분 넘게 설명, 남북한 인도·인수단은 지원물자 전달 절차를 마무리한 뒤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오찬을 함께 하고 인도·인수증을 교환
- 이 자리에서 북측은 치료제를 시도별로 분배하겠다고 남측에 밝힌 것으로 알려짐. 정부는 당초 북한에 치료제 지원 의사를 밝히며 북한이 30일 이내 분배 내역서를 남측에 통보할 것을 요구했었음.
- 앞서 정부는 이번 대북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178억 원 사용을 의결했

고 이번 지원품목에 함께 포함된 10억 원 상당의 손세정제는 물량이 확보 되는 대로 1월 중순께 북한에 전달할 예정임.

● 北, 외국인 통제설 속 남측단체에 초청장(12/16, 연합)

- 북한이 최근 외국인의 입국을 통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오는 23일 방북하는 우리 측 단체에 북한이 초청장을 발급한 것으로 16일 확인됨.
- 통일부 당국자는 “오는 23일 중국을 통해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우리측 단체에 북한이 초청장을 발급했다”며 “정부는 현재 이 단체의 방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 軍통신·개성택아소 공사 90% 이상 끝나(12/14, 연합)

- 개성공단 내 택아소 건설과 남북 간 육로통행 관리에 사용되는 군 통신선 현대화 공사가 모두 순조롭게 진행돼 예정대로 연내에 완공될 것으로 14일 알려짐.
-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개성공단 택아소 건립과 남북 간 군 통신선 현대화를 위한 공사 모두 현재 90% 이상 끝난 상태”라며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계획대로 올해 안에 공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2.21-12.27

12월
4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및 유엔안보리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러 관계
- 마. 북·일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北통신, 김정일, 올해 200여 곳 현지도(12/26,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올해 공장과 협동농장, 학교는 물론 군부대에 이르기까지 “무려 전국 200여 곳을 현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
- 통신은 김 위원장의 한해 현지지도를 결산하는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1998년 김정일 체제 1기 출범 이후 가장 활발했던 올해 시찰 활동에 대해 “역사가 알지 못하는 초강도 강행군, 빨치산식 대장정이었다”고 밝힘.
- 통신은 김 위원장이 올해 첫 현지도인 원산청년발전소를 비롯해 성진제강연합기업소·김책제철연합기업소 등 금속공업부문, 2.8비날론연합기업소와 승리자동차공장 등을 찾았으며 사리원시 미국협동농장을 방문하는 등 주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에 힘썼다고 주장
- 또 평양대극장, 김일성종합대학, 회령혁명사적지 등을 찾았고 “포사격훈련을 여러차례 지도한 것을 비롯하여 조국의 방선천리를 현지시찰하면서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했다”고 통신은 주장
- 통신은 김정일 위원장이 “열차가 이제는 정든 집으로 되었다”고 말했다고 소개

● 요미우리신문, 김정일, 2010년 초 중국 방문할 듯(12/21, 요미우리신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0년 1월이나 2월 초 사이에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
- 요미우리신문은 북중관계 소식통을 인용, 김 위원장과 가까운 북한 고위 관리들이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잇따라 중국을 방문해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요미우리신문은 북한의 경찰 책임자인 주상성 보안상이 최근 명젠주 중국公安부장과 회담하는 등 북한 고위 관리들의 중국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고 소개,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실현되면 지난 2006년 1월 이후 처음임.
- 소식통들은 중국 당국이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통해 새로운 대북 경제

원조 지원책을 제시하고 대신 북한으로부터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으로의 복귀를 약속받을 것으로 전망

● 北 화폐 개혁, ‘김정은팀’ 주도(11/23, 열린북한방송)

- 최근 단행된 북한의 화폐 개혁을 주도한 것은 후계자로 낙점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정은과 그의 측근들이라고 ‘열린북한방송’이 23일 주장, 방송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기사에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화폐 개혁은 김정은 휘하에 있는 후계지원팀에 의해 제안됐으며 김정일이 이를 허락한 것”이라고 보도
- 방송은 “김정은팀은 지난 2002년 7·1 경제조치 결과를 분석한 뒤 새로운 김정은 시대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김정은 시대를 위해 가장 선행해야 할 것을 재정 개혁으로 보고 민간 유통 현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조치를 강행했다”고 설명, 또 방송은 “화폐 개혁은 돈의 가치를 높이고 물가를 잡아 앞으로 진행될 김정은식 개혁, 개방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주장

나. 정치 관련

● 북한 강원도당 책임비서 리철봉 사망(12/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강원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리철봉(73)이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
- 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리 책임비서의 사망에 “애도의 뜻을 표시해 영전에 화환을 보냈다”고 전했으나 사인이나 사망일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리 책임비서는 1884년 정무원 사회안전부 부장에 이어 도시경영부 부장(1989년), 내각 철도성 정치국장(1999년-2005년)을 거친 후 지난 2006년 10월 강원도 당위원회 책임비서에 올랐으며, 1986년 최고인민회의 제8기 대의원부터 지난 3월 선출된 제12기 대의원까지 역임, 그는 지난 10일 열린 강원도 원산제염소 건설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에 참석한 바 있음.

● 北리영호, 자주권 행사 휘방시 보복타격(12/23, 조선중앙통신)

-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남측 합참의장 해당)은 23일 미국이나 남한이 그들의 '자주권 행사'를 휘방하거나 영역을 침범할 경우 "예측할 수 없는 보복타격으로 침략의 아성을 무자비하게 짓몽개 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리 총참모장은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군 최고사령관 추대 18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 보고를 통해 "조선반도(한반도)에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새 전쟁도발 책동으로 침예한 대결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 그는 내부적으로 "국방공업을 최우선적으로 발전시켜 자위적 전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 리 총참모장은 또 "강성대국의 문을 열기 위한 최후 돌격전의 주 전선은 경제전선"이라며 "2012년에 강성대국 대문을 열려는 당의 결심과 의지를 빛나게 실현할 각오를 안고 진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
- 보고대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명록 군 총정치국장 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김영일 내각 총리, 리용무·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김기남·김국태·전병호 당 중앙위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등이 참석

● 조선신보, 현지도로 강성대국 중요성 보여줘(12/21, 조선신보)

- 올해 최고 기록을 세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활발한 현지도는 '2012년 강성대국' 목표 실현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온몸으로 보여준 '직접 화법'의 성격을 띤다고 조선신보가 21일 보도
- 조선신보는 '2012년 향한 전력질주의 시작'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변이 나는 해' 서막을 연 것은 영도자(김 위원장)의 육성이었다"며 "2008년 12월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지도에서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자는 호소가 있었다"고 주장, 신문은 이어 "예전에도 2012년 언급이 있었지만 영도자가 몸소 제시한 의미는 컸다"며 김 위원장의 현지도를 '인민들을 향한 직접 화법'이라고 찬양

● 北신문, 정주영 회장 ‘띄우기’ 눈길(12/5, 통일신보)

- 통일신보(12.5)는 ‘화해와 협력의 길을 개척한 노(老)기업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 전 회장의 일생과 업적을 회고, 북한 언론이 특별한 계기도 없이 고(故)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을 ‘통일운동사에 뚜렷한 자국을 남긴 인사’라며 치켜 세움
- 신문은 “겨레 통일운동사에 경제협력으로 민족화해와 단합을 위해 뚜렷한 자국을 남긴 인사가 적지 않은데 그 가운데 남조선(남한) 현대그룹 전 명예 회장이던 정주영 선생도 있다”고 고인을 평가
- 신문은 정주영 명예회장의 대북사업 추진배경에 대해 “한생을 자본 축적과 기업 확대를 위해 살았지만 인생의 저녁놀을 바라보는 시점에 허무함을 느끼게 되면서 여생을 고향이 있는 북과 경제 협력에 바치고 싶어했다”고 소개

다. 경제 관련

● 北, 평양서 성진제강 노동자 환영행사(12/2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5일 평양체육관에서 ‘주체철’ 생산체계를 완성한 함경북도 김책시 성진제강연합기업소의 노동자·기술자 대표단을 환영하는 보고대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당과 군대, 국가 간부들이 다수 참가한 가운데 열린 대회에서는 성진제강연합기업소 노동자·기술자들에게 보내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방위원회 공동명의로 ‘축하문’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전달, ‘축하문’은 “우리 식 제철제강법의 대성공은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성강(성진제강) 노동계급의 백철불굴의 정신력이 안아온 전인민적, 전국가적인 대경사”라고 강조
-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보고대회 보고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성강의 노동계급이 주체철에 의한 강철생산 방법을 완성한 것은 참된 충신들만이 창조할 수 있는 기적이며 3차 핵시험 성공보다 더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해 주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언

● 북한의 화폐 개혁과 쌀값 동향(12/24, 연합)

- 북한의 화폐 개혁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당국은 북한의 쌀값 동향을 예의 주시, 지난 2002년 북한이 취한 7:1 경제관리조치에 따라 쌀값이 모든 물가의 기준이 됐다는 점에서 쌀값의 추이가 이번 화폐 개혁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좋은벗들’은 최근 북한이 신·구권 1대100 비율로 화폐 개혁을 단행한 후 각종 상품의 새 국정 가격을 정하면서 쌀값은 kg당 23원으로 공시했다고 전언, 이에 대해 당국자들은 24일 그것이 국정 가격인지, 시장에서 임시 통용되는 거래 기준인지 불확실하다는 반응을 보임.
- 다만 23원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 주력, 일단 신·구권 교환 비율과 물가를 연동할 경우 화폐 개혁 후 국정 쌀값은 현행 kg당 45원의 ‘100분의 1’인 45전이 되는데, 실제 국정가격이 kg당 23원으로 결정됐다면 북한 당국이 쌀값을 50배 이상 올린 셈이 됨. 일부 관계자들은 화폐 개혁 직전 쌀 1kg의 시장 거래가격을 현실화한 것이라는 분석을 했다. 다시 말해 북한 내 시장에서 국정 가격의 40~50배인 1천700원~2천500원으로 쌀값이 통용됐으며, 북한 당국이 이를 반영해 새로운 국정가격을 정했다는 것임.
-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소식지들이 전하는 북한의 쌀 국정가격이 최종 확정된 가격인지, 국정 가격이 확정되기 전 시장에서 임시로 통용되고 있는 일종의 ‘기준 가격’인지 확실치 않다”고 언급
- 한 대북소식통은 “북·중 간 왕래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북한의 국정 쌀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kg당 20~30원에, 일부 지역에서는 40~6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고 전언

● 北 곡물 501만 톤 생산, 도정前 생산량인 듯(12/23, 연합)

- 한 대북 소식통은 23일 “비공식 경로로 확인한 결과, 북한이 올해 쌀, 옥수수, 감자 등 곡물 501만 톤을 생산했다고 FAO에 보고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북한은 곡물 생산량을 공개할 때 도정 전의 조곡을 기준으로 삼아왔는데 이번 FAO 보고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 북한이 생산했다고 보고한 501만 톤을 사람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정곡으로 환산하면 대략 400만~410만 톤이 될 것으로 추산됨.
- 일례로 조곡에서 정곡으로 가공될 때 무게가 가장 많이 빠지는 쌀의 경우

추수한 낱알에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왕겨를 벗겨내고 알곡 도정까지 마치면 통상 원래의 70%로 줄어듦. 우리 농촌진흥청은 작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정곡 431만 톤으로 추정했는데 이 수치와 비교하면 올해 생산량(400만 톤 내지 410만 톤)은 작년보다 최고 7% 가량 줄어든 셈임.

- 전문가들은 2천405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 연간 정곡 500만 톤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외부에서 부족분 100만 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산술적으로 500만 명 가까운 주민들이 내년에도 식량난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옴.

● 식량지원 축소, 北 식량난 설상가상(12/22, 연합)

- WFP는 2008년 한해 동안 미화 1억 4천800만 달러 상당의 식량을 북한의 8개 도(道), 131개 군에서 620만 명에게 지원, 그런데 올 하반기부터 그 지원 규모를 6개 도, 62개 군의 200만 명으로 축소했고 후속 조치로 함흥, 해주, 혜산의 현장사무소를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힘.
- WFP가 북한 식량 지원에 투입한 예산은 올 들어 8월까지 6천100만 달러(월 763만 달러)에 그쳐 작년(월 1천233만 달러)에 비해 월평균 대비 38% 감소했음. 지원 인원을 봐도 작년 전체의 620만 명(월 51만 7천 명)에서 하반기 200만 명(월 33만 3천 명)으로 36% 줄어든 셈임.
- 이같은 WFP의 지원 축소는 올해 북한의 농작물 작황이 별로 좋지 않고, 남한의 식량 지원도 사실상 중단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의 식량 수급에 심각한 타격을 안겨줄 것으로 보임.
- WFP의 대북 식량지원은 2006년 1천800만 달러, 2007년 4천800만 달러 수준에 머물다가 2008년 북핵 협상의 진전에 따라 미국의 자금이 투입되면서 전년 대비 3배 이상으로 급증했음. 그후 북미 양국 간의 핵협상이 다시 고착 상태에 빠지고 식량 지원 모니터링 조건을 놓고도 이견이 불거져 결국 2008년 9월부터 WFP를 통한 미국의 식량 지원은 전면 중단됐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대한 보상으로 2008년 5월 식량 50만 톤을 12개월에 걸쳐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북한에 전달된 물량은 16만 9천 톤에 그쳤음. 실제로 WFP는 대북 식량 지원 축소 계획을 담은 보고서에서 '국제사회의 모금이 저조하다'는 이유를 내세우기도 했음.

● 北전화요금, 화폐 개혁 이후 6배 올라(12/21, 자유북한방송)

- 북한 당국이 전격 단행한 화폐 개혁 이후 일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신소의 공용전화 사용요금이 이전보다 6배쯤 올랐다고 자유북한방송이 21일 보도
- 이 매체의 양강도 혜산시 통신원은 “구권 기준으로 분당 3원하던 시내통화요금이 화폐 개혁 이후 신권 17전으로 올랐고, 시외통화는 도와 시, 군까지의 거리를 따져 요금을 물게 만들었다”며 “100:1 화폐 교환 비율로 보면 6배 정도 올라 주민들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언
- 언뜻 보기에는 사용요금 단위가 ‘원’에서 ‘전’으로 내려 인하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구화폐 기준으로 볼 때 분당 3원에서 17원으로 올린 것임.

라. 군사 관련

● 北, 美여기자 체포 초병 ‘영웅’ 대접(12/24, 조선중앙TV)

- 북한 국경을 무단 월경했던 미국 여기자들을 붙잡은 북한군 초병들이 표창을 수여받는 등 ‘영웅’ 대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조선중앙TV는 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 18주년을 맞아 ‘불패의 강군을 키우신 위대한 영장’이라는 텔레비전 기념무대를 내보냈는데 이 프로그램에 미국 여기자들을 직접 체포했다는 국경 초병 손용호와 김철이 출연, 사회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 여기자들을 체포한 이들의 공을 높게 평가해 ‘김일성 청년영예상’을 수여했으며 고향으로 특별 휴가를 보내줬다고 소개

● 대청해전 이겼다, 北거짓선전(12/24, 조선중앙TV)

- 북한이 11월 10일 일어났던 ‘대청해전’에서 승리했다고 거짓 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측 경비정은 우리 측 해군에 의해 반파된 채 퇴각했고 여러 명의 사상자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음. 그러나 조선중앙TV가 24일 방영한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18주년 기념 방송에 대청해전에 참전했다는 해군들이 나와 “우리가 쏜 명중 포탄에 적진 사령탑이 날아가고 선체에 구멍이 뚫렸다. 먼저 두 척이 연기를 내뿜으며 달아나고 나머지 함선들도 황급히 달아났다”는 등의 거짓 주장을 펼침.

● 北, 내전 콩고공에 무기 3,400톤 밀매(12/23, 미국의 소리 방송)

- 북한이 지난 1월 내전(內戰)이 한창인 아프리카의 콩고민주공화국에 무기 3,400여 톤을 밀매했으며 이 중 상당량이 콩고 반군과 인근 국가에 유입됐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23일 유엔 안보리 콩고조사위원회 위원의 말을 인용해 보도
- 콩고조사위의 디트리히 위원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월 21일 북한 선박인 비로봉호가 콩고의 보마(Boma)항에 입항해 최근 태국에서 압류된 북한산 무기 35톤의 100배가 되는 3,400여 톤의 무기를 하역했다"고 주장, 그는 "북한 무기가 상당히 현대화된 무기였다는 정보는 입수했지만 구체적인 내역은 파악하지 못했다"며 "만약 전량 AK소총이었다면 80만 정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라고 설명 북한은 지난 5월 콩고에 군사 교관을 보내 약 4주간 콩고 정부군을 훈련시켰으며 그 무렵 북한은 2차 핵실험을 강행
- 또 디트리히 위원은 "한 정보에 따르면 콩고 동부에서 활동하는 반군들의 첨단 무기도 북한에서 수입된 것과 같은 종류"라며 "(콩고 정부군의 무기는) 짐바브웨 같은 주변 국가들에 다시 판매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
- 2008년 채택된 콩고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 1807호는 '콩고와의 모든 무기 거래와 군사 교육 등은 반드시 유엔에 사전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있음.

● 北해군사령부의 NLL도발은 험박용(12/21, 북해군사령부 대변인 성명)

- 북한 해군사령부는 2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 책동에 대응해 우리 해군은 아군(북한군) 서해상 군사분계선 수역을 해안 및 섬 포병 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의 '평시 해상사격 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힘.
- 북한군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서해상 군사분계선은 현재의 서해 북방한계선(NLL)보다 훨씬 남쪽으로 내려와 있음. 따라서 북한 해군이 밝힌 '평시 해상사격 구역'은 우리 해역과 겹치기 때문에 북한군의 사격 훈련이 우리 선박을 직접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제기됨.
- 실제 북한은 성명에서 "아군 해상 사격구역에서 모든 어선들과 기타 함선들은 피해가 없도록 자체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조선 서해에는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NLL)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선포한

해상 군사분계선만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금 내외에 천명한다”고 강조

마. 사회·문화 관련

● 北, 화폐 개혁 후 안정 위해 불만 차단 전력(12/27, 아사히 신문)

- 북한이 화폐 개혁 이후 새 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구권 화폐의 한도액을 1인당 50만 원으로 올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이자 후계자로 유력시되는 정은씨를 지칭하는 ‘김대장’ 명의의 구제금을 가구당 500원 지급하기로 하는 등 주민 불만을 차단하고 정은씨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정책에 나서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27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당초 1인당 10만 원까지 새 화폐를 교환해 주기로 했으나 각지에서 항의가 잇따르자 상한액을 15만 원, 30만 원으로 올렸다가 최근에는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또 노동자의 급여는 구화폐의 금액을 그대로 신화폐로 지급, 실질적으로 100배 인상하는 방안을 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만, 급여는 아직 지급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관측도 있음. 500원의 구제금은 12월 20일께 ‘인민반’이라고 불리는 말단 주민자치조직의 간부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실제 주민들에게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될지는 분명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은 이를 반신반의하고 있으며, 평양의 아주 일부 주민에는 이미 지급됐다는 정보도 있다고 이 신문은 전언
- 새 화폐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당국은 국영 상점에 대해 새 화폐로 정찰제 판매를 지시, 이들 가게에서는 1kg을 기준으로 쌀 44원, 돼지고기는 45원, 콩 12원이라고 표시돼 있음. 하지만 국영 상점에서 판매하는 물량은 얼마 되지 않고, 암시장에서는 이 가격의 5~120배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소개
- 이런 가운데 거리를 달리는 당국의 선전차는 “화폐개혁은 인민의 물질문화를 평등하게 하려는 올바른 조치다”, “인민이 마음편히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반복해서 방송하는 등 주민의 불만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

● 北, 올 스포츠 최대성과 월드컵 진출 꼽아(12/2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올해 스포츠 부문의 최대 성과로 44년 만에 이룩한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진출권 획득을 꼽음.
- 통신은 '훌륭한 체육성과들이 이룩된 한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6월 남자축구선수들은 국제축구연맹 2010년 월드컵경기대회 참가자격을 획득함으로써 날로 발전하는 조선축구의 위력을 다시금 과시하였으며 온 나라를 기쁨으로 설레이게 하였다"며 1966년 잉글랜드 대회 이후 무려 44년 만에 월드컵 본선무대에 서게 된 흥분을 되새김.
- 통신은 이어 레슬링, 체조, 유도, 역도를 비롯한 여러 종목의 국제경기들에서도 금메달을 쟁취한 선수들이 많이 배출됐다고 하며 지난 9월 덴마크에서 열린 2009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 자유형 55kg급에서 우승한 양경일(20), 지난 7월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제25회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여자체조의 홍은정(20), 이달 홍콩에서 열린 제5회 동아시아게임 여자 역도 63kg급에서 우승한 박현숙(24) 등을 대표적인 선수로 거론

● 北, 악수는 우리 민족에 안 맞아(12/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인사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의 절은 우리 민족의 감정과 정서에 맞으며 생활적으로도 매우 편리하고 친근감을 불러일으키는 우리의 인사법"이라고 규정, 노동신문이 난데 없이 서양식 악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고유의 인사법을 권장하고 나섬.
- 신문은 "머리를 숙여 절을 하는 우리 인민의 인사법은 단정하고 위생적이며 예절 바른 것이 특징"이라며 "악수를 하는 것과 같은 인사법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강조, 신문은 민족 고유의 인사법이 도덕적이고 위생적이라는 설명만 했을 뿐 갑자기 왜 현 시점에서 악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자세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음.
- 앞서 조선중앙TV도 11월 4일 "감기 예방에 제일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법은 손을 정상적으로 씻는 것"이라며 손씻기를 권장하는 방송을 내보냈음.

● 北주민 50만 명 몰래 성탄절 기념(12/25,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에서 당국의 감시를 피해 가정과 지하교회에서 기독교를 믿는 신자 수

가 약 40만~5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은 비밀리에 성탄절을 기념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국제기독교 단체 ‘오픈 도어즈’(Open Doors) 관계자를 인용, 보도

- RFA는 “북한 주민들에게 성탄절은 그저 평범한 하루와 다르지 않지만, 지하교인들은 성탄절 이브에 따로 가족끼리 만나 성탄절을 기념하고 있다”며 “북한 내 지하 기독교 신자 중 7만~10만 명은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
- 북한 당국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평양에 교회와 성당을 세우고 1만 2000명의 기독교 신자가 있다고 선전하지만, 미 국무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을 9년 연속 ‘종교의 자유가 없는 특별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

● 北, 정대세·안영학에 ‘인민체육인’ 증서 전달(12/25, 조선신보)

- 북한 축구대표팀의 간판 스트라이커인 정대세(25, 가와사키)와 미드필더 안영학에게 12월 22일 북한 ‘인민체육인’ 칭호 증서를 전달했다고 조선신보가 25일 보도
- 신문은 “인민체육인 칭호를 전달하는 모임이 22일 (일본 도쿄의) 조선회관에서 진행됐다”며 허종만 조총련 책임부의장이 이들과 함께 북한축구협회 부회장인 김광호 축구대표팀 감독에게 명예칭호 증서를 전달했다고 보도

● 北과격적 금전 살포, 돈풀어 ‘민심’ 사나(12/23, NK지식인연대; 데일리NK)

- ‘NK지식인연대’는 23일 홈페이지 글에서 통신원 전언을 인용, “지난 18일부터 모든 협동농민(협동농장원)에게 국가장려금으로 가구당 1만 4천 원씩 지급하고 있다”며 “북한의 현재 환시세로 볼 때 미화 350달러가 넘는 금액”이라고 밝힘.
- 이 장려금을 화폐 개혁 이전의 구권으로 환산하면 140만 원 상당인데, 이는 화폐 개혁 이전 많이 받는 노동자(월급 4천 원)의 29년치(350개월) 월급에 해당, 장려금은 가을철 추수 후 농장원에게 지급되던 분배금이나 국가가 곡물을 구매하고 지급하는 수매금이 아니라 협동농장의 모든 가구에 지급 되는 것이라고 이 단체 관계자는 설명
- 데일리NK도 북한 당국이 협동농장 농민들에게 적게는 1인당 1만 5천 원부

터 많게는 15만 원까지 거액의 신권을 한해 농사를 결산하는 ‘현금분배’ 또는 ‘국가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전언, 연간 곡식생산 목표를 달성한 농장에는 1인당 10~15만 원씩의 현금분배를, 그렇지 못한 나머지 농장에는 장려금 명목으로 1인당 1만 5천 원씩을 주고 있다고 전언

- 데일리NK는 22일 ‘내부 소식통’을 인용, “노동자와 사무원에 대해 17일부터 화폐 개혁 이후 첫 임금이 지급됐는데 새 임금에는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당시의 기준이 적용됐다”고 소개

● 北, 부유층 잡기 위한 제2라운드 조치(12/23, 조선일보)

- 북한이 화폐 개혁을 전격 단행, 1차로 시장 상인들과 부유층의 현금을 흡수한 이후 달러와 유로화 등 외화를 대량 보유한 ‘진짜 숨은 큰손’들을 잡기 위한 제2라운드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22일 알려짐.
-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12월 중순부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조차도 달러, 유로화 등 외화를 직접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철저히 북한 돈으로 바꿔서만 사용토록 정함.
- 종전에는 호텔이나 시장 등에서 북한 돈과 굳이 바꾸지 않아도 달러 등 외화를 직접 쓰는 게 가능했다고 함. 북한 당국은 또 당·정(黨政)의 외화별이 기관들이 달러를 이유 없이 오랜 기간 갖고 있거나, 현금 결제시 달러로 할 경우 모두 몰수 조치하겠다고 통고했음. 북한 당국은 이런 조치를 공표한 뒤 전국의 유선방송 등을 통해 “달러를 직접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면 즉각 신고하라”고 주민들에게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이번 조치로 일단 화폐 개혁 이후 급등하던 달러 가치가 안정세로 접어드는 효과는 거두고 있다는 전언
-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의 웬만한 고위층과 외화별이 기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철저히 외화로 현금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음. 돈 많고 고위층일수록 북한 돈은 쓸 만큼만 바꾸고 외화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관행이 됐다는 것임.

● 창광음식점 거리 새단장(12/22, 조선신보)

- 평양 중심부 창광음식점 거리가 개건(改建)돼 12월 1일부터 다시 영업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2일 보도, 고려호텔 근처 창광음식점 거리는 1985년

8월 꾸려져 20여 개 식당들이 모여 있었으나 2008년 4월부터 개건공사가 시작돼 마무리된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

● 北, 새 화폐로 종전 수준 임금 지급(12/22, 데일리NK; NK지식인연대)

- 북한 당국이 '100대 1' 화폐 개혁을 단행한 이후 처음 노동자들의 임금을 예전 수준에 맞춰 새 화폐로 지급했다고 데일리NK가 22일 보도
- 데일리NK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 "노동자와 사무원에 대해 17일부터 화폐 개혁 이후 첫 임금이 지급됐지만 당 기관과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등 권력기관 종사자들은 제외됐다"면서 "새 임금에는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당시의 기준이 적용됐다"고 전언
- 매체에 따르면 7.1 조치 때 북한의 임금은 편의봉사소 등 경노동 분야 1천200원, 도시건설대 등 일반 건설 분야 1천500원, 탄광 등 중노동 분야 1천700원, 당 간부 3천300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새 화폐로 당시와 비슷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됨.
- 'NK지식인연대'도 통신원 전언을 인용, "함경북도 회령시와 온성군에서 보건, 교육 부문의 공직자들에게 월 생활비를 기존 액수대로 지급했다"며 "이들의 월급은 평균 1천800원 내지 2천600원 수준인데 화폐 개혁 이후 신권의 가치로 따지면 상당한 액수"라고 언급
- 단체는 이어 "현재 시장 상인들 사이에 유통되는 미 달러와 북한 돈의 환전 비율이 달러당 38원 정도인데 회령과 온성에서 지급된 월급을 달러로 환산하면 50달러 내지 70달러로, 화폐 개혁 이전에 비하면 100배로 늘어난 셈"이라며 "실제로 시장에서 쌀(kg당 35원) 50kg 내지 70kg을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설명, 또 "공장, 기업소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월급을 기존대로 지급하고, 협동농장 농민에 대한 현금 분배도 종전대로 이뤄진다고 한다"면서 "새 화폐로 기존 수준의 월급을 지급한다는 소문이 현실화됨에 따라 화폐 개혁에 대한 주민들 반응도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전언

● 김정일, 묘향산을 '세계적 관광등산지'로 조성 지시(12/22, 조선신보)

- 북한은 묘향산을 세계적 관광등산지로 조성하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근 지시에 따라 전문가들을 동원해 124곳의 명소를 찾아냈다고 조선신보가 22일 보도

- 조선신보는 북한 문화보존지도국 기영남(42) 처장의 말을 인용, “(김 위원장이) 묘향산지구에서 새로운 명소를 더 많이 찾아내 인민의 문화휴식터, 세계적인 관광등산지로 훌륭히 꾸리는(조성하는) 것에 대한 과업을 제시했다”면서 그 결과 폭포, 담소, 기암, 봉우리, 전망대, 절, 약수, 샘물 등 124 곳의 명소를 찾아냈고, 이 가운데 가치가 크다고 인정된 폭포 21곳, 담소 5 곳, 기암 21곳 등 47곳에 대해 북한의 고고학, 언어학, 역사학, 지리학 전문가들이 모여 형태와 특성에 맞게 이름을 달았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2 대외정세

가. 북·미 관계

● 로버트 박, 월북 직후 체포된 듯(12/27, 연합)

-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무단으로 월북한 재미교포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28)씨가 북한 국경을 넘자마자 군인들에게 체포된 것으로 전해짐.
- 북한 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자유와 생명 2009'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박씨의 월북을 목격한 인물의 말을 인용해 “박씨가 얼어붙은 폭 30m 정도의 두만강을 건너 북한에 들어가자마자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다”고 밝힘. 이 관계자에 따르면 박씨는 중국 지린(吉林)성 룡징(龍井)시 카이산툰(開山屯)진에서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 방원리로 들어갔으며 왼손에 성경책을, 오른손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송가의 가사를 출력한 종이를 들고 찬송가를 부르며 강을 건넜음.
- 한편 미국은 박씨 월북 직후 “미국 정부는 국민의 보호와 안녕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으며 북한 언론은 이틀째 이 사건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음.

● 재미교포 인권운동가, 두만강 건너 北 무단진입(12/26, 연합)

- 재미교포 출신의 북한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28)씨가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성탄절인 25일 중국에서 두만강을 건너 아무런 허가조치 없이

북한에 들어갔다고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가 26일 밝힘.

- 전 세계 북한 인권 및 탈북자 관련 100여 개 단체 간 네트워크라는 '자유와 생명 2009'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우리 네트워크 대표인 박씨가 성탄절인 어제 중국 연길을 거쳐 오후 5시께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 쪽으로 들어갔다"고 설명, 이 관계자는 "박씨가 북한 김정 일 국방위원장 앞으로 보내는 편지를 휴대하고 갔는데 편지에는 죽어가는 북한 인민들을 살릴 식량, 의약품 등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국경을 개방할 것과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정치범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힘.

● 北, 미국에 투자 적극 요청, 못하겠다 했더니 충격 받더라(12/26, 조선일보)

- 북한은 최근 잇달아 미국의 기업인들과 민간단체들을 초청해 투자를 요청했다가, 유엔 안보리의 1874호 대북제재 때문에 외국기업의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 지난 14일부터 4일간 방북한 찰스 보이드(Boyd) 미 '국가안보사업이사회(Business Executives for National Security·BENS)' 회장은 24일 "북한 관리들은 우리 일행이 투자문제에 대해 전혀 논의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아연실색했다(dumbfounded)"고 언급, 보이드 회장은 '북한경제위치'라는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관리들은 우리가 북한에 몇 달러도 투자할 생각이 없으며,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하러 왔다는 것을 알고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으며 불쾌해했다"고 설명, 그는 "우리는 처음부터 어떤 종류의 대북 투자에도 관심이 없고, 국제 제재 탓에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지만, 북한 관리들은 우리가 기업인들과 함께 갔기 때문에 북한 투자에 관심 있다고 믿었던 것 같다"고 설명
- 보이드 회장은 "북한 관리는 투자문제를 논의하기 바랐을 뿐, 외국인 투자와 핵 문제를 연계해 말하기 싫어했다"고 소개, 또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주변국들에 의해 북한이 얼마나 위협 당하고 있는지 아느냐고 말했다고 전언

● 美, 국제사회 대북공조 올해 핵심 성과(12/24,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23일 공개한 '개입(engagement)의 새 시대'라는 제목의

2009 회계연도 재정보고서를 통해 미 외교의 첫 번째 전략적 목표는 평화와 안전보장 달성이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 채택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을 비난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유지한 것”이 이와 관련된 핵심 성과 중 하나라고 밝힘.

- 또 대북공조 유지 외에 러시아와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상 착수, 미·중 전략경제대화 첫 개최 등도 핵심 성과라고 밝힘.
- 이어 북한의 핵무기 추진, 무기기술 확산, 인권, 인도적 문제 등 광범위한 북한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올해 초 대북 정책 특별대표를 임명했다고 소개, 이와 관련 보고서는 미국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와 북한의 NPT(핵무기비확산조약) 및 IAEA(국제원자력기구) 복귀 등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힘.

● **美, 보즈워스 방북이후 北 신호 못받아(12/23, 연합)**

- 미국은 22일 북한으로부터 아직 6자회담 복귀에 대한 구체적인 신호는 받지 못했다고 밝힘.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레브리핑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이후 북측으로부터 향후 행보와 관련된 신호(indication)을 얻었느냐는 질문에 “받지 않았다”고 언급
- 크롤리 차관보는 “우리는 북한이 6자회담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싶다”면서 “우리는 (북측과) 건설적인 만남을 가졌으며, 그들이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북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신호를 명백히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
- 그는 이어 ‘6자회담이 내년 2월 이전에 개최되어야 흐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 정부 소식통의 언급과 관련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사람들이 6자회담이 죽었다고 선언한 것을 이전에도 여러 번 봤지만, 그런 사망 주장들은 너무 이른 것이었다”고 지적
- 이 밖에 그는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시 평양에 미국의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이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

나. 북·중 관계

● 北, 숨진 선양 北영사 살해됐다(12/22, 연합)

- 북한이 지난 10월 실종됐다 변사체로 발견된 자국 선양(瀋陽)총영사관의 김모 영사가 피살된 것이 분명하다며 중국 당국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섬. 북한 당국이 김 영사의 사망과 관련,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 외교 소식통들은 중국 공안 당국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들을 근거로 그동안 그가 자살한 것으로 추정
- 북한 당국의 한 관계자는 22일 밤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숨진 김 영사의 온몸이 멍 투성이었고 머리에도 흉기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15cm 크기의 상처가 있었다”며 “사망한 김 영사는 피살된 것이 분명하다”고 밝힘. 그는 “자살할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자살이었다면 최소한 유서라도 남겼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며 “여러 정황상 자살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잘라 언급, 이 관계자는 김 영사의 실종 및 사망 경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며 중국 측의 안이한 대처에 불만을 표시
- 김 영사가 지난 10월 6일 오전 은행에 다녀오겠다며 영사관을 떠난 뒤 오후 1시께 지인과 점심을 먹고 있는데 곧 돌아가겠다고 전화를 걸어왔으나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연락이 두절됐다는 것. 북한 선양총영사관은 이튿날인 7일까지 김 영사가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안 되자 중국 공안 당국에 실종 신고를 냈음. 김 영사에 대한 중국 공안의 조사가 진척이 없던 10월 19일께 중국의 한 주민이 선양의 훈허(渾河) 강변에서 주웠다고 김 영사의 신분증을 갖고 북한 총영사관을 찾았음. 북한 측이 이 신분증을 제시하자 중국 공안은 이틀 뒤인 21일께 모 병원의 시체 보관실에 안치돼 있던 김 영사의 시신을 확인시켰다는 것임.

다. 북·러 관계

●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기념행사 개최(12/2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 18주년과 김 위원장 생모인 김정숙의 92번째 생일을 맞아 23일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기념행사가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 행사에는 러시아의 의회, 외무부, 국방

부 관계자들이 참석

● 러시아 국립아카데미 민속무용단 김정일에게 새해 맞이 선물 전달(12/27, 조선중앙방송)

- 러시아 국립아카데미 민속무용단이 새해를 맞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선물을 보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7일 보도, 무용단 지배인은 12월 22일 김용재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에게 선물을 전달

● IAEA도 북핵 문제 해결 관여해야(12/23, 이타르타스 통신)

- 북핵 6자회담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르다브킨 외무부 아·태담당 차관은 23일 러시아 관영 이타르타스 통신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IAEA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개입해야 한다"며 "러시아는 그것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보며 IAEA의 동참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그는 또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비친 것이 올해 가장 의미 있는 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는 6자회담 당사국들의 공동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 그러면서 그는 "이것은 북핵 사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으며 이런 북한의 동의를 내년 초에 이행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6자 회담 재개 가능성을 피력, 이어 "이 과정에서 의장국인 중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북한도 '유연성'을 보이길 바란다"고 밝힘.

- 그러나 보르다브킨 차관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면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북한과의 협력은 철저히 배제될 것"이라고 주장

● 러시아 극동 지역서 北주민 12명 한국행(12/23, 교도통신)

- 벌목공과 탈북자 등 북한 주민 12명이 지난 9월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州)에서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의 도움으로 한국행에 성공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3일 보도

- 통신은 러시아 보안 당국자와 다른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근로 비자가 만료된 벌목공과 탈북자인 이들은 2007년과 올해 초 사이 편지와 전화 등을

통해 모스크바 UNHCR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해와 UNHCR이 이들의 한국행을 도왔으며 현재 다른 북한 주민 4명의 망명 신청건을 다루고 있다고 전언

- 이 과정에서 러시아 이민 당국은 북한 주민의 새로운 탈북 루트로 러시아가 이용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짐. 러시아를 통해 탈북 시도를 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로, 교도는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북한 근로자가 집단으로 탈북을 감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언
- 교도통신은 이들 12명 외에도 예전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 북한 남성 근로자가 한국총영사관에 망명을 요청, 한국행을 승인받았으며, 2004년에도 두 명의 북한 주민이 한국영사관과 미국영사관에 각각 진입한 이후 한국행에 성공했다고 보도
- 교도는 이어 원칙적으로 러시아 정부는 국경을 넘어 탈북하거나 비자가 만료된 근로자들을 북한으로 추방하고 있지만, 한 러시아 이민관리는 망명에 성공한 이번 12명의 경우처럼 유엔을 통해 망명을 요청하면 인도적 관점에서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고 소개
- 러시아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극동의 아무르주에만 현재 1천700명의 북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리 외무부, 서해 상 남북한 자제력 보여야(12/23, 연합)

- 북한이 서해 상 군사분계선 부근의 자기 측 수역을 '평시 해상사격 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러시아 정부는 22일 남북한 당국이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도록 최대한의 자제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
- 러시아 외무부의 알렉세이 사조노프 정보언론 부국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는 북한이 '평시 해상사격 구역'을 지정한 데 대해 우려한다"라며 "우리는 이처럼 복잡한 상황에서 당사자인 남북한이 자제력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힘. 그는 아울러 "남북한 모두 서해 상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무력 충돌을 일으킬 만한 행동이나 성명전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

라. 기타 외교 관계

- 北-브라질, 무역협정 수정 의정서 체결(12/21,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브라질 간 무역협정 수정 의정서가 21일 평양에서 조인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조인식에는 북측에서 리룡남 무역상이, 브라질 측에서 북한 주재 대사가 각각 참석

- 스위스영화상영주간이 개막(12/21, 조선중앙방송)
 - 북한과 스위스연방 사이의 외교관계 수립 35돌에 즈음해 20일 평양 대동문 영화관에서 스위스영화상영주간이 개막됐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1일 보도
 - 개막식에는 북한-스위스친선협회 위원장인 홍선옥 대회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과 관계 부문 일꾼(간부), 평양 주재 스위스연방 특명전권대사가 참가했으며, 스위스 예술영화 '하이디'를 감상했다고 방송은 보도

3 대남정세

- 다음주 초 대북지원 기금 200억 원 의결(12/25, 연합)
 - 정부가 12월 28일께 대북 인도적 지원에 쓸 남북협력기금 200여억 원을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정부 소식통은 25일 “현재 대북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서면 심의 과정을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28일 통일부 장관 서명을 거쳐 지원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
 - 지원 대상 및 규모와 관련,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의 대북 영유아 지원 사업에 150억 원 이상이,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 영유아 영양 지원과 기초 의약품 제공, 북한 산림녹화지원 등에 약 60억 원이 각각 지원된다고 이 소식통은 전언

- 北, 해외공단 시찰에 관심은 임금뿐(12/23, 연합)
 - 북한은 지난 12~22일 이뤄진 해외공단 남북 공동시찰에서 임금 문제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23일 알려짐.

- 우리 측 단장인 김영탁 통일부 상근 회담대표는 브리핑에서 “북측은 해외 공단의 근로자 임금, 운영 체계, 보험·회계 등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며 “특히 개성공단 (우리측) 입주기업들의 (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사례가 종종 있다며 현지 기업 측에 관련 질문을 많이 했다”고 전언
- 북측은 이번 시찰에서 베트남 공단의 최저임금은 60달러, 중국 공단은 100달러를 넘는다는 사실을 확인, 현재 개성공단의 최저임금(사회보험료 제외)이 57달러쯤인 점을 감안할 때, 북측이 이번 시찰을 계기로 공단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됨. 또 북측은 기숙사를 운영하는 해외기업의 경우, 식비나 운영비를 임금에 포함시키는지 등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전언, 현재 북한은 개성공단에 근로자 기숙사(4만여 명 규모)를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음.
- 남북 시찰단은 10박 11일간 중국·베트남 공단의 9개 기업(한국기업 6개) 공장과 공단관리위원회 등을 둘러보았으며 비용은 전액 우리가 부담했지만 통일부 최보선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구체적 액수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

● 서해상 표류 北주민 7명 송환 완료(12/23, 연합뉴스)

- 서해상에서 표류해 남측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 7명이 23일 오전 11시 5분 북한으로 송환됐음. 정부소식통은 23일 “오늘 오전 북측과 판문점 연락관 협의를 통해 북한 주민 7명의 송환시점을 정했고, 이에 따라 오전 11시 5분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북한에 송환했다”고 발표
- 북한 주민 7명은 12월 21일 서해상에서 소형 전마선을 타고 어로 활동을 하던 중 덕적도 서방 17마일 해상까지 표류했다가 우리 어선에 발견돼 해경함정에 예인됐음. 이들이 정부 합동심문 과정에서 전원 북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정부는 22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전통문을 북한에 보내 송환 의사를 전달

● 정부, 北내성결핵 퇴치지원 검토(12/22, 연합뉴스)

- 정부가 북한 내성결핵 퇴치에 필요한 치료제 제공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짐.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에 내성이 강한 결핵이 생겼다고 한다”며 “결핵은 빠른 시기가 중요하며, 곧 지원할 방침”이라고 언급

- 내성결핵은 일반 결핵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2차 항생제를 써야 하는 질병이다. 약값이 고가인데다 완치율도 낮아 치료에 어려움이 많으며, 내성결핵환자에게서 전염된 환자가 바로 내성결핵이 되기 때문에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큼.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등 유관 당국은 북한 결핵 관련 지원 규모 및 경로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내부 검토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짐.
-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아직은 외교부나 유진벨 재단이 북한 결핵문제와 관련해 구체적 협의를 요청해 오지는 않았다”며 “내년에 유진벨 재단이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신청할 경우 정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2.28-01.03

12월
5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북·미 관계
 - 나. 북·중 관계
 - 다. 북·일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신년음악회 관람(1/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2월 30일 평양 만수대예술극장에서 당·정·군 간부들과 함께 은하수관현악단의 신년경축음악회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
- 김 위원장은 공연관람을 마치고 “새해를 맞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 열의는 비상히 높다”며 “전당, 전군, 전민이 새해전투에서 또 다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킴으로써 2010년을 조국청사에 영원할 위대한 승리의 한 해로 빛내야 한다”고 밝혔다고 통신이 보도
- 공연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일 내각 총리,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김국태·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일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등이 동행
- 그동안에는 당·정·군 간부들이 대거 참석하는 행사의 경우, 김영남 상임위원장, 김영일 총리, 김영춘 부위원장 순으로 소개됐으나 이번에는 김 부위원장 대신 오 부위원장을 세 번째로 거명해 오 부위원장의 향후 지위와 역할이 주목됨.

● 김정일, 해군사령부 협주단 공연 관람(12/2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헌법절(12.27)을 맞아 해군사령부의 협주단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
- 공연에는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리영호 총참모장, 김원홍·현철해대장, 정명도 해군사령관 등 군부 고위 인사들과 노동당의 최태복 중앙위 비서, 김경희 경공업부장, 장성택 행정부장, 박남기 계획재정부장,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이 수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김정일 이르면 1월초 방중(訪中) 가능성(12/31, 아사히 신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르면 1월 초순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

본 아사히(朝日)신문이 12월 31일 보도

- 아사히신문은 한국의 대북소식통들을 인용, 2009년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북한 방문 이후 북한 핵심 인사들의 중국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의제 조정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신문은 중국을 방문한 북한의 주요 인사로 최태복 노동당 서기와 김정각·주상성 국방위원 등을 거론

나. 정치 관련

● 평양시민 10만 명, ‘공동사설’ 실천 결의대회(1/2,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은 2일 김일성광장에서 10만 명 평양시민이 참석한 군중대회를 열고 신년 공동사설 실천 결의를 다졌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
- 대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수도의 인민생활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 하겠다”며 이를 위해 “시민들에게 각종 질 좋은 생필품이 더 많이 차례지도록 하고 알곡생산을 늘리며 축산, 양어, 과일기지의 생산능력을 높여 시민들이 하루빨리 그 덕을 보도록 하겠다”고 주장, 또 “수도의 정치사상적 진지, 계급진지를 튼튼히 꾸리고 국방공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며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겠다”고 다짐
- 최영립 평양시당 책임비서도 보고를 통해 “인민생활 향상에 총력을 집중하고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여러가지 소비품을 더 많이 더 질적으로 생산 보장하며 발전소와 탄광부문에서는 수도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전기와 석탄, 원료와 자재들을 제때 충분히 생산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
- 군중대회에는 김영일 총리,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

● 北신년사설, 韓·美 비난 사라져(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등 3개 신문 공동사설 형태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오늘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데 근본 문제는 조미(북미)의 적대적 관계를 종식시키는 것”이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의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북)의 입장은 일관하다”고 주장

- 특히 북한은 올해 신년사설 제목을 ‘당 창건 65돌을 맞아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해 인민 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라고 작성, 추상적인 정치 구호였던 제목에 ‘경공업과 농업’, ‘인민 생활’ 등의 용어가 등장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며,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정치·군사가 아니라 경제를 내세운 것도 이례적임.

● **조선신보, 올해 남북관계서 극적 사변 예감(12/1,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일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에서 인민이 실감하는 대변혁 일으킨다’라는 제목의 북한 신년 공동사설 해설 기사에서 “(북한)인민들은 과거 영도자의 용단에 의해 북남수뇌회담이 두번에 걸쳐 진행되게 된 경위를 잘 알고 있다”며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고 언급한 것은 “올해의 극적인 사변을 예감케 하는 의지 표명”이라고 밝힘.
- 신문은 “올해 공동사설의 북남관계에 대한 언급은 여느 해와 다르고, 많은 내용이 할애돼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방향제시가 있다”며 “2012년을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전략구상에서 민족문제가 주요한 기둥의 하나로 설정돼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강조
- 또 공동사설이 6.15 공동선언 발표 10주년인 올해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규정한 데 대해 “전체 인민이 탐독하는 사설에 쉽게 엮을 수 있는 구절이 아니다”라며 “민족문제와 관련한 목표도 인민들이 실감이 동반될 때 비로소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장

● **조선신보, 2009년 ‘北 9대 뉴스’ 선정(12/25, 조선신보)**

- 조선신보가 12월 25일 ‘2009년 조선(북한)을 돌아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009년을 회고하며 올해 북한의 ‘9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
- ‘9대 뉴스’ 중 1위는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의 12기 1차회의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된 것이었고, 2위는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한 ‘광명성2호’의 발사
- 세 번째 주요 뉴스로는 5월 25일 북한이 감행한 2차 핵실험이 선정됐고 이어 주민 노력동원 운동인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가, 네 번째는 김일성 주석 생일 등 경축일에 평양 대동강변에서 펼쳐진 불꽃놀이가 다섯 번째로 뉴스에 오름

- 이밖에 북한 축구팀의 월드컵 본선 진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방북 등 북중 친선의 전통 확인,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잇따른 방북을 계기로 한 북미관계 전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과 특사조의방문단 서울 파견이 '9대 뉴스'에 들었음.

다. 경제 관련

● 북한돈 對위안 환율, 국경 암시장서 170배 폭등(1/3, 열린북한방송)

- 화폐 개혁 이후 불과 한달 사이에 북중 국경 지역 암시장에서 북한 신권의 중국 위안화 대비 환율이 거의 170배로 폭등했다고 대북 라디오 '열린북한방송'이 3일 보도
- 방송은 북중 무역에 종사하는 조선족 소식통을 인용, "지난해 11월 말 화폐 개혁 직전 중국 돈 1위안은 북한 구권 588원(신권 5.88원 해당)과 교환됐다"면서 "그런데 12월 들어서는 1위안이 3일에 신권 50원(구권 5천 원), 15일에 신권 520원(구권 5만 2천 원)으로 뛰더니 월말에는 1천 원(구권 10만원)에 육박했다"고 밝힘.
- 2009년 11월30일 화폐 개혁 직전 북한 돈 588원에 해당하던 중국 돈 1위안의 가치가 현재 신권 1천 원으로 뛰었다는 것은, 외화교환시에는 100배 절상된 신권의 가치가 구권보다도 훨씬 낮다는 뜻임.
- 방송은 북한 돈의 '對위안' 환율이 이처럼 폭등한 원인으로 북한 무역기관들의 무리한 연말 수입 증대와 북한의 외화사용 금지 조치를 지목, 그러나 예년의 경우 북한 무역기관들의 연말 수입 확대에 따른 암시장 환율 상승 폭이 20~30%에 그쳐, 이번 환율 폭등은 주로 외화사용 금지에서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방송은 분석
- 방송은 "북한 당국의 외화사용 금지 포고문은 작년 12월 28일 게시됐지만 사실은 화폐 개혁 직후부터 그런 소문이 나돌아 북한 돈의 (암시장)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했다"면서 "외화사용 금지로 북한 내부에 달러나 위안화가 풀리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환율이 얼마나 진정될지는 알 수 없다"고 보도

● 北백화점 TV 판매가격 1만~3만 원(1/3, 조선신보)

- 북한 당국이 2009년 11월 말 화폐 개혁을 단행한 이후 새해 들어 북한 최대 규모의 '평양1백화점'에서 판매되는 북한제 텔레비전 1대의 가격은 신권 1만~3만 원이라고 조선신보가 3일 보도
- 조선신보는 '백화점 가격조정 새 화폐로 장보기'라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TV외에 북한제 다른 상품의 가격과 관련해 담요 1천500~3천 원, 평양소주 60원, 강서약수 20원, 과자 1봉지 10~35원, 인삼크림 35원, '가슴띠(브래지어)' 80~140원, 학습장 5~15원, 사발 50~60원 등이라고 전언
- 신문은 현재 1천500~3천 원인 담요의 경우, 화폐 개혁 이전에는 5천~7천 원에 거래가 됐다고 밝혀 상품가격이 구권과 신권의 교환 비율인 100대 1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거래가격을 현실화했음을 나타냈음.
- 또 과거에는 수출품이었던 라선시에서 생산되는 송이버섯술이 1백화점에서 120원에 판매되고 있고, 서평양백화점에서는 사과 1kg에 70원에 팔리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
- 신문은 "대중소비품의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호화상품은 가격이 유지되거나 올라갔다고 한다"고 전언
- 2009년 12월 22일부터 1주일 동안 440여 품종, 400만 개의 상품을 입고 시킨 평양제1백화점은 새해 첫날인 1일 손님들이 몰려 애초 오전 10시인 개장시간을 앞당겨 오전 7시 30분에 문을 열었으며 오전 중에만 TV 155대, 담요 550장이 각각 팔렸다면서 "이날 백화점은 발 들여놓을 자리가 없을 만큼 손님들로 흥성거렸으며 손님들이 너무 많아 오후 3시에는 한번 입장 제한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신문은 소개
- 신문은 이 백화점의 정명옥(53) 지배인의 말을 인용, "특히 농민이나 탄부를 비롯한 힘든 육체노동이 동반되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속에 고수입 세대가 많다"며 "이들은 TV나 세척기, 냉동고와 같은 전기제품들도 구입한다"고 밝힘.
- 신문은 이어 "평양 형제산구역의 농장에서 일하는 리금옥(47)씨는 새 화폐로 5만 원의 분배를 받았다"며 "그의 농장에서는 농장원들이 모두 천연색 텔레비(컬러TV)를 사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소개, 또 "이날 백화점을 찾은 어느 농장원은 온 가족이 농사에 종사해 세대수입이 145만 원에 이르렀다고 한다"고 신문은 보도

- 북한 중앙은행의 조성현 책임부원은 지난해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향후 상품 가격은 나라가 가격조정 조치를 취한 2002년 7월(7.1 경제관리 개선 조치)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음.

● **北농촌, 새해 벽두부터 농사채비로 분주(1/3, 조선중앙방송; 1/2, 조선중앙TV; 노동신문)**

- 북한 농촌 지역에서 새해 벽두부터 거름내기는 물론 영농물자 지원활동 등 농사채비로 분주한 모습이라고 북한 언론매체들이 3일 보도
- 조선중앙방송은 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9년 10월 현지지도 한 황해북도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 새해를 맞아 거름내기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하루 동안에 백 수 십t에 달하는 거름을 논밭에 내갔다”고 전언
- 방송은 “아침부터 올해 공동시설 과업관철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방송 선전차의 선동이 힘있게 벌어지고 포전에서 영농전투를 지휘하는 관리일꾼들, 발동소리 높이 울리며 달리는 트랙토르(트랙터)들과 거름을 싣고 부리는 농장원들로 하여 미곡벌은 불도가니마냥 끊어번졌다”고 소개
- 조선중앙TV도 2일 김 위원장이 2009년 11월 시찰한 황해남도 안악군 오국협동농장의 유기질 비료생산과 거름내기 소식을 전언, 북한 군인들도 농촌 지원에 나섰다며 “조선인민경비대 차백룡 소속 부대 군인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거름과 호미 등 영농물자들을 자동차에 싣고 평양 만경대구역 봉수농장을 찾았다”고 밝힘.
- 한편, 북한 내각의 김창식 농업상도 2일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싣고 “모든 농장에서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겠다”고 언급

● **평양의 백화점, 손님으로 붐벼(1/2, 조선신보; 평양방송)**

- 조선신보가 2일 평양발로 “새해를 맞으며 평양시민의 발길은 백화점을 향하고 있다”며 “백화점에서는 식료품, 일용품, 의류, 가구, 전기제품 등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새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소개, 개신문 옆 서평양백화점은 1일 오전 10시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로 만원을 이뤘다고 조선신보는 밝힘.

- 한편 평양방송은 “수도 평양의 상업 급양망들이 1일 새해 첫 봉사의 문을 열었다”며 “명절 일색으로 단장된 평양 제1백화점으로는 사람들의 물결이 그칠새 없었다”고 전언

● 국제사회, 2009년 北에 4천만 달러 지원(1/1, 자유아시아방송)

- 2009년 한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총액은 전년보다 다소 줄어든 4천60여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
- 유엔 인도지원조정국 대변인은 RFA에 “2009년 한국과 유럽국가 등이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식량, 의료, 농업, 식수 개선 사업 등에 4천60여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힘. 작년 북한은 국제사회에 별도의 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세계식량계획(WFP)의 긴급구호 사업, 세계보건기구(WHO)의 병원 보수 및 의료 지원 사업,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식수, 상하수도 개선 사업 등이 진행
- 그러나 2009년 지원액은 2008년의 4천800만 달러에 비하면 16% 감소했고, 지원국 또한 14개에서 10개로 줄었다고 RFA는 전언, 또한 목표액의 절반도 채 모금되지 않아 유엔 긴급구호기금(CERF)이 작년 총 대북 지원의 절반에 가까운 1천900만 달러를 지원함으로써 북한은 짐바브웨와 함께 긴급구호기금의 최대 수혜국이 됐다고 방송은 소개
- 국가별로는 스웨덴이 가장 많은 830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했고 캐나다, 호주, 스위스, 핀란드, 룩셈부르크 등도 많은 액수를 지원한 나라로 꼽혔다고 RFA는 보도

● 北, 1월 1일부터 외화 사용금지(12/30, 중국 중앙TV)

- 북한은 2010년 1월 1일을 기해 외화 사용을 금지한다고 중국의 중앙TV(CC-TV)가 날짜가 적히지 않은 북한 인민보안성의 포고문을 인용, 30일 보도
- 방송은 북한 주민들은 상점과 식당 등에서 달러화, 유로화 및 일체의 외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외국인들도 비용 지불을 위해서는 자신이 소지한 외화를 북한의 원화로 환전해야만 한다고 전언
- 최근 평양을 방문한 한국 비정부기구(NGO)의 한 인사는 교도통신에 평양의 한 주요 호텔에서 외국인들은 더 이상 달러화, 엔화, 그리고 위안화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소개, 이 NGO 인사는 호텔에서 단지 유로화만을 받았다고 덧붙임. 외환을 계속해서 받는 상점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외화를 쓰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고 이 NGO 인사는 전언

- 데일리 NK는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 인민보안성(한국의 경찰청에 해당)이 26일 달러, 위안, 유로 등 외화의 보유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포고문을 발표했다고 전언

● 北, 중국 곡물수출 통제 강화(12/30, 열린북한방송)

- 북한이 최근 일부 곡물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고 ‘열린북한방송’이 30일 보도
- 방송은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기사에서 “북한 당국이 콩과 녹두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면서 “팔도 지름 0.45cm 이상의 것만 수출하도록 제한했다”고 소개, 이어 종전에는 곡물 포대가 어떤 것이든 상관 없었지만 최근에는 아무 글씨도 쓰이지 않은 새 포대를 써야만 북한 세관이 수출 허가를 내 준다고 전언

● 주체철생산 성진제강 표창식(12/29, 조선중앙방송)

- ‘주체철’ 생산체계를 완성한 성진제강연합기업소 노동자, 기술자들에 대한 국가 표창식이 2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변영립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서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표창식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성진제강에 김일성상이 수여됐음.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성진제강 노동자, 기술자 대표단에게 선물을 보냈다고 방송은 소개

● 화폐 개혁 후 北실질임금 100배 올라(12/29, 오늘의 북한소식)

- 북한이 노동자 등에게 화폐 개혁 전 액면가와 같은 월급을 지급해 실질적으로 임금이 100배 오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대북 인권단체 좋은벗들은 29일 소식지에서 “각 시, 군 공장과 기업소에서 노동자에게 12월 월급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임금은 일반 노동자 1천500원, 기능직 노동자 2천~2천500원 선으로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힘. 북한이 최근 단행한 화폐 개혁은 신권과 구권의 교환 비율이 1대 100이었으

므로 종전과 같은 액수의 월급이 나왔다는 것은 임금이 실질적으로 100배 올랐다는 것을 의미

- 이 밖에 시당 일꾼 3천500~4천 원, 보안원 3천~3천500원, 보위부원 5천 원, 의사 3천~4천 원, 교원 2천~3천 원 등으로 월급이 정해졌다고 이 단체는 소개
- 좋은벗들은 “함경북도 고건원탄광기업소에서는 월급이 5천 원 선이 되면서 노동자들이 받은 월급으로 자전거와 텔레비전을 사는 등 살림살이가 대번에 좋아졌다”며 “월급 지급 후 출근율이 높아졌고 노동자들도 일을 잘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언
- 노동당 중앙은 화폐 개혁 후 주민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차원에서 일선 도·시·군당에 12월 월급분에 한해 노동자들의 실제 출근일수와 관계없이 월급을 전액 지급하라고 지시했지만 일부 공장·기업소에서는 출근 일수를 따져 임금을 쥐 200~300원을 떼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 일부 노동자들은 시당에 신고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이 단체는 전언
- 한편 북한 내각은 12월 식량을 우선 주민들에게 공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배급소에서 식량 구입가는 1kg당 쌀 44원, 옥수수 26원, 옥수수 국수는 28원으로 정해졌다고 전언
- 북한 중앙은행은 12월 4일 조선신보를 통해 화폐 개혁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 조치는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를 우대하는 조치로 공장, 기업소에서 받게 되는 생활비는 종전 금액 수준을 새로운 화폐로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

라. 군사 관련

● 노동신문, 한미 ‘국방지침’ 추진 비난(12/30,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이 30일 한국과 미국의 국방지침(Defense Guideline) 제정 추진에 대해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노동신문은 ‘모험적 전쟁도발 기도’라는 제목의 개인 논평에서 “미국이 남조선과 조선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미국·남조선 국방지침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동의 전쟁지침 작성으로 우리 인민에 대한 도전이며 노골적 평화파괴 행위”라고 주장

- 신문은 또 “미국은 말로는 조선반도 평화요 뭐니 하지만 뒤에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 준비를 하면서 정세를 최악의 상태로 몰고 있다”며 “국방지침 추진은 남조선군과 공동작전을 구체화하고 법제화하려는 범죄행위”라고 비난

● 北, 2002년에 이미 우라늄 소량 농축(12/27, 워싱턴포스트)

- 북한이 지난 2002년 무렵 '3000개 또는 그 이상'의 원심분리기로 우라늄을 소량 농축하고 있었으며, 농축에 필수적인 가스인 우라늄 핵사 플로라이드(UF6·6불화 우라늄) 제조공장은 이미 1990년대에 건설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 미 워싱턴포스트(WP)는 27일 북한에 핵무기 제조기술을 전수한 인물로 알려진 파키스탄 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Khan·73) 박사의 미공개 진술을 근거로 이같이 보도
- 칸 박사는 파키스탄이 적어도 6년간 북한에 우라늄 농축에 관한 핵심 기술과 설계 도면, 기술적인 조언을 제공했다고 주장, 북한은 이에 대한 대가로 국제 거래가 엄격하게 제한된 크리톤 제조법을 파키스탄에 전수한 것으로 알려짐. 크리톤은 핵 기폭장치에 사용됨.
- 칸 박사는 또 1999년 북한 방문 당시 북한이 자체 기술로 건설한 UF6 공장을 둘러봤다고 진술, 그는 당시 어느 산의 터널을 둘러봤는데 현지 안내인이 완성된 핵탄두 부품이 들어있는 상자 3개를 자신에게 보여줬다고 설명, 그는 “그 탄두들은 1시간 안에 미사일에 장착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북한의 UF6 생산능력은 초기에 연간 2t이었다가 이후 연간 10t 규모로 늘었다고 칸 박사는 설명, 북한은 파키스탄에 실험용으로 UF6 1t을 보냈고, 파키스탄도 자국의 샘플을 북한 생산의 표준 모델로 쓰도록 제공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
-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지난봄 이전에는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칸 박사와 관련 문제를 논의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고 WP는 보도, 한 대사는 “북한은 미국 정부의 호전성이 매우 높아진 뒤에야 ‘핵 억제책’으로 핵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주장

마. 사회·문화 관련

● 北신년 맞이 표정(1/1, 조선중앙통신)

- 신년 첫날 북한 주민들은 민속놀이를 즐기고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서 보내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 통신은 “집집마다 떡, 국수, 녹두지짐을 비롯한 민족의 향취가 풍기는 갖가지 음식들을 차려놓고 민족의 슬기가 깃든 장기, 윷놀이 등 오락과 유희로 흥취를 돋구며 즐겁게 쇠고 있다”고 소개
- 평양 시내 주요 음식점들도 분주, 옥류관과 청류관을 비롯해 인민봉사총국 산하 음식점들은 꿩고기 국수, 고기쟁반국수, 메추리 요리, 칠면조 요리, 계사니(거위) 요리 등 다양한 메뉴를 내놓고 있음. 통신은 “새로 개건돼 얼마 전에 문을 연 창광음식점거리에서도 민족음식과 중국, 서양요리를 만들어 봉사하고 있다”며 “중구역, 보통강구역 등 시 안의 식당에서도 메밀놀이(녹말)국수, 토장국밥, 찰떡, 설기떡, 녹두지짐 등 여러가지 특색있는 민족 음식을 봉사해 명절 분위기를 이채롭게 하고 있다”고 전언
- 김 주석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기념궁전과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 동상 등을 찾는 북한 주민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고 통신은 보도
- 북한의 당·정·군 간부들은 1일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참배했으며 김 주석의 입상 앞에는 당 중앙위, 당 중앙군사위,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명의를 화환이 놓여졌음.

● 北 휴대전화 가입자 8만 명 넘어, 생활상 변화(2010년 1월호, 조국)

- 북한의 3세대(3G) 휴대전화 가입자가 8만 명을 넘어서면서 특권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휴대전화가 시민들의 일상까지 서서히 바꾸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조국은 ‘평양의 새 풍경, 이동 손전화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휴대전화 보급에 따른 북한의 변화상을 자세히 소개
- 잡지에 따르면 평양 중구역에 위치한 ‘이동 손전화기 판매소’에는 매일 500명 이상 가입신청자들이 몰려 매우 활기찬 분위기를 띠고 있으며 평양에는 현재 2곳의 손전화기 판매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휴대전화 붐이 일면서 ‘자식 걱정’이 유별난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어린

이들에게 휴대전화를 사주는 경우도 생기고 있음. ‘조국’ 기자는 “오늘 저녁은 동무들과 공부하다 좀 늦어지겠으니 걱정 마세요”라고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어린이도 목격했다고 전언

- 그런가 하면 IT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 주민들이 갑자기 ‘블루투스’ 같은 첨단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쓰다보니 사용법을 잘 몰라 판매점을 찾는 경우도 많으며 휴대전화가 고장났다며 판매소로 들고 오는 사용자가 적지 않은데 심중팔구는 이런 경우임.
- 북한에서는 통화량 만큼 나중에 요금을 내지 않고 매번 선불카드를 구입해 휴대전화를 쓰고 있음.

● 김정일, ‘홍루몽’ 제작 직접 지도(12/30, 환구인물; 연합)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이 올해 ‘조(북)·중 친선의 해’를 맞아 중국 고전 소설 홍루몽을 개작, 가극 ‘홍루몽’을 제작할 때 직접 수십 차례 지도를 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
- 김정일 위원장이 2009년 10월 방북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함께 홍루몽을 관람할 당시, 사회자가 김 위원장이 이 가극을 잘 만들라고 특별히 지시하는 한편 직접 수십 차례 제작 지도를 했다고 밝혔다고 인민일보 자매주간지인 환구인물(環球人物)이 12월 하순호에서 보도
- 김 위원장은 또 대학 재학생이나 막 졸업한 신인들이 홍루몽의 주연에 발탁된 데 대해 가극중 인물의 이미지에 맞게 배역을 잘했다고 평가하고 이는 노동당이 예술계 후계자들을 제대로 육성하고 있음을 설명해준다고 치하했다고함.
- 한편 중국은 북한의 가극 홍루몽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11월 전문가 4명을 평양에 파견, 무대장치, 미술, 의상, 무용동작 등을 지도했다고 주간지는 보도
- 김정일 위원장은 2008년 4월 조중친선의 해를 앞두고 피바다가극단에 가극 홍루몽을 다시 만들라고 지시, 북한은 고 김일성 주석이 1961년 중국 방문중 가극 홍루몽을 관람하고, 이어 상하이 월극(越劇)단이 이해 가을 방북해 홍루몽을 공연한 것을 계기로 김 주석의 지시로 창극 형태로 홍루몽을 제작했었음.

● 北소설문단 성과는 젊은 작가 약진(2009년 12월호, 조선문학)

- 북한의 월간 문학잡지 '조선문학' 12월호는 올해 북한 소설문단의 주목할 만한 성과로 30~40대 젊은 작가들의 약진을 꼽음.
- 잡지는 연말 결산 기사에서 "올해 소설문단의 특기할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30~40대 젊은 작가들이 자기의 뚜렷한 얼굴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한 뒤 '자기의 뚜렷한 얼굴'에 대해 "소설작품에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숨결을 체현한 전형적이고 개성적인 성격 창조, 새롭고 독특한 구성수법, 특이한 자기 나름의 문체 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
- 잡지는 눈에 띄는 젊은 작가 작품으로 단편소설 '가시오갈피'(김홍철), '세월은 흘러도'(백명길), '내 고향은 아름답다'(김홍균), '나래를 퍼덕이라'(김경일) 등을 지목하고 "문단에서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들"이라고 평가
- 잡지는 또 장편소설 '행복의 기초', '불타는 여명', '내 고향의 봄', '바다사나이', '연륜', '북두칠성'과 시 '불세출의 탄생', '6월19일', '어머님 추억', '상봉', '우리의 별이 빛난다' 등을 우수작으로 분류

● 北, 신종플루 긴급대상 11호 지정(11/28, 연합)

- 북한은 최근 신종플루 사망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치료 후 재발 환자까지 급증하자 이른바 '11호' 긴급조치를 발동, 전시 상황에 준해 신종플루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치료하고 있다고 대북인권단체 '좋은벗들'(이사장 법륜스님)이 28일 밝힘.
- 법륜스님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09 북한사회동향 보고회'에 발표자로 나서 "과거 북한은 전쟁과 같은 극한상황에서 가장 치료가 급한 부상병이나 세균감염자를 11호 대상으로 분류해 특별관리했다"면서 "이번 신종플루의 전염 속도와 위험성을 의식해 11호 조치를 취한 것 같다"고 설명
- 그는 북한 내 소식통을 인용, "11호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무 교통수단이나 임의로 세울 수 있고 거부하면 행정처벌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는 다"며 "일례로 북한은 6.25 전쟁 당시와 2002년 서해교전 때 부상병들을 11호 대상으로 처리한 바 있다"고 설명
- 그는 또 "북한의 이번 신종플루는 중국 단둥(丹東)을 거쳐 전파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11월에만 신의주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등 40여 명이 사망했고 현재는 북한 전역에 확산돼 교화소 면회까지 금지된 상황"이라고 소개

2 대외정세

가. 북·미 관계

● 美, 로버트 박 사건, 안보·정치문제와 무관(12/30, 연합)

- 미국은 30일 인권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북한 국경을 무단으로 넘어갔다가 억류된 대북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씨 문제가 6자회담 재개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힘.
- 미 국무부는 연합뉴스의 관련 질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안보나 정치적인 어떤 문제와도 관계가 없는 영사적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힘. 국무부는 이어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박씨에 대한 영사적 접근을 여전히 추진 중이라고 소개
- 앞서 국무부는 29일 성명을 통해 “북한 정부가 조사를 할 때까지 미국 국민 1명을 억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박씨 면담 추진 방침을 밝혔음.

● 美, 뉴욕채널로 北과 로버트 박 논의(12/30,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정부가 무단 입북한 재미교포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28)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욕 채널로 북한과 논의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국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30일 보도
- 이 관리는 RFA에 “(북한이) 박씨를 억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면서 “뉴욕 채널에서 북한 측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
- 미 국무부는 또 28일(미국 시간) 샌디에이고에 사는 박씨 가족과 연락해 박씨의 입국 경위와 배경을 조사했다고 RFA는 전언

● 美, 억류 로버트 박 면담 추진(12/30, 연합)

- 미국은 29일 인권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무단 입북했다가 북한 당국에 억류된 미국 국적의 대북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씨에 대한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북한 정부가 조사를 할 때까지 미국 국민 1명을 억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언급
- 그는 “우리는 평양에서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북한 주재) 스웨덴 대

사관을 통해 이 미국인에 대한 영사적 접근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미국은 그러나 북한과의 직접 접촉에서 북한의 로버트 박 억류 사실을 확인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밝히지 않음.
-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12월 24일 미국 사람 한 명이 조중 국경지역을 통하여 불법 입국해 억류됐으며 현재 해당 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다”고 로버트 박 억류 사실을 공식 확인

● 北, ‘평화협정 체결이 우선’ 美에 전달(12/28, 교도통신)

- 북한은 현재의 정전협정을 대신할 항구적인 평화협정 체결이 북·미 관계정상화보다 중요하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북·미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이 28일 보도
-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12월 8~10일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해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을 비롯한 북한의 고위 관리들을 만났을 당시 북한 측에서 “외교관계는 언제라도 깨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언
- 북한 측은 또 “우리는 당분간 (미국과 관계정상화에) 관심이 없다”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언
- 북한 관리들은 아울러 미국의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와 경제지원, 외교관계 정상화 등 조건부의 포괄적인 접근법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 “관심이 있을 때”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고 언급, 이들은 거듭 “미국이 적대시 정책과 같이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비핵화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 소식통은 이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보즈워스 대표를 통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한 친서에서 평양 연락사무소를 제안하지는 않았으며 6자회담 복귀와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다고 전언

나. 북·중 관계

● 中, 김정일 방중설 들은 바 없다(12/31,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31일 최근 나돌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임박설을

우회적으로 재차 부인,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김정 일 위원장이 2010년 초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의 진위를 확인 해 달라는 요구에 “현재까지 그런 방면의 정보를 들은 바 없다”고 언급

- 한편 장 대변인은 재미교포 대북 인권운동가의 입북 사건과 관련, “미국과 북한이 적절하게 사건을 처리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란 큰 흐름을 유지 하길 희망한다”고 언급

● 北외무성 부상, 북-중 우호 불변 과시(12/29, 연합)

- 김영일 북한 외무성 부상은 28일 “올해 북한과 중국은 일련의 행사를 통해 양국의 우호관계를 전 세계에 과시했다”고 언급
- 김 부상은 이날 평양의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송년 리셉션에서 북·중 관계를 심화, 발전시켜 나간다는 게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힘. 이에 대해 류샤오밍(劉曉明) 주북 중국대사도 북·중 우호의 해인 2009년에 열린 행사 들은 양국 국민의 우정과 이해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화답

다. 북·일 관계

● 북·일 비밀접촉, 북측 제의로 성사돼(1/3, 연합)

- 2009년 여름 이후 중국 베이징(北京) 등에서 수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일본 민주당과 북한 간 비밀접촉은 북한의 제의로 성사된 것으로 3일 알려짐. 또 북한은 이 자리에서 과거에도 제의한 이른바 ‘적군과 추방’ 문제를 타진했 을 가능성이 크며, 일본인 납치문제 등 현안에 대해 양측은 입장을 조율했 으나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북수의 외교소식통은 전언
- 일본 측은 적군과 문제에 대해 ‘북한이 보호 중인 자국민 적군과 요원을 추 방하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 려짐.
- 한 소식통은 “북·일 접촉은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접촉이라기보다는 일본 민주당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아직 주요 현안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 는 없다고 들었으며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일본 정부 또는 정치권에서 후속 접촉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 그는 “현재는 북한에서 만나자고 하니 일본 민주당 측에서 그 진의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설명

3) 대남정세

● 북, 개성공단 실무회담 조기개최 강력 희망(1/3, 연합)

- 북한은 2009년 12월 12~22일 남북한 합동으로 진행한 중국, 베트남 공단 시찰 때 개성공단 현안 협의를 위한 실무회담의 조기 개최를 강력하게 희망했던 것으로 3일 알려짐.
-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북측은 시찰 과정에서 임금 문제, 근로자 숙소 및 출퇴근 도로 건설, 작업장 환경 개선, 3통(통행, 통관, 통신) 해결 등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조기에 개최하자는 뜻을 남측 시찰단에 전달
- 북측 단원들은 억류 근로자 유성진씨 석방, 통행제한 조치 해제, 해외공단 합동시찰 등 남측이 제기한 개성공단 관련 요구들을 대부분 수용한 만큼 실무회담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 사항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개성공단 실무회담 개최 제의가 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측의 정식 제의가 있으면 실무회담 개최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 개성공단 10여 개사 70만 달러 임금체불(1/2, 연합)

- 개성공단 입주업체 및 건설업체 중 10여 개사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개성공단에 정통한 소식통은 2일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입주업체 10곳과 현지 건설업체 3곳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총 체불임금 액수는 약 70만 달러 정도”라고 설명
- 업체별 체불 임금 규모는 적게는 수백 달러, 많게는 16만 달러 가량이나 되며, 초기 입주업체인 S사 등 10만 달러 이상 밀린 업체가 4곳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소식통은 전언
- 개성공단 관계자는 “단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액 체불업체들은 큰 문제가 없으나 체불기간이 긴 일부 업체들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언
- 북측은 2009년 12월 12~22일 중국, 베트남 공단에 대한 남북 합동시찰 때 개성공단 일부 업체들의 임금 체불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
- 정부 관계자는 “북측 공단관리 당국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입주업체

들로부터 근로자 임금을 달러로 일괄 수령한 뒤 근로자에게 생필품 쿠폰과 현금(북한 돈)을 나눠주는 식이기 때문에 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총국이 자체적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장해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고 소개

- 북한이 우리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만든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과 ‘노동세칙’에 따르면 북측은 입주 기업이 30일 이상 근로자 임금을 체불할 경우 벌금 100~2천 달러 또는 영업 중지 처분을 내릴 수 있음.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이 같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현재 개성공단에서는 120여 개 입주 업체들이 북한 근로자 4만여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남북 간 합의에 따른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 임금은 57.881달러(사회보험료 제외)임.

● **北민화협, 남북협력제주본부에 새해 메시지(12/31, 연합)**

- 사단법인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이사장 강영석)는 북한민족화해협의회(회장 김영대)가 31일 오전 팩스로 새해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밝힘.
- 민화협은 메시지에서 “6.15 공동선언 10돌이 되는 뜻깊은 새해를 맞아, 남북협력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운동본부에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사업에 새로운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이 메시지는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와 제주도가 1999년부터 지속해 온 감귤 북한 보내기사업이 중단되지 않길 바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임. 북한민족화해협의회는 감귤 북한 보내기사업이 시작된 이후 해마다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에 신년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음.

● **개성공단직원 ‘사전등록제’ 2010년 시행(12/30, 연합)**

- 정부는 개성공단 직원으로 신분을 속여서 방북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내년 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신원을 전산화해 관리하는 ‘사전 등록제’를 시행할 방침임.
- 정부 당국자는 30일 “수시로 북한을 왕래하는 개성공단 관계자들의 명단과 신상 정보를 미리 전산 시스템에 등록한 뒤 방북 신청이 들어오면 등록된 명단과 대조하는 방안을 2009년 초부터 정식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
- 그는 “만약 전산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개성공단 관계자라며 방

북을 신청할 경우 입주기업의 재직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신분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로부터 직원 명단을 제출받았으며, 전산 시스템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수작업으로 방북 신청자와 등록 직원 명단을 대조할 계획이라고 정부 소식통들이 전언
- 경기 파주시의회 의원 4명은 지난 10월 개성공단 입주기업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방북 신고서를 작성해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뒤 사실상 관광 일정으로 개성을 방문하고 돌아와 물의를 빚었음.

● 북, 경수로 장비·자재 무단 반출(12/30, 중앙일보)

- 북한이 4년 전 건설이 중단된 함경남도 금호지구(신포시 일대) 한국형 경수로의 현장에 보관 중이던 우리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무단 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중앙일보가 30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통일부와 관계 당국은 북한이 금호 지구에서 최근까지 트럭·버스 등 모두 190대의 차량을 빼내간 것으로 보고 있음. 또 크레인과 굴착기 등 북한에 넘어갈 경우 군사용 등으로 전용될 수 있어 정부가 전략 물자에 준해 관리해오던 중장비 93대도 가져갔고, 6500t의 철근과 32t의 시멘트도 대부분 반출된 것으로 알려짐.
- 이 물품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계획(HEUP)으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 사업이 종료되면서 건설 현장에 남겨 놓은 것임. 1997년 8월 착공을 시작한 대북 경수로 건설 사업은 공정률 34% 상태였던 2005년 말에 완전 중단됐음. 정부는 그동안 공사비 15억 6200만 달러 중 11억 3700만 달러를 냈었음.
- 신문은 북한의 무단 반출이 북한과 KEDO 간 합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 또 “2006년 10월과 지난 5월 북한의 핵실험 때 경수로에서 빼낸 자재·장비가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다”는 한 당국자의 말을 빌어, 정부가 이를 감춰왔다고 강조

● 연탄나눔 운동, 北에 '사랑의 연탄' 5만 장 전달(12/29, 연합뉴스)

-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부천시지부는 영하 15도 안팎의 매서운 추위를 보인 29일 오전 북한 개성지구에 연탄 5만 장을 전달, 부천 연탄

나눔운동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연탄을 25t 트럭 8대에 나눠 신고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개성으로 들어갔음. 이날 연탄 전달은 개성 지구로 가는 올해 마지막 행사로, 30일 금강산 지구에 연탄 5만 장을 전달하면 올해 북한과 합의한 50만 장을 모두 전달하게 됨.

● **대북인도적지원 기금 260억 원 의결(12/28, 연합)**

- 정부는 28일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쓸 남북협력 기금 약 260억 원을 의결, 통일부는 “오늘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를 통한 북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에 남북협력기금 약 26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이와 관련,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에 약 1천 300만 달러, 유니세프의 영유아 대상 영양 개선 및 예방백신 제공 사업에 약 400만 달러를 각각 지원, 또 ‘우리민족서로돕기’, ‘한국 제이티에스’ 등이 추진하는 북한 영유아용 영양식과 분유, 필수 의약품 지원 등에 35억 원, ‘겨레의 숲’의 병충해 방제 등 북한 산림 녹화 사업에 약 20억 원, 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의 북한 기초 의약품 생산지원 등에 5억 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음.
-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지원은 북한의 인도적인 상황과 취약계층 지원의 시급성, 국제기구와 민간단체의 지원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했다”며 “이로써 올해 대북지원 사업과 관련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액수는 총 500억 원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11월 01일		
11월 02일	김정일, 태천군 은흥협동농장 현지지도	중통(11/2)
	광주학생사건 80돌 기념 평양시 보고회(청년중앙회관)	중통(11/2)
11월 03일	8,000대의 폐연료봉 재처리 8월 말 완료, 무기화	중통, 평방(11/3)
	안중근 열사 의거 100돌 남북공동모임(개성)	중통(11/3)
11월 04일		
11월 05일		
11월 06일		
11월 07일	김정일 위원장, 함남 정평군 금진강구창청년발전소 함주군 동봉협동농장도 현지지도	중통(11/7)
11월 08일	김정일 위원장, 조선인민군 제1224군부대 시찰	중방(11/8)
11월 09일	김정일, 인민보안성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중통(11/9)
	프랑스 대통령 특사 「자끄 랑」과 일행, 평양 도착	중방(11/9)
11월 10일	박의춘 외무상, 프랑스 대통령특사(자크 랑)와 회담 진행	중통(11/10)
11월 11일		
11월 12일	김영남, 프랑스 대통령 특사(자끄 랑)와 담화(만수대의사당)	중방(11/12)
11월 13일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모범적인 단위들에 3중 3대혁명붉은기(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등) 등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발표	중방(11/20)
11월 14일		
11월 15일		
11월 16일	만수대창작사 창립50돌 기념 보고회(인민문화궁전)	중방(11/16)
11월 17일		
11월 18일		
11월 19일		
11월 20일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580군부대산하 '7월18일소목장' 현지지도	중통(11/20)
11월 21일		
11월 22일	김정일 위원장, 조선인민군 '제147군부대관하 중대군인들의 예술소품공연' 관람	중통(11/22)
	중국 국방부장 「양광렬(梁光烈)」, 방북	중방(11/22)
11월 23일	김정일 위원장, 평안북도 '운산공구공장' 현지지도	중통(11/24)
11월 24일	北 인민무력부 김영춘, 中 국방부장 장광렬과 회담(평양)	중통(11/24)
11월 25일	김정일 위원장, 평안북도 내 공장기업소(양책베어링공장, 신의주신발공장, 신의주닭공장 등) 현지지도	중방(11/25)
	김정일 위원장, 중국 국방부장 '광광렬' 접견	중통, 중방(11/26)
11월 26일	김정일 위원장, 황해남도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현지지도	중통(11/26)
	김정일 위원장, 조선인민군 해군 제587연합부대 지휘부 시찰	중통, 중방(11/26)
11월 27일		
11월 28일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11월 29일	김정일 위원장, 조선인민군 제109군부대 관하 대대 시찰	중통(11/29)
11월 30일	김정일 위원장, 인민보안성에서 새로 건설한 대동강과수종합농장 현지지도	중통(11/30)
	北, 화폐 개혁 공식보도	조선신보(11/30)
12월 01일	'세계 에이즈의 날' 행사(인민문화궁전)	중통(12/1)
12월 02일		
12월 03일		
12월 04일		
12월 05일		
12월 06일		
12월 07일		
12월 08일	美보즈워스 특사 평양 도착	중방(12/8)
12월 09일		
12월 10일	김정일 위원장, 자강도 산업시설 현지지도	중통(12/10)
12월 11일	김정일 위원장, 연일 강계시 산업시설 시찰	중통(12/11)
12월 12일	김정일 위원장, 평양시내 현지지도, 산학협력 강조	중통(12/12)
12월 13일		
12월 14일	김정일 위원장, 평양 체육관 일꾼-종업원 등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은 한" 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중방(12/14)
12월 15일	12.1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9호 발표	중방(12/15)
12월 16일	김정일 위원장, 라선대흥무역회사 현지지도	중통(12/16)
12월 17일	청진 광산금속대학 및 김책제철련합기업소 현지지도	중통(12/17)
12월 18일		
12월 19일	성진제강련합기업소 현지지도	중통(12/19)
12월 20일	北 - 스위스 외교관계 설정 35돌 즈음 '스위스영화 상영주간' 개막식	중방(12/21)
12월 21일	北 - 브라질, 「무협협정 수정의정서」 12.21 평양서 조인	중통(12/21)
12월 22일		
12월 23일	근로단체들, 김정일 군 최고사령관 추대 18돌 및 김정숙 생일 92돌 즈음 예술공연 진행	중통(12/23)
12월 24일	송父子 혁명사적표식비, 황북 평산군 인민보안서·자강도 강계시 은정협동농장·함경북도인민병원 등에 건립	중통(12/24)
12월 25일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김정일 현지지도 1돌 기념보고회 진행	중방(12/25)
12월 26일		
12월 27일		
12월 28일	김정일, 헌법절 즈음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해군사령부협주단 공연 관람	중통(12/28)
12월 29일		
12월 30일	평양 청춘거리에 '체육과학도서관' 완공	중방(12/30)
12월 31일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